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

# 평화를 찾아서

사람들은 모두 평화를 원하며, 아무도 평화에 대항하지 않는다.

그러나 누가 기꺼이 자신을 던져 평화가 구체적인 현실이 되도록 할 것인가?

평화의 기쁨은 수놓았거나 세련된 것이 아니다.

평화는 절단력이 없는 사람이나 자식에겐 빠져 있는 사람,

또는 고요한 삶에 만족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평화는 우리가 하는 일 안에서, 이웃 안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양심의 빛 안에서 정직하게 살기를 요구한다.

그것은 의무의 짐이 없이는 다가오지 않는다.

평화는 사랑의 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틱낫한 서문

# 평화를 찾아서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 지음/ 이진권 옮김

이 전자책을 여러분의 벗들과 나누시렵니까?  
원하시는 대로 벗님들에게 보내십시오.  
이 책을 전송하거나 부분, 전체 인쇄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문을 부분 변경하거나 훼손하지는 마십시오.  
만약 본 책을 방대한 발행을 위해 대량 복사하거나 뉴스  
나 잡지류에 재출판하기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 조건이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 책을 재출판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다음 크레딧 라인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Copyright 2007 by Plough Publishing House.  
Used with permission”

이 전자책은 플라우 출판사의 출판물입니다.  
Plough Publishing House,  
Robertsbridge  
East Sussex  
TN32 5DR  
UK ([www.ploughbooks.co.uk](http://www.ploughbooks.co.uk))  
Copyright © 2007 by Plough Publishing House

SEEKING PEACE  
by Johann Christoph Arnold  
Original Copyright © 1998 The Plough Publishing House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 2006 Shanti Books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베스트 에이전시를 통한  
원저작권자와의 독점 계약으로 도서출판 샐티에 있습니다.

잠시 '평화' 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세상이 끊임없이  
 전쟁과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괴로워하던 때에 천사들이 평화를  
 알려야만 했던 것이 이상한가? 그대에게는 천사들의 목소리가  
 잘못된 것으로, 그 약속이 실망스럽고 사기인 것처럼 보이는가?  
 이제 우리 주님 자신이 평화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살펴보자.  
 그분은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평화를 영국이 이웃 나라들과 화평하고,  
 귀족들이 왕과 평안하며, 가정이 자신의 안락한 이익과,  
 청결한 가정과, 식탁에서 친구와 나누는 최고급 포도주와,  
 아이들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아내를 헤아리는 것으로 여기듯이,  
 그러한 뜻으로 말했는가? 그분의 제자들은 전혀 그러한 것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멀리 여행을 떠났으며, 육로와 수로에서 고통받고,  
 고문당하고, 투옥과 좌절을 겪었으며, 순교를 감수했다.  
 그렇다면 그분이 뜻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대가 그것을 묻는다면,  
 그분이 또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것을, 나는 그대들에게  
 준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분은 제자들에게 평화를,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화를 선사했다.

—TS 엘리엇, 《성당의 살인 Murder in the Cathedral》에서

## 차례

머리말 7

서문 10 · 탁낫한

### 제1부 평화를 찾아서

평화를 찾아서 14

### 제2부 의미

의미 20 | 전쟁이 없는 상태로서의 평화 22 | 성서 속의 평화 25

사회적 대의로서의 평화 28 | 개인 삶에서의 평화 30

하느님의 평화 35 | 이해를 넘어서는 평화 37

### 제3부 역설

역설 40 | 평화가 아니라 칼을 41 | 사랑의 맹위 49

죽음으로써 누리는 생명 55 | 바보들의 지혜 66 | 연약함의 힘 74

### 제4부 징검다리

징검다리 85 | 단순함 94 | 침묵 101 | 내어 맡김 110 | 기도 123

신뢰 135 | 용서 148 | 감사 156 | 정직 167 | 겸손 178 | 순종 192  
결단 203 | 회개 213 | 확신 226 | 섬김 237

## 제5부 풍요로운 삶

풍요로운 삶 250 | 안전 262 | 온전함 274 | 기쁨 284 | 행동 297  
정의 309 | 희망 327

저자에 대하여 339

브루더호프에 대하여 341

옮긴이의 말 348

## 머리말

—메들린 랭글 Madeleine L' Engle

살롬. 평화. 평화는 수동이 아니라 능동이다. 평화는 단지 폭력의 중지가 아니라 폭력을 꿰뚫고 넘어서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평화다. 평화의 결핍이 두드러진 20세기 말에,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의 책 《평화를 찾아서》(원제는 Seeking Peace)가 나오게 된 것은 기쁜 일이다.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들은 평화에 대한 정의를 인용한다. “하느님과 맺는 영혼의 내적인 평화, 다른 이들과의 평화로운 관계들을 통한 비폭력의 실현, 그리고 의롭고 평화로운 사회 질서의 확립.” 나는 매일 아침 뉴스를 들을 때면, 우리가 이 삼중의 평화로부터 점점 더 멀리 떠나가는 것처럼 느낀다. 우리는 우리를 살롬으로 이끄는 이 책이 필요하다.

십여 년 전 사순절 기간의 어느 날 저녁, 나는 맨해튼의 성 요한 대성당에서 참사회 의원인 에드워드 웨스트 님이 지하철의 은유를 들어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청중들은 대부분 그날 저녁에 지하철을 타고 대성당

에 왔으며, 출퇴근 때도 보통 지하철을 탄다. 그는 만약 우리가 같은 칸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 대부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보일 거라고 말했다. 그것은 슬프게도 대개 진실이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눈에 띄지 않게 한 사람에게, 이 사람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의 평화 안에서 머무를 수 있다고 확인하면서 주의를 집중한다면, 뭔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말했다. 평화는 당신이 ‘행하는’ 어떤 일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줄 수 있는 선물이기도 하다.

그 뒤 내가 지하철을 탔을 때다. 구석에 있는 한 여인을 언뜻 보았는데, 등을 구부리고 손을 짝 쥔 채 뭔가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를 바로 쳐다보지 않은 채로 나는 하느님의 사랑이 담긴 평화를 그녀에게 보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지도 않았다. 그저 단순히 웨스트 의원의 제안을 따랐을 뿐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가 편해지기 시작했다. 손이 풀어졌고, 몸이 이완되었으며, 근심하던 얼굴 표정이 사라졌다. 그것은 나에게 크나큰 감사의 순간이었으며, 내 자신까지도 충만케 하는 평화의 순간이었다.

이것은 내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인파가 많은 거리를 걸을 때, 또는 슈퍼마켓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줄



뒤에 섰을 때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것이다. 하느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와 함께 실어 보내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나 덕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활동하는 거룩한 영 Holy Spirit에 의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줄 수는 없다. 그러나 거룩한 영이 어두운 구름을 뚫고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평화의 매개체가 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평화도 깊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평화를 더 많이 나누어주면 줄수록 우리는 더 많은 평화를 누리게 된다.

이 책에서 크리스토프 아놀드는 우리가 찾아야 할 평화를 설명하고 이러한 종류의 평화를 예증해 주는 많은 사건을 이야기한다. 이 책은 아름다울 뿐 아니라 중요한 책이며, 우리가 하느님의 평화를 지니고 새로운 천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꼭 필요한 책이다.

코네티컷 고센에서

1998년 여름

## 서문

—턱낫한Thich Nhat Hanh

예수는 산상수훈에서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대가 평화를 위해 일하려면, 먼저 그대의 영혼이 평화로워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그대는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나 평화를 위해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지 못하다. 그들은 여전히 분노와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다. 우리는 그들이 하느님의 나라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없다. 평화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슴이 이 세상과 그리고 형제자매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 바로 이 진실이 이 책의 핵심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평화를 전쟁이 없는 상태로 생각한다. 그래서 만약 강대국들이 무기를 감축한다면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무기가 필요한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의 편견과 두려움, 무지를

볼 수 있다. 설령 우리가 모든 폭탄을 달나라로 보낸다 해도, 전쟁의 뿌리와 폭탄이 필요한 이유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곧이어 새로운 폭탄을 만들게 될 것이다.

예수는 “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 고 옛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하며…… 자기 형제더러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평화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 무기를 없애는 것보다 더 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과 모든 사람의 가슴속에 있는 전쟁의 뿌리를 뽑아냄으로써만 평화를 위한 참된 노력을 시작할 수 있다.

어떻게 폭력의 악순환을 끝낼 수 있는가? 아놀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세상과 평화를 이루기 전에, 먼저나 스스로가 평화로워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 얼마나 분명한 진실인가. 만약 우리가 부모나 가족, 사회나 교회 구성원과 다투고 있다면, 아마도 우리 내면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싸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평화를 향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요소들—우리의 감정, 지각, 정신 상태—사이에 조화를 이뤄내는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대의 내면에서 갈등하고 있는  
요인과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노력하  
라. 무엇 때문에 화가 나고 분열되는지, 그리고 무엇으  
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  
도록 애쓰라. 인생에서 폭력을 뿌리째 없애고, 늘 깨어  
있는 상태로 자비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 평화를  
찾으라. 그대가 그대 안에 평화를 이루게 될 때, 다른 이  
들과의 진정한 평화가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이다.

프랑스 자두 마을에서

1998년 봄

# 제1부

## 평화를 찾아서

*힘겨운 시대에도 희망은 여전히 있다*  
*-아일랜드 속담*

## 평화를 찾아서

우리는 평화롭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다. 평화에 관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평화를 찾기란 쉽지 않다.

폭력은 멕시코의 치아파스, 북아일랜드, 동티모르, 이라크 등과 같은 최근의 치열한 분쟁 지역에서부터, 쇠퇴하고 있는 도시의 거리에 이르기까지, 세계 어느 곳에서나 공공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 사적인 생활에서도 가정 폭력이라든지 불건전한 중독, 그리고 회사와 학교와 교회를 분열시키는 파괴적인 갈등의 형태로 일상적으로 발견된다.

폭력은 우리가 문명화되었다고 여기는 사회의 가장 뛰어난 외형 뒤에 숨어 있다. 폭력은 거대한 경제적·문화적 제도를 움직이게 하는 탐욕과 거짓과 부정의라는 터빈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 폭력은 훌륭한 기독교인의 결혼 생활을 좀먹을 수 있는 불성실 가운데 있다. 또 영적 생활을 무감각하게 만들며 경건한 종교적 표현을 무색하게 만드는 위선 가운데 있다.

인간적으로 보면, 평화에 대해 책을 쓴다는 것은 고집스러운 일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평화를 향한 바람은 하늘에 사무치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영혼이 지닌 가장

깊은 갈망 중의 하나이다. 이것을 조화나 평온함, 온전함, 마음의 건전함 등 뭐라 부르든 간에, 이에 대한 열망은 모든 사람의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 아무도 문제나 골칫거리, 번민을 좋아하지 않는다. 누구나 근심과 의심, 폭력과 분열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인 평화를 원한다. 안정과 안녕을 원한다.

몇몇 사람과 조직은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예컨대 국제화해연대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1919년에 창립된, 사랑과 비폭력으로 세계의 치유와 화해를 추구하는 국제적 평화 운동 단체—옮긴이)의 목표는 국제 차원에서 정치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린피스 같은 조직은 인간과 다른 생물들 사이의 조화를 꾀하고 환경과 인간의 내적 연관성에 대한 의식을 높여가고자 한다. 생활 방식을 바꿈으로써 평화를 찾는 사람도 있다. 가령 직업을 바꾸고, 시골로 이사하고, 단순화하고, 그렇지 않으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평화를 추구한다.

이 책을 쓰면서 나는 우연히, 부두를 배경으로 한 여인의 모습이 실린 광고물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간이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호수에 지는 눈부신 석양을 바라보고 있다. 그 광고문에는 “환상적인 직업, 귀여운 아이들, 최고의 결혼.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절대적 허탈감” 이라고 써어 있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녀처럼

럼 말로 표현되지 않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모두는 일정한 수준에서 하느님이 의도했던 것과 같은 삶을 추구하고 있다. 조화와 기쁨,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인생 말이다. 슬픔과 고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인생과,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갈망하는 잃어버린 에덴동산을 꿈꿔왔다. 이상적인 시대와 장소를 꿈꾸는 열망은 오랜 역사를 지닌 보편적인 것이다. 수천 년 전 히브리 예언자인 이사야Isaiah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평화의 왕국을 꿈꿨다. 그 후 오랜 세기 동안 사람들은 아무리 어두운 상황이나 피로 얼룩진 전쟁터에서도 이사야의 이상 속에서 희망을 발견해 왔다.

최근에 반전 활동가인 필립 베리건Philip Berrigan 신부(1923-2002, 세계적인 평화 운동가이자 기독교 무정부주의자였던 가톨릭 신부. 형제인 다니엘 베리건과 함께 반전 활동으로 FBI 지명수배자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옮긴이)가 미국 메인의 해군 조선소에서 벌인 시민 불복종 행동 때문에 재판에 회부되어 판결을 받을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동에 대한 소송을 기각시켰다. 필립은 자신의 행동이 대다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불합리한 현장을 만들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어딘가의 해안”에서 죽느니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신념을 위해 나머지 인생을 교도소에서 보내겠노라고 덧붙였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필립은 일흔네 살이다. 그러나 그는 핵무기 산업에 대해 모든 사람이 그의 나이를 잊어버릴 만큼 활기차게 반대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내가 참여하고 있는 브루더호프the Bruderhof 공동체는 종종 이와 비슷하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난 받아 왔다. 그렇다. 우리는 중산 계층의 행복이라고 여기는 길, 즉 개인의 가정과 재산, 직업, 은행 구좌, 뮤추얼 펀드, 그리고 은퇴 후의 안락한 삶을 버렸다. 초대 기독교인들의 방식대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포기한 것이다. 우리는 희생과 수행과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싸워왔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평화의 삶이 아니다.

평화는 무엇이며, 실재實在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후손에게 무엇을 전해주려고 하는가? 우리는 행복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혼과 아이, 차와 직업 다음에 과연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오히려 우리가 전해줄 유산은 실제로는 무기로 가득하며, 계급간의 적대감과 가족간의 불화, 냉랭함과 비방, 이기적 야망과 원한으로 얼룩진 세상이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이 평화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극복되는 더 위대한 실재가 있는 것인가?

이 책에서 나는 굉장한 논제를 공식화하거나 증거가

허술한 주장을 서술하는 일 따위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영적인 삶에 이르는 방법에 관한 책은 어느 서점에나 있다. 그러나 내 경험으로 봤을 때 삶은 결코 그렇게 정리되지 않는다. 대개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 아무튼 독자들은 각자 자신이 추구하는 것에 따라 다른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나 또한 평화롭지 못함의 뿌리를 밝히는 데 그리 오래 머무르지는 않으려고 했다. 어떤 이는 책 한 권 전체를 이 주제에 맞출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책이 너무 우울한 분위기가 되어 읽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나의 목적은 단순하다. 여러분에게 길을 따라 징검다리를 놓아주고, 평화를 추구해 나아가는데 충분할 만큼의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다.

## 제2부

# 의미

그대가 내면의 평화를 누릴 때만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

- 랍비 심차 부님 *Simcha Bunim*

## 의미

연하장에서부터 책갈피, 광고판, 심지어 수놓은 행주에 이르기까지, 우리 문화에는 평화라는 말이 넘쳐나고 있다. ‘평화와 선의’ 같은 문구는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서 무슨 구호나 상투적인 문구처럼 되어버렸다. 편지를 주고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끝을 ‘평화’ 라는 말로 마무리한다. 또 정부와 언론은 전 세계 분쟁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중무장한 ‘평화 유지’ 군에 대해 이야기한다. 교회에서는 신부와 목사가 “평화 속에 나아가십시오” 라는 말로 미사와 예배를 마친다. 이 말이 축복의 의미로 선택되었음에도, 대부분은 다만 다음 일요일까지 해산하라는 말처럼 사용되는 듯하다.

뉴욕의 지도적인 이맘(이슬람교 스승)인 무하마드 살렘 아과Muhammad Salem Agwa는 충실한 이슬람교도는 만나서 인사할 때 ‘살람 알라이쿰Salaam alaikum’ 이라는 말로 서로를 인정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또 말하기를, 그들 사이에서 평화의 인사가 습관처럼 되어버려서,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상호 책임성에 대해서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지나가 버린다고 한다.

“나는 살람 알라이쿰을 일상적인 인사말로 사용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좋은 아침입니다’ 나 ‘좋은 오

후입니다’ 라는 의미만 지닌 것이 아니다. 그 말에는 ‘신의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이라는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다. 이 인사를 할 때면, 나는 당신이 나와, 그리고 내가 당신과 평화로운 관계에 놓여 있음을 느낀다. 나는 당신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중이다. 나는 당신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온 것이다. 그리고 이 인사는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신이 당신에게 축복과 자비를 베풀기를, 그리고 당신과 내가 형제로서 관계를 더욱 깊게 할 수 있기를, 내가 신에게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우리가 하루 동안 인사하는 모든 사람과 진정으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면, 우리의 인사말이 단순히 예의바름을 넘어 가슴에서 우러나온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는가? 실제로 무신론자들이 늘 지적하는 것처럼, 인류 역사상 종교의 차이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보다 더 엄청난 유혈 참사를 불러온 갈등은 거의 없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들은 평화가 전혀 없는데, 평화다, 평화다 하며 백성들을 미혹한다” 고 한숨지었던 것도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 전쟁이 없는 상태로서의 평화

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국가의 안전과 안정, 법과 질서라는 의미로 이해한다. 이것은 교육, 문화, 공적인 의무, 부유함과 건강, 안락함과 평온함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 기초한 평화를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누릴 수 있을까? 만약 행복한 삶이란 것이 소수의 특권층이 무제한으로 선택하고 과다하게 소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또 다른 수백만의 사람들에게는 중노동과 혹독한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될 뿐이다. 과연 이것을 평화라 할 수 있는가?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나의 할아버지 에버하르트 아놀드 Eberhard Arnold는 다음과 같이 썼다.

“전쟁 반대로 충분인가? 나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 히틀러의 새로운 정부 아래에서 천여 명이 넘는 사람이 재판도 없이 부당하게 죽임을 당해왔다면, 그것은 이미 전쟁이 아닌가? 수십만 명이 강제 수용소에서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 박탈당한다면, 그것이 전쟁 아닌가? 아시아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갈 때 북아메리카와 다른 곳에서 수백만 톤의 밀이 비축되어 있다면, 그것은 전쟁이 아닌가? 수많은 여성이 돈을 벌기 위해 몸을 팔고 자신의 인생을 파멸시키며 수백만의

어린 생명이 낙태되는 상황은 전쟁 상황이 아닌가?

서민들이 노예처럼 일해야만 자녀에게 먹일 우유와 빵을 힘겹게 구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전쟁과 같지 않은가? 가난한 가족은 단칸방에서 살아야 하는데 부유한 사람들은 공원으로 둘러싸인 호화 저택에서 살고 있다면, 그러한 현실은 전쟁과 같지 않은가? 기본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엄청난 은행 예금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전쟁과 같은 상황이 아닌가? 매년 교통사고로 수천 명이 죽어간다면, 이 또한 전쟁과 같지 않은가?

나는 더 이상의 전쟁은 없을 거라고 장담하는 반전주의를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전쟁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왔다. 나는 전쟁의 뿌리인 사적 소유와 자본주의를 손에 쥔 채로 입으로만 떠드는 반전주의에 동의할 수 없다. 나는 경쟁자들을 쓰러뜨리는 사업가들과, 심지어 아내와도 평화와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지내는 남편들의 반전주의를 신뢰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반전주의’ 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다. 그러나 나는 평화의 옹호자이다. 예수는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나는 평화를 삶의 총체적 영역 속에서 이야기해야만 한다.”

평화가 정치 용어로 사용되면, 평화는 거래 협정과

타협 그리고 조약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한 조약은 보통 긴박한 환경 속에서 타협으로 이루어진, 깨지기 쉬운 힘의 균형일 뿐이다. 또한 해결하고자 하는 갈등보다 더 악화된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제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한 베르사유 조약은 국수주의를 부추겨 제2차 세계대전을 야기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한 알타 회담은 냉전으로 이어지는 갈등의 연료가 되었다.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증오가 사라지리라는 보장은 없다. 평화가 전쟁에 대한 해답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인정한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평화인가?

랍비 케네스 코헨 Kenneth L. Cohen은 이렇게 쓰고 있다.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평화는 단지 적대감이 중지된 상태만은 아니다. 조약이 체결되고 대사가 교환되고 군인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아직 평화가 이루어진 건 아니다. 평화는 형이상학적이고 우주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보다 더 나은 무엇이다. 사실 평화는 그 어떤 것의 부재라기보다는 있을 수 있는 것을 궁극적으로 긍정하는 것이다.”



## 성서 속의 평화

평화가 지닌 더욱 깊은 의미를 탐구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성서에서 말하는 평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구약 성서에 평화를 나타내는 히브리 단어 ‘shalom(shalom)’ 보다 풍부한 뜻을 담은 개념도 아마 없을 것이다. 이 단어는 그것이 함축하는 내용의 깊이와 넓이 때문에 번역하기가 어렵다. shalom을 완전함이나 건전함 또는 온전함으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나 shalom은 단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다. shalom은 일반적으로 영어 단어 ‘Peace’ 에서 떠올릴 수 있는 의미들을 훨씬 뛰어넘는다.

shalom은 전쟁과 갈등의 끝남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은 또 우정, 만족, 안전, 건강, 번영, 풍요, 평안, 자연과의 조화, 나아가 구원까지도 뜻한다. 게다가 shalom은 이러한 것들이 단지 소수의 선택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의미한다. shalom은 궁극적으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며 선물이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의 상태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 국가, 그리고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더 나아가 shalom은 정의正義와 직접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왜냐하면 shalom은 정의롭게 이루

어지는 인간 관계로 인한 기쁨이자 축하이기 때문이다.

하워드 괴링거Howard Goeringer는 《그는 우리의 평화다He Is Our Peace》라는 책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샬롬의 더욱 근본적인 의미를 설명한다.

“기원전 600년에 바빌로니아 군대가 유대를 침략했고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인질로 잡아갔다. 예레미야가 바빌론에 잡혀 있는 인질들에게 다음과 같이 범상치 않은 글을 썼던 시기는 이처럼 상황이 매우 어려운 때였다. ‘내가 너희를 유배 보낸 그 도시의 평화를 구하라. 그리고 그 도시의 안녕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대들은 그 도시(바빌론)의 평화 속에서 그대들의 평화를 찾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질들은 자신들의 유대 문화가 붕괴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유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정복자를 경멸하며, 고향으로의 귀환을 간절히 원했고, 자신들을 구하는 데 실패한 하느님을 원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 하느님에 미친 사람은 ‘샬롬’이란 말로 그들에게 정복자를 사랑하고 자신의 원수에게 선을 행하라고, 그들의 박해자를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께 청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의 편지는 대중적이지도 않았고 베스트셀러도 아니었다. 고통당하고 있는 인질들은 자신들의 안녕과 정복자들의 안녕이

얼마나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친절함으로 정복자를 섬기고, 아픈 사람을 돌보며, 자녀에게 유대인의 놀이를 가르치고, 나머지 시간엔 정복자를 위해 일할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건 정말이지 어리석은 짓이었다.”

괴링거의 지적은 옳다. 종종 하느님의 평화는 속세의 현명한 사람들뿐 아니라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의 눈에도 전혀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평화는 신약 성서에서도 중심이 되는 주제이다. 평화를 뜻하는 단어인 그리스 어 ‘에이레네eirene’는 신약 성서에서 매우 자주 사용된다. 성서적 맥락에서 에이레네는 그리스 어에서 그 전형적인 뜻인 ‘휴식’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다. 그것은 살롬이 지닌 다양한 함축들을 많이 담고 있다. 신약 성서에서 메시아 예수는 하느님의 평화의 상징이자 도구이며, 하느님의 평화를 품고 있는 존재이다. 사실 바울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라고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화해를 이룬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가르침이 평화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이유이다. 예수의 가르침은, 만물이 올바르게 되는 하느님의 통치가 다가오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다.

## 사회적 대의로서의 평화

세상에는 가치 있는 대의大義를 위해 투쟁하는 활동가들이 많이 있다. 환경 운동가, 노숙자를 위해 일하는 사람, 반전 운동가, 사회 정의를 위한 활동가, 구타당하는 여성과 억압받는 소수를 위해 싸우는 사람, 그 밖의 많은 유형의 활동가가 있다.

1960년대에 종교 공동체에 있던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마틴 루터 킹과 함께 행진했다. 1990년대인 지금은 많은 사람이 사형 제도 폐지를 위한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넓은 의미에서 미국 사법체계의 부정의에 대한 투쟁이라 할 사형제 폐지 운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우리는 지역에서 또 전 세계에서 법과 질서를 통한 정치가 평화보다는 폭력이나 공포와 더 많은 관계가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이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몇몇 남녀는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 가장 헌신적인 사람들이었다. 나는 잠시라도 그들의 업적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의 삶에 상처를 남기는 분열과 서로 간의 싸움으로 귀결되는 불화 또한, 고통스럽게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른바 ‘평화광狂’ 들이 많았던 1960년대를 돌아 보면 몇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평화에게 기회를give peace a chance” 이라며 수없이 노래했던 비틀즈 밴드의 간절한 바람은 평가절하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느끼기에 그것은 진정으로 영혼에서 우리나라오는 소리였다. 오늘날 절대 다수를 이루는 청춘남녀들과 다르게 1970, 80년대의 많은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희망과 꿈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력했다. 행진을 하고, 행사를 열고, 공동체를 구성하고, 시민 불복종 행위를 감행했다. 또 연좌시위, 항거, 공동체 지원 계획 등을 조직했다.

하지만 그 시대에 평화를 가장 크게 부르짖던 몇몇 사람의 얼굴을 뒤틀리게 한 분노를 잊기란 쉽지 않다. 또 그 후 전 시대를 뒤덮은 무정부적 경향과 냉소주의를 기억하게 된다. 이상주의가 소진되면, 집회가 끝나면, 사랑의 여름이 지나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평화로운 공동체가 깨지고 사랑하는 관계가 붕괴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평화는 단지 티셔츠에 붙여진 문구나 자동차 범퍼 스티커에 인쇄된 또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전략하고 마는가?

‘가톨릭 노동자회Catholic Worker’ 를 창설한 전설적인 급진주의자 도로시 데이Dorothy Day는 《오랜 동안의 고독The Long Loneliness》이라는 책에서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청년들의 갈망은 다른 무엇보다도 허무주의와 이기주의와 관계가 깊다고 지적한다. 그녀는 젊은 이들이 변화를 이상화하지만, 그들 스스로가 변화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려 들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다시 랍비 코헨의 글을 인용한다. “한 개인이 평화를 위해 행진을 하거나 투표를 할 수 있고, 어찌면 전 세계적 관심사에 약간의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똑같은 작은 개인이 집에 있는 어린아이의 눈에는 거인으로 보인다.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어야 한다.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듯이 평화는 그렇게 이루어진다.”

## 개인 삶에서의 평화

실비아 빌스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 젊은 여인의 몸으로 런던에서부터 우리 공동체를 찾아왔다. 이제 그녀는 아흔 살이 넘었다. 젊은 시절 그녀는, 살인에는 반대하면서도 사회의 부정의에는 반대하지 않는 것이 평화 운동의 대세인 데 만족하지 못했다. 그래서 더욱 진전된 어떤 것을 찾고 싶어했다.

“아홉 살 때 나는 전쟁 영화를 보고 소름이 끼친 적

이 있다. 그 후로 아무리 명분이 좋을지라도 전쟁은 결코 선한 것으로 볼 수 없었다. 결혼 뒤, 나와 남편 레이몬드는 좌익 서적 독서 모임에 참여해서 온갖 책을 섭렵했다. 우리는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토론을 벌였다. 전쟁, 평화, 정치학, 자유 연애 등에 관한 사상의 미로들을 헤치면서 길을 찾고 또 찾았다. 그러나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찾는 데에는 전혀 가까이 가지 못했다.”

그 후 실비아는 첫째 아이를 힘들게 낳으면서 자신의 개인사도 자신이 사회에서 싸우고 있는 것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음악 분야에서 전도가 유망했지만, 결혼 생활은 비틀거렸고,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그녀는 세상의 평화에 무언가를 기여할 수 있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 안에서, 그리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실비아의 남편은 이 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심장병으로 죽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가 임종할 때 화해할 수 있었다.)

또 다른 공동체 식구인 모린 번은 오랫동안의 반전 활동 후에 똑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그녀는 처음에는 에든버러에서, 다음에는 버밍엄에서 활동했으며, 재력과 사회적 관계, 그리고 열정적인 성격으로 꽤나 알려진 유능한 평화주의자였다.

“나는 이상주의자였고 반꼴이었다. 어린아이였음

에도 불구하고 제1차 세계대전을 염려했다. 우리는 독일 황제가 전쟁을 일으켰다고 들었다. 그래서 나는 열 살 때 그에게 제발 전쟁을 그만두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썼다. 나는 늘 전쟁에 반대했다. 유명한 공중 위생 책임자였던 남편 매튜 또한 평화주의자였다. 제1차 세계대전의 전장을 직접 경험한 뒤 그는 열렬한 반군국주의자가 되었고, 사회 정의를 위한 투사로 변모했다. 우리는 1918년의 러시아 혁명과 톨스토이의 작품, 그리고 간디의 운동에 관심을 가지면서 유대감을 형성했고 결혼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 폭격이 가해졌고, 많은 영국 시민들이 자녀들을 피신시키기 시작했다. 모린도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막내를 포함해 네 아들을 피신시킬 장소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다. 바로 그 시기에 모린은 다섯째 아이를 임신했다는 걸 알았다. 이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그녀와 매튜는 낙태를 결심했다.

“낙태 후 집에 돌아오자, 남편은 내게 언니인 캐슬린한테 가서 며칠 쉬었다 오라고 했다. 캐슬린은 브루더호프 공동체에 살고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그들이 쓴 책 몇 권을 읽었다. 책의 제목은 기억나지 않는다. 제목이야 어쨌건, 내가 읽은 책에는 낙태가 살인이라고 분명하게 써어 있었다. 자궁에 있는 새 생명을 죽이는 것은,



하느님의 눈에는 전쟁에서 일어나는 살인만큼이나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나는 합리주의자였고, 낙태와 관련한 끔찍한 어떤 것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고, 처음으로 나의 행동에 공포를 느꼈다.

나는 쉽게 울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울고 또 울었다. 내가 한 행위를 깊이 후회했다.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돌리고 싶었다. 나는 공동체의 방문객에 불과했다. 그러나 언니는 나를 목회자 한 사람에게 데려갔고,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냈다. 공동체 식구 모임에서 나를 위한 기도가 들려졌다. 그 즉시 나는 내가 용서받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기적이고 은총이었다. 나는 기쁨과 평화로 충만했으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다.”

삶 속에, 혹은 우리 가슴속에 있는 평화롭지 못함을 인식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참으로 중요하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거짓, 분열, 혼란일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단순한 공허감이나 좌절일 수도 있다. 깊은 의미에서 그것은 모두 폭력이며, 따라서 그것을 직면해서 극복해야만 한다.

토마스 머튼 Thomas Merton(1915-1968, 미국의 저명한 가톨릭 저술가이자 시인으로, 동양 사상과 선에 조예가 깊었다.—옮긴이)은 이렇게 지적한다.

“매우 빠르게 변져가는 현대의 폭력이 있다.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위해 싸우는 이상주의자들이 쉽게 굴복하게 되는 폭력으로, 바로 행동주의와 과로이다. 현대 생활이 수반하는 바쁨과 압력은 현 시대의 선천적인 폭력의 한 형태이자 아마도 가장 일반적인 형태일 것이다. 이해 관계가 대립하는 군중들 속에 휩쓸려가도록 방치하는 것, 너무 많은 요구에 굴복하는 것, 너무 많은 일에 헌신하는 것,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돕기를 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폭력에 굴복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폭력에 협조하는 것이다. 활동가들이 격분하게 되면 평화를 위한 자신들의 활동을 무력화하게 된다. 또 그들의 활동이 풍요로운 결실도 맺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격분은 그들의 활동을 열매 맺게 하는 내적 지혜의 뿌리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평화 운동에 참여하라는 소명을 느낀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자신이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평화를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돌아서고 만다. 자신의 삶 속에서 조화로움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곧 진퇴유곡에 빠져버린다. 가장 비극적인 상황은 너무나 심각한 환멸을 겪고는 자살하는 경우이다. 1960년대 유명한 평화 운동가였던 포크 가수 필 오크스와 창조적 비폭력 센터the Center for Creative Nonviolence의 창립자이며 워싱턴의 노숙자

운동으로 존경받은 미치 스나이더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 하느님의 평화

참된 평화는 단순히 선한 의도로 시작되고 추구되는 고상한 대의가 아니다. 또 그것은 간단하게 이루어지거나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평화는 투쟁을 요구한다. 평화는 생명 대 죽음, 선 대 악, 진실 대 거짓이라는 삶의 근본적인 전투들을 치를 때 발견된다. 그렇다, 평화는 선물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 가장 치열한 분투의 결과이기도 하다. 실제로 〈시편〉에 있는 몇몇 구절은 바로 평화를 위한 분투의 과정에서 평화가 발견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한 평화는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직면하고 극복해서 나온 결과이다. 참된 평화는 의로움에 근거한다. 따라서 하느님의 평화인 참된 평화는 거짓 관계를 무너뜨리고, 부정한 제도를 교란시키며, 가짜 평화를 약속하는 거짓말을 폭로한다. 그것은 반평화의 씨앗을 근절시켜 버린다.

하느님의 평화가 내적 평온, 갈등의 부재, 또는 평화에 대한 세속적인 잣대를 자동으로 포함하는 것은 아니

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의 온전한 평화가 확립된 것은 정확하게 세상과 세상의 평화에 대한 그의 거부에 의해서였다. 그리고 이 평화는 그리스도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자기 희생인 십자가 위의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뿌리 내리게 되었다.

오늘날 자칭 그리스도인 가운데 많은 사람이, 비록 의도적으로 외면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을 잊고 지내왔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자신의 기준에서 평화를 원한다. 우리는 손쉬운 평화를 원한다. 그러나 평화가 참된 무엇이 머무르는 것이라면, 평화는 빠르고 손쉽게 올 수는 없다. 그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안녕이나 균형,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이면 없어지는 즐거운 느낌을 뜻하는 것일 수 없다. 하느님의 평화는 의식의 상태 그 이상의 것이다. 도로시 세이어Dorothy Sayers는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그리스도교를 불편한 것이 전혀 없는 대중적이고 매력적인 무엇으로 묘사하는 것은 대단히 큰 실수라고 믿는다. 우리는 온유한 예수가 자신의 주장에 있어서 매우 강경하고 말은 매우 선동적이어서, 기존 종교 조직으로부터 버림받고 돌에 맞았으며 이리저리 쫓겨 다니다 마침내 대중을 선동하는 위험 인물로서 교수형에 처해졌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다. 그의 평화가 무엇이었던 간에, 그것은 호감을 주는 평범한 평화는 아

니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의 평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독교인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예수는 인격이다. 신학의 개념이나 글이 아니다. 그리고 그의 진리는 우리의 제한된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수백만의 불자와 무슬림, 유대인, 그리고 불가지론자와 무신론자가, 이른바 기독교인보다 더 깊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가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예수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

## 이해를 넘어서는 평화

사람들이 평화를 찾고 있다고 말할 때의 평화는 무엇일까?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바라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신뢰와 사랑을 열망하고 있는 것인가? 또는 일에서 손을 떼고 조용히 물러나 있는 것 이상의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전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해, 평화는 무엇인가? 나의 할아버지가 어느 책에서 피력한 생각이 내게 도움이 된다. 할아버지는 삼중의 평화에 대해서 언급했다. 하느

님과 관계에서 얻는 영혼의 내적 평화, 사람들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통한 비폭력의 실현, 그리고 의롭고 평화로운 사회 질서의 확립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완벽한 정의가 중요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의가 평화를 발견하도록 돕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평화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단지 머릿속이나 가슴속에 있는 어떤 것으로서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 있는 쓸모 있는 실재로서 경험해야 한다. 20세기 초에 살았던 인도의 그리스도교 신비가인 성자 선다 싱 Sundar Singh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느님 품에서 경험하는 지복至福의 삶의 신비와 실재는 그것을 받고, 살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단지 지성으로만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어떤 과학자가 자기 손에 새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새가 생명이 있음을 보고, 새의 몸 어떤 부분에 생명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새를 해부했다. 결과는 그가 찾고자 했던 바로 그 생명이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내적 생명의 신비를 지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찾고자 하는 생명은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라져버릴 것이다. 물이 바다에 이를 때까지 쉬지 못하는 것처럼, 영혼도 하느님 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

# 제3부

## 역설

“나는 그리스도의 병사다.  
그래서 싸울 수 없다.”

-투르의 성 마틴  
*St. Martin of Tours*

## 역설

평화에 대한 열망이 깊고 보편적이지만 그것을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영靈에 대한 대부분의 것들도 역시 규정하기가 어렵다. 나의 좋은 친구이자 팔레스타인 성직자인 엘리아스 차코르Elias Chacour는 《의형제들 Blood Brothers》에서 이에 대해 말하고 있다. 동양의 위대한 종교들을 언급하면서, 그는 서양 문화의 많은 사상가와는 대조적으로 동양의 현인들은 역설에 대해 느긋하며, 그것을 버리기보다는 기꺼이 수용하고 더붙어 지내려 한다고 말한다.

복음서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예수가 심오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주 역설과 비유를 사용했는지 알 것이다. 합리적인 이성의 눈으로 보면 역설은 모순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는 역설 안에 들어 있는 진리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 3부에 실린 이야기들은 이런 의미에서 쓴 것들이다. 각각의 이야기들은 평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이다.



## 평화가 아니라 칼을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은 아버지와 맞서고 딸은 어머니와,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서로 맞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자기 원수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나사렛 예수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 10장에 이와 같은 예수의 말을 기록함으로써 기독교인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옹호할 수 있는가?” 라는 단골 논쟁거리를 제공했다. 그러나 예수는 진정 무엇을 의미했는가? 분명히 그는 무장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장려하려고 이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수는 성전에서 채찍으로 환전상을 몰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예수는 그 후에 어떤 병사의 귀를 자르는 베드로에게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예수의 행위들은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는 그의 말에 반영되어 있다.

나는 예수가 언급한 칼이 어떤 전쟁 무기와의 관련이 없음을 믿는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정부 당국의 칼과 비교되는 성령의 칼에 대해 읽을 수 있는데, 그것은 세속의 칼이나 하느님의 진노의 칼 등 다양하게 불린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서 성령을 거두어들였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 대신에 하느님은 사람들에게 세속 정부의 칼을 주었다. 세속 정부의 안정성과 권위는 군사적 힘에 근거한다. 그러나 교회는 물리적 무기를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하나의 힘, 그리스도에게 충성한 채로 남아 있어야 한다. 예수의 참된 추종자들은 오직 성령의 칼만을 사용한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칼은 진리의 상징으로 사용된다. 물질적인 병기와 마찬가지로, 이 칼은 우리를 죄악에 얽매이게 하는 모든 것을 잘라내는 것으로 표현된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칼이 “관절과 골수를 쪼갬다”고 표현했다. 이 칼은 정화하고 노출시킨다. 그러나 그것의 목적은 파괴나 죽임이 아니다.

브루더호프의 시인인 필립 브리츠의 말을 인용하자면, 평화는 “사랑과 대속代贖의 무기이며, 세속적인 무기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려는 무기이다.” 그 전쟁은 인간들 상호간의 싸움이 아니라 “파괴자에 대한 창조주의 싸움이며, 죽음 충동에 대한 생명 의지의 전쟁이고,

중요에 대항한 사랑의 전쟁이며, 분리에 대한 통일의 전쟁이다.”

복음서에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빼앗으려 한다” 는 말씀이 있다.(〈마태복음〉 11: 12) 이것은 예수의 매우 신비로운 말씀 중의 하나이지만, ‘폭행을 쓰는 사람들’ 이라는 말의 뜻은 단순 명쾌하다. 우리는 그저 앉아서 하늘나라가, 하느님의 평화 통치가 우리 무릎에 떨어지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것을 열정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토마스 카힐 Thomas Cahill이 지적한 것처럼 “열정적인 사람, 통 큰 사람, 자유분방한 사람들이 억제하는 사람, 계산적인 사람, 세상이 승인하는 사람보다 하늘나라를 더 잘 포착한다.”

흥미롭게도 평화의 길을 그리면서 폭력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기독교 쪽만이 아니다. 이슬람 자료를 보면 ‘지하드’ 라는 말은 이슬람의 성전聖戰을 의미할 뿐 아니라 우리들 각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투를 뜻하기도 한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은 영적 전쟁이라는 생각을 떨쳐 잊게 여긴다. 한편으로 그들은 이 생각이 상상의 산물이라고 여긴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가 너무 대결적이고 도전적이며, 구시대적이라고

느낀다. 그렇지만 하느님의 천사와 악마 사이에 벌어지는 우주적 싸움은, 비록 그 실체에 대한 믿음이 쇠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왜 그것을 단지 보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추상이라고 추정해야만 하는가?

나는 선과 악의 보이지 않는 힘은 우주를 이루는 물리적 힘만큼이나 매우 실제적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들을 분별할 수 없게 된다면 그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전투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빛이 어둠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선과 악도 함께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만 한다.

약 25년 전쯤 브루더호프 공동체의 장로이던 나의 아버지(J. 하인리히 아놀드)가 문서 하나를 작성했다. 우리 공동체는 여러 해 동안 그 문서에 의지해 왔다. 이 ‘서약’은 처음 그것이 씌었을 때 공동체의 모든 성원이 서명했고, 지금도 여전히 새로 들어오는 모든 성원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가 대결하고 있는 특별한 문제들의 뿌리에 초점을 더 분명히 맞추는 데 우리는 이 서약에서 도움을 받기도 한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예수의 영에 대항하는 모든 불경不敬에 맞서 전쟁을 선언한다.

우리는 어린이들에 대한 모든 감정적 또는 육체적 잔인함에 맞서 전쟁을 선언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려는 의도에 맞서 전쟁을 선언한다.

우리는 모든 인간의 교만함과 모든 형태의 허영에 맞서 전쟁을 선언한다.

우리는 집단적 자만을 포함한 거짓된 교만에 맞서 전쟁을 선언한다.

우리는 불관용과 시기, 증오의 영에 맞서 전쟁을 선언한다.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인간에 대한 잔인함에 맞서 전쟁을 선언한다.

우리는 마술적이고 악마적인 어둠에 대한 모든 호기심에 맞서 전쟁을 선언한다.

악과 전쟁을 별인다고 할 때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이 전쟁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라는 대립적인 진영 사이의 전쟁으로 받아들여, 인간의 차원에서 싸워야만 하는 어떤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악마와 세계에 대비되는 하느님과 교회에 대해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의 모습은 선과 악을 나누는 경계선이 사람의 가슴속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우리는 도대체 누

구인가?

간디는 “그대가 부정의와 폭정, 부패와 탐욕을 증오한다면, 먼저 그대 자신 안에 있는 이와 같은 것을 미워하라” 고 충고했다. 우리는 각각 자신 주위에 어떤 분위기를 창조한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때때로 잠시 멈추어 서서 지금의 분위기가 두려운 분위기인지 아니면 두려움을 넘어서는 사랑의 분위기인지를 자문해 보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자. 우리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과 싸움을 하는 것이 그럴싸해 보인다. 우리는 이 세계와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느낄지라도, 자신에 대해서는 의로운(비록 스스로 의롭지는 않더라도) 열성으로 충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새로운 삶을 위해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기거나 그들의 영혼을 탐색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앞서서 이 일을 먼저 끝내야 한다. 이 전투는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부터 진행되어야 한다.

동료 목사인 글렌 스윙어는 이 점에 대하여 최근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왔다.

“나는 회심回心을 하고서 40대 중반에 세례를 받았다. 나는 기억나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다른 이들과의 잘못된 관계를 말끔히 풀며, 얼마나 깊이 하느님에게 대항했었는지 깨닫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용서를 느꼈고, 이로 인해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나에

게 세례를 베푸는 당신의 아버지는 ‘이제부터 진정한 싸움이 시작된다’ 고 말했다. 당시 이 말을 진정으로 이해했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나는 자신에게 방심하지 말자고 다짐했다.

그러나 나는 아주 조금씩 옛날의 생활로 되돌아가고, 서서히 교만과 시기와 질투의 미세한 악령들이 삶속으로 다시 들어왔다. 회심을 통해 내가 분명히 변화되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아를 정복하지는 못했다. 나는 여전히 너무도 크게 나의 내적 경험의 중심으로 남아 있었다. 내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유혹이 내 영혼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찰과 기도’ 를 하지 않았다. 결국 나를 그리스도로 이끌었던 첫사랑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이윽고 나의 위선이 드러났고, 심판의 고통을 체험하였다. 목사와 교사의 직무를 그만두도록 요구받았으며, 넉 달 동안 브루더호프 공동체를 떠나 있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나는 나의 죄를 분명히 직면할 수 있었으며 회개했다. 다시 돌아와서 떨어져 있어야 했던 공동체 형제자매들의 용서를 받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나는 새로운 자유와 사랑, 그리고 평화를 발견했다.

투쟁은 여전히 매일매일 찾아온다. 그러나 요즈음 몇 년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의미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 즉 모든 다른 것들이 말해지고 행해진 이후에,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이 있게 될 것이며,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말이다. 나는 그 사람의 사정이 어떻든지, 다른 이들을 판단하거나 멸시할 수 없다. 그 부자는 자신과 나사로 사이에 깊게 갈라진 틈을 만들었고, 내세에서 그들의 지위가 역전되었다.(〈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웁긴이) 우리들 각자 안에는 악과 선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힘이 작동하고 있다. 우리는 선과 악 사이의 싸움 속에서 정죄당하고 거듭해서 용서받는다.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 진행 중에 있는 투쟁 가운데서이다.”

글렌의 성찰은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는 역설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그리스도의 칼은 그의 진리이다. 우리는 죄가 삶 가운데 갑작스레 나타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칼로 깊게 그리고 반복해서 베어내야만 한다. 우리 자신을 견고하게 한다는 것,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에 다가서게 하는 것이다.



## 사랑의 맹위

진정한 평화가 싸움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단지 비유적인 의미만이 아닌 실제적인 피를 또한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한다면 기꺼이 그 고통을 받으라고 분명하게 요구한다. 신약 성서가 증언하는 것처럼, 그 자신은 “그의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주었다.” 그리고 그 후 수세기에 걸쳐서 수천의 남녀들이 그의 모범을 따랐고, 자신의 믿음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바쳤다. 자신의 확신을 위해 죽어간다는 것은 그 의미를 설명하기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이다. 우리는 화형이나 익사, 심지어 능지처참을 당하는 잔혹한 장면을 연상하면서 두려움에 떨다. 그러나 목격자들은 순교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놀랄 만한 평화를 보여주었음을 계속해서 기록해 왔다. 수많은 순교 이야기를 담은 종교 개혁 시대의 역사서 《후터 형제단의 연대기 The Chronicle of the Hutterian Brethren》를 보면, 기쁘게 노래 부르며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 중 한 사람인 콘라드라는 청년은 사형당하기 직전까지도 얼마나 확고하고 고요한 모습을 보였는지, 목격자들이 다시는 그

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들을 몹시 불편하게 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순교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최후처럼 보인다. 우리는 구두로라도 믿음을 변호하도록 요구받는 일이 거의 없다. 그러므로 믿음을 위해 육체적인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생각은 지나치게 극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순교는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깊이 생각하게 한다. 또 순교는 그와 같은 일을 감수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누구나 일상 생활의 어려움 앞에서는 침착할 수 있을 만큼의 자제력은 지니고 있다. 그러나 치열한 투쟁이나 심지어 죽음에 직면해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으면, 선한 의도 이상의 무언가에 닿아 있어야 한다.

엘살바도르의 대주교였던 오스카 로메로Oscar Romero는 죽기 직전에 ‘사랑의 맹위violence of love’ 를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면서 이 평화의 비밀을 언급했다. 로메로는 가난한 자를 위하는 일을 앞장서서 해오다가 1980년에 암살되었다.

“그리스도는 사랑의 맹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잔인한 불공평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랑의 맹위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만 한다. 그것은 겁이나 증오의 폭력이 아니다. 형

제애의 맹위이며, 평화를 위해 무기를 쳐서 낮으로 만드는 맹위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진리와 거룩함을 지향하는 힘이다. 또 바로 이 본성 때문에 진리를 거스르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공격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설파하는 사랑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대중적인 뉴에이지 작가인 마리엔 윌리엄슨 Marianne Williamson은, 평화를 찾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만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뿐이라고 제안한다.

우리가 그녀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문제를 다루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골고다에서 힘들게 얻어진 평화보다는 현대 교회의 따뜻하고 우호적인 종교성을 더 좋아하고 베들레헴에서 천사들이 약속한 호의好意를 더 좋아한다. 우리는 예수가 죽을 때 보여준 순명順命의 모습—“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을 찬양한다. 그러나 바로 전날의 길고도 외로운 밤에 갯세마네에서, 순명의 길을 찾기 위한 예수의 괴로운 투쟁은 쉬 잊어버린다. 우리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을 선호한다.

우리는 우리의 단점과 갈등을 의식할 때조차도 종종

사랑의 맹위에 저항한다. 우리는 참되고 영속적인 평화를 추구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무언가를 대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내 곧 불만을 터트린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한 청년이 언젠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저는 평화를 찾기 위해 분투에 분투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 자신에게 ‘너는 왜 자신을 이런 고통 속에 내던지고 있는가? 진정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 질문에 대해 자연스럽게 답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돌아보건대, 나는 그에게 이렇게 되물을 수 있었을 것이다. 만일 그것이 싸울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그대에게 가치 있는 평화는 무엇인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자신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굳게 확신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평화를 발견하는 데 가장 근접해 있다. 로버트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교도소에서 ‘삶을 살아가는’ 기결수이다. 그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인한 고통스런 기억 때문에 또 다른 날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때가 많았다. 그러나 다른 때는 참회를 통해 평화의 느낌을 누리기도 한다. 최근 편지에 그는 이렇게 썼다.

“당신은 내가 하느님의 평화에 대해 무언가 쓸 수

없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도 뭔가 적어보고 싶었지만, 그럴 만한 자격이 내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는 건 나의 전 생애 동안 당신이 이야기하는 평화를 회피해 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동안 여러 방법으로 평화를 찾고자 했습니다. 여자와 나의 할머니, 일에 대한 성취, 마약, 때로는 폭력과 증오, 섹스와 결혼, 아이들, 그리고 돈과 재산을 통해서 평화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중 어떤 것에서도 평화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평화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평화가 어떤 것인지, 어떤 느낌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평화는 숨 쉴 수 있고, 편히 휴식할 수 있는 어떤 것입니다. 지나온 삶 속에서 나는 숨이 막히고 혼란스러웠으며, 그래서 숨 쉬고 편히 휴식할 수 있기 위해 끊임없는 갈등 속에 지내왔습니다.

나는 그러한 평화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침내 나는 이러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를 통한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평화는 나를 비껴가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가 저지른 범죄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 때문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미안하지만 평화에 대한 글을 쓸 수 없습니다.

나는 철과 콘크리트로 된 인간의 감옥과 죄악으로

된 사탄의 감옥을 넘어서는 제2의 기회가 내 인생에 주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이것을 가져다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나는 믿음과 희망을 유지해 왔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과거의 모든 고통과 불안, 갈등 끝에 마침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나에게도 그러한 평화가 주어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사람됨과 지나온 나의 행적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하여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로버트의 편지는 절망적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그리고 그를 만나본 다른 사람들도) 3년 전 그가 체포된 뒤로 그에게 뭔가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었다. 물론 그가 마침내 평화를 찾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로버트는 그것을 갈망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진정한 참회라는 고통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대다수보다도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있을 수도 있다.

고대 힌두교 경전인 《바가바드 기타 Bhagavad Gita》에 평화에 관한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살인자나 강간범 그리고 극악무도한 광신자도 비록 단호하지만 치유의 힘을 지닌 은총에 행복하기만 하면, 사랑의 힘을 통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

은 몹시도 고통스러운 변화의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자유를 찾고 그들의 영혼 가운데 있는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신약 성서의 〈히브리서〉 에도 이런 내용이 있다.

“무슨 견책이든지 그 순간에는 즐겁기보다는 오히려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책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은 마침내 평화의 열매를 맺어 올바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로버트는 이 두 경전의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럼에도 그는 분투하면서, 경전에 담겨 있는 진리를 경험하고 있다. 그는 사랑의 맹위를 살고 있는 것이다.

## 죽음으로써 누리는 생명

나는 이 책을 쓰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에 있는 예수의 두 가지 말씀을 통해 평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는 말씀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다.

갈등 없이는 평화가 지속되지 않는 것처럼, 죽음 없이는 참된 생명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죽음에 직면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예수의 평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고난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있다. 기꺼이 고난받으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고난은 경험해 봐야만 한다. 언젠가 내 아버지가 지적한 것처럼, “신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을 조금이라도 경험하는 것이 내면의 삶에 있어 결정적이다.”

우리는 대부분 신에게 버림받은 듯한 경우를 평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본다. 그것은 기쁨이 아닌 고통, 행복이 아닌 불행, 자기 보존이 아닌 자기 희생이며, 외로움, 부정, 자기 소외,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에서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뛰어난 유대인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Viktor Frankl이 지적한 바처럼, “고난은 인생이라는 팔레트에서 지워질 수 없다. 고난이 없으면 인간의 삶은 완전해질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진리를 회피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인생을 보낸다. 그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영혼 중 하나이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이 진리



를 받아들임으로써 평화와 성취를 발견한다.

1996년 캘커타에 있는 자비의 선교회Missionaries of Charity(마더 테레사가 창립한 수도 단체로 기도와 가난한 이들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웁킨이)에서 지낸 미국인 메리 포플린Mary Popli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비의 선교회원들은 시련과 모욕을 자기 성찰의 시간으로 본다. 겸손과 인내를 기르고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한층 성스러워질 수 있는 기회로 본다. 질병조차도 종종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로, 하느님이 자신을 더 분명하게 나타내는 방편으로, 그리고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문제를 더 심오하게 분별할 수 있는 기회로 이해한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고통을 회피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데 쓴다. 그러나 막상 고통이 닥치면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른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는 더더욱 모른다. 우리는 고통과 맞서 싸우고 사람들과 사회 제도를 비난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려 애쓴다. 고통이 우리를 더욱 거룩해지도록 부르는 하느님의 선물일 수 있음을 성찰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미국인들은 자신의 고통에 책임을 지도록 격려받는 경우가 드물다. 이러한 상황에도 우리는 각자 적어도 고

통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자비의 선교회원들에게 있어 고통은 단순히 심리적인 경험이 아니라 영적인 만남이다. 이 만남을 통해 그들은 새로운 대응법을 배우고, 용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귀의하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게 되며, 고통이 그들 가운데 선한 일을 만들어냄을 기뻐하게 된다. 그것은 마침내 행동하도록 격려한다.”

필립 베리건 신부 같은 사람의 증언도 이런 점에서 중요하다. 그는 고통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영한 사람이다. 필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날의 대다수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다. 그에게 있어 제자도弟子道の 삶으로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소명은 연이은 투옥이라는 형태의 박해를 의미했다. 1960년대, 그와 그의 동생 다니엘은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다가 체포되었으며, 그 뒤로 총 11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1997년 가을 나는 메인 교도소로 그를 면회하러 갔다. 당시 그는 최근의 시민 불복종 행위 때문에 구금되어 있었다. 몇 주 뒤 그는 2년형을 선고받고, 아내인 엘리자베스 매컬리스트와 세 살 된 아이와 떨어져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필립과 엘리자베스 누구도 낙담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가 남편에게 쓴 감동적인 편지에는 이들이 이루려고 애쓰던 평화의 기본이 담겨 있다. 평화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모습은, 종종 그 정치적 함의 때문에 오해받고 비판받기도 했지만, 흔들리거나 굽힘없이 올곧게 지켜온 낙관주의와 믿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일흔세 살이나 된 당신이 정의와 평화를 위해 또 다시 감옥에 가야 하는 것은 결코 공정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재판정에서 단 한 번의 발언 기회도 없이 감옥행을 맞이해야 하는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서 수백만 명이 감옥에 갇혀 있고, 그들 중 많은 이가 고문당하고, 굶주리고, 실종되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기는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이루어온 가정을 즐길 수 없다는 사실, 즉 우리가 심은 장미가 꽃필 때 그 꽃을 감상하고, 가꿔 온 열매를 먹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며 자부심을 느낄 수 없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수백만의 사람들이 집이 없고, 그보다 많은 수의 전쟁 난민이 굶주리고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피곤함과 두려움으로 너무나 시달려서 주위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죽어가는 아이들 때문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져가고 희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프리다와 제리의 대학 졸업을 함께 축하할 수 없다는 것도 부당한 일입니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이룬 것과

자랑거리,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당신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이 새롭게 전개되는 이때에 당신의 지혜와 가슴, 당신의 존재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아이들에게 대학 교육이나 사랑스러운 가족, 돌봐주는 공동체란 꿈도 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들은 공교육이라 지칭되는 낱아빠진 제도의 희생자입니다. 그들은 이 위대한 사회가 그들에게 물려준 대책 없는 미래의 희생자입니다. 상황이 이러할데 우리가 다른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또 만들고자 했던 공동체에 당신이 없다는 것, 공동체의 기도와 작업과 꿈과 웃음 가운데 당신의 특별한 재능과 비전과 은총이 빠져 있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공동체건 의심과 위협을 받으며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될 때, 거의 완벽한 침묵이 조성될 때, 사람들이 위협당하고 매수당하고 분열되어 그들 자신을 파멸로 이끌 때, 우리가 다른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자베스나 필립 같은 사람들로부터 흘러나오는 평화와 목적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 사회에서는 제대로 평가받지도 이해받지도 못한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리스도의 역설적인 자유가 낳은 열매이다. 그리스도는 “누가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바치는 것이다. 나에게서 목숨을 바칠 권리도 있

고 다시 얻을 권리도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

필립에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등의 희생은 당연한 일이요, 평화로 가는 길에서 겪어야 하는 죽음의 일부분일 뿐이다. 그는 이 일에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평화를 얻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의 안목은 훨씬 원대하고 깊은 평화를 향하고 있다.

“내가 꿈꾸는 평화는 억압이 사라지고 부정의가 없어진 평화, 폭력이 과거의 유물이 되는 평화, 칼이 사라지고 보습이 늘어나는 평화이다. 또 모든 사람이 형제자매로 존경스럽고 고귀하게 받아들여지는 평화이고, 각각의 생명이 신성하게 여겨지는 평화이며, 어린이를 위한 미래가 존재하는 평화이다. 하느님께서서는 바로 그와 같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 나라에서 이것은 감옥에 가는 것, 명예와 직업, 수입을 잃는 것, 심지어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버림받는 것을 뜻한다. 그럼에도 매일 핵무기로 인한 대재앙에 대비해야 하는 이 범죄 상황에서, 참 평화를 위한 헌신은 진정으로 자유를, 다시 말해 자아와 소명에 대한 자각, 그리고 모든 생명이 친구와 가족으로 어우러지는 전적으로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자각을 의미한다. 실제로 그것은 부활을 의미한다.”

열매를 맺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죽음, 그것은 우리 대다수에게 아주 혼란한 일이다. 우리가 도스토예프

스키처럼 총살형을 당하는 상황에 맞닥뜨린다거나 베리건 형제와 같이 연방 재판관 앞에 서서 판결을 들어야 하는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상의 장애물들까지 피할 수는 없다. 교만을 극복하기,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에게 순종하기, 분노를 그냥 지나가게 하기, 가족이나 동료가 좌절하여 화를 낼 때 감내하기 같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을 실천하기로 선택하는 데는 어떤 영웅적인 요소도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씨앗이 묻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참된 평화를 발견할 수도, 참 평화를 다른 이에게 전할 수도 없을 것이다.

1950년대 후반부터 알아온 우리 교회 사람 로렐 아놀드의 말이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는 예수의 말씀을 생각하면, 이 구절이 장례식에서 아주 자주 언급되었음에도 나오는 상관없다고 여겼던 기억이 난다.

나는 외로운 환경에서 보호받으며 자라나 의롭고 경건하고 비판적인 여인이 되었다. 아마도 유명한 작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 같다. 대학에서도 우등생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인기 있는 학생이 되길 갈망했지만, 친구들한테는 그저 그런 동료였다. 평화에 대해서는 이상주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나

는 전형적인 백인 중산층이었으며, 사회적 부정의와 힘 위주의 정치에 무지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뉴욕 시에서 가르치는 일을 했고, 남편인 폴은 해군으로 참전했다. 전쟁이 끝난 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실제 모습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폴은 폭탄으로 처참하게 파괴된 유럽의 도시들을 목격했다. 나는 거리의 노숙자들에게 다가갔고, 한 번도 잔디에서 놀아본 적이 없는 아이들을 돌보게 되었다. 우리는 한 알코올 중독자 여인을 돕겠다는 생각에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녀는 식료품 살 돈을 훔쳐 도망가고 말았다.

우리는 다니던 교회의 선교부서에 지원, 아프리카에 파송되었다. 나중에 선교 분야를 떠나기는 했지만, 우리는 갈수록 교회 활동에 더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던 솔직담백한 인간 관계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엄청난 피상성과 사람들에게 대한 비방 때문이었다. 우리는 단지 일요일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다.

그 뒤 우리는 형제애라는 이상에 이끌리면서 전에는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삶의 문제와 영역, 즉 물질주의, 사유 재산, 전쟁의 원인에 대해 성찰하기 시작했다. 1960년에 우리는 브루더호프 공동체에 왔다. 집과 차

를 포기하고 물건을 공동체에 합치는 것은 쉬웠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재되어왔던 완고함, 일에 반응하는 원칙적인 방식, 자기를 의롭게 여기면서 내리는 판단, 두목 행세, 너무나 자신만만해서 상대방을 짓누르는 태도 등은 포기하기가 몹시 힘들었다. 오랫동안 나는 성령에 따르는 대신 규율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대항하였다. 또 진실함이나 정직함이 요구될 때 그저 착하게, 좋게 구는 것으로 저항했다.

물론 그 모든 세월 동안 이러한 투쟁만큼이나 많은 기쁨도 있었고 하느님의 신실하심도 있었다. 그리하여 판단하고 용서하며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인정하는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누구나 그러하듯이 나는 여전히 잘못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하느님의 판단 속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과 사랑을 발견하였다. 일흔네 살이지만 느슨하거나 안락해질 시간이 없다. 여전히 배우고 대응해야 할 것들이 아주 많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 가운데 자신이 하느님의 자녀임을 감사드린다. 나는 것처럼 확신하지는 못한다. 나는 정말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확실히 나는 ‘평온하게’ 살지 않았으며, 우리가 부르는 ‘오, 강이여. 그대의 평화를 구하노라’ 라는 노랫말을 좋아한다. 나에게서는 끊임없이 열망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 〈로마서〉 8장에 언급된 신음하는 피조물의



일부분인 것 같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오늘날까지 다 함께 신음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 22—옮긴이) 내 자신을 볼 때는 불안정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과정에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생각하면 믿음이 생기고 평화로워진다.”

로렐의 이야기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그러나 그녀의 투쟁은 누구나 평생에 걸쳐 이뤄나가야 할 과업으로서,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우리 자신과 평화롭게 살기를 배워가는 정상적인 과정이다. 그리고 그것은 영웅적인 순교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나의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다.

“인간사 전체 중에서 오직 한 가지 일, 즉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준비만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에 어울리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준비성을 일상 생활의 사소한 일 속에서 실험하지 못한다면, 역사의 결정적 순간에 용기를 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에 대응하는 모든 인간적인 길, 즉 두려움, 걱정, 내적 불안정성, 한마디로 우리의 믿지 못함을 끌어내기 위해서, 모든 사소한 태도와 느낌을 완전히 극복해야만 한다. 그 대신에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은 씨앗과 같아서 작지만 자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도 덜도 아닌 바로 이 믿음이다.”

## 바보들의 지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 기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자기가 세속적인 면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라고 쓰고 있다. 바보들의 지혜(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의 어리석음)는 평화와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중심 주제인 이것은 우리 책의 아주 중요한 측면을 밝혀준다. 하느님의 평화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은 것이 아니라면, 그 평화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발견될 수 없다. 오직 하느님의 어리석음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하느님의 평화를 발견할 수 있다.

실제적인 차원에서 이 어리석음은 자주 조롱거리가 되고 무시를 당한다.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Francis of Assisi 이야기가 적절한 예이다. 오늘날 그는 태양의 노래를 짓고 동물이나 새들과 평화롭게 지낸 순수한 수도자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성 프란체스코는 결코 태도가 온순한 시인이 아니었다. 열정적인 영혼의 사람으

로, 자신의 유산뿐 아니라 몸에 걸친 옷마저도 포기함으로써 가난한 자들과의 일치를 추구했다. 유언에서 부와 제도화된 종교를 매우 엄하게 비판한 탓에, 그의 유서는 그가 ‘확실히’ 성인의 지위에 올랐다고 여겨지기 전에 몰수되어 불태워졌다. 그가 남긴 얼마 안 되는 이야기에는,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영靈의 깊이가 담겨 있다. 이야기가 너무 남용되어 진부해진 것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말자.

주여, 저를 당신의 평화를 위한 도구로 써주소서.  
증오가 있는 곳에 사랑을 심게 하시고,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신성한 분이시여,  
저로 하여금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그것은 우리가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어감으로써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

다.

성 프란체스코처럼, 오늘날 정형화된 ‘종교적’ 대답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비슷하게 조롱거리가 된다. 그들 또한 영원한 평화로 가는 길이 사람들에게 오해받기도 하고 잘못 전해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지 모른다. 죽음과 죽어감에 대해 쓴 《신비를 말한다 I Tell You a Mystery》에서, 나는 친척 아주머니 이디스 이야기를 했다. 아주머니는 튀빙겐 대학의 신학생이라는 편안한 생활 방식을 브루더호프의 가난과 바꾸었다. 그 당시 히틀러가 집권하고 있었고, 우리 공동체는 국가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매도당했다. 이디스의 ‘어리석음’ 때문에 부모는 엄청 화가 났고, 그녀를 이층 침실에 가두고는 마음을 바꿀 때까지 음식을 주지 않았다.(아주머니는 침대 시트로 줄을 만들어 창문을 통해서도 망쳤다.)

마저리 힌들리는 여든 살이지만 여전히 활기찬 노인으로, 영국에 있는 우리 공동체 한 곳에 살고 있다. 그녀는 이와는 좀 다른 종류의 저항에 부딪쳤지만, 겪어야 했던 긴장은 똑같았다.

“나는 나중에 성공회 교인이 되었지만, 자랄 때는 감리교회에 다녔다. 우리 남매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잠들기 전이면 늘 우리와 함께 기도를 하셨다. 당시 우리

가족에게는 관습적인 도덕이 마치 공인된 기준처럼 존재했다.

아버지는 생각만큼은 사회주의적이어서, 나는 정의에 대한 아버지의 강한 열망을 함께 나누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보수적이었고, 남동생은 어머니의 사고방식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다투었다. 청소년기에 나는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잃지는 않았지만, 한편으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찾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다. 내 생각이 처음으로 흔들린 때는 열여섯 살 때쯤이었다. 반 친구의 사촌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감옥에 가게 된 것이다. 그 사건은 내게 충격이었고, 그 후로 세상에 대해 의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어느 날 집에서 뭔가 정의롭지 못한 일이 있어 큰소리로 항의했던 기억이 있다. 그때 어머니는 ‘네가 환상에서 깰 때까지 기다리마’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내 자신에게 ‘환상을 잃지 않을 거야’ 라며 강하게 다짐했다. 그러나 그 후 나는 그것이 단순히 환상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실재이고 삶의 나머지 것들이 환상인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마저리는 처음에는 맨체스터에서, 그 다음에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비서로 일했다. 그 일은 짧은 노동 시간

과 긴 휴가, 그리고 40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연금 등이 제공되는 편한 직업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2년여를 보낸 뒤에 직장을 그만두었다. ‘인생에는 이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거야’ 라는 느낌 때문이었다. 이후 그녀는 산업심리학을 공부했다. 몇 군데 다른 공장에서 경력을 더 쌓은 후 그녀는 브리스톨에 있는 회사에서 복지 감독관으로서 평생 일터를 찾았다.

“나는 의지적인 소망을 가지고 그 직장에 들어갔다. 내 자신이 쓸모가 있어서 비록 작은 방식이라도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좀더 ‘크리스천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바람이었다. 그러나 직장 생활을 통해 그 답을 얻기보다는 물음이 더 많아졌다. 노동자들은 따뜻하게 서로를 격려하는 분위기였다. 그 반면 여자 감독은 좀 덜 그랬고, 관리자들은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요구 때문에 힘들어했다.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노동자인가 아니면 관리자인가? 노동자들은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게 주고 있었다. 내가 과연 주려고 했던 것이 이들에게는 어떤 의미라도 있었던 건가?

과감히 일어나 예수를 따랐던 첫 사도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그들에게 그런 불꽃 같은 열정이 일었던 것일까? 그리스도교는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평화는 진정 어떤 것인가?

나는 사무실 서랍에 신약 성경을 숨겨두고 점심 시간이면 문을 잠근 채 꺼내 읽었다. 그러면서 산상수훈(〈마태복음〉 5~7장에 나오는 예수의 설교—웁간이)을 발견했고, 그 내용을 깊이 숙고했다. 일요일에는 이런저런 교회를 순례했으며, 평일에는 선술집과 청년 센터에 다녔다. 한 번은 목사관 문 밖에 서서, 목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을 할까 말까 갈등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그대로 돌아섰다. 또 한 번은 깊은 좌절감에 거리를 걷고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말하는 목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들려와서 주위를 살펴본 적이 있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말했다.

거의 같은 시기에, 내가 일하던 직장의 관리자 한 사람이 퀘이커교도임을 알게 되었고, 그에게 퀘이커교와 관련된 책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조지 폭스George Fox의 《일기Journal》와 루퍼스 존스Rufus Jones의 《신비 종교에 대한 연구Studies in Mystical Religion》를 빌려주었다. 이 책들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평일 저녁에는 선술집에서 시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 남녀들을 만났다. 유럽 대륙에는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가? 왜 교회는 이에 대해 분명한 지도를 하지 않는가?”

이러한 탐구 과정을 통해서 마저리는 틀에 박힌 중

교적 지혜의 근원과는 다른 갈래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퀘이커교도들은 그녀에게 책을 주기는 했지만 그녀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했다. 성공회(영국 국교회)는 소속 감독들이 평화에 관한 희곡을 썼을 때는 그들을 격려했지만, 그들이 임박한 독일과의 전쟁에 반대하는 선언을 했을 때는 그들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러던 중 브루더호프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졌다고 했다.

“나는 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빨래하고 채소 다듬는 데 열중하다가 불현듯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다.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만 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삶에 헌신해야만 했다. 내게 떠오른 그 빛은 경이로웠다. 그 빛으로 나는 기쁨과 확신과 평화를 발견하게 되었다.”

마저리는 브루더호프 공동체에 가입했다. 평화를 찾기 위해 특정한 공동체나 모임, 교회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식으로 자신의 이야기가 받아들여지는 것에 저항할 대표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자신을 근본적인 제자의 길로 부르신다는 믿음은 결코 시들지 않았다.

자기 만족감에 젖어 삶의 진짜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는 자기 문화의 지혜에 지나치게 만족한다. 그로 인해



우리 자신을 내적으로 각성시키려 애쓰지도 않고, 마저리가 물은 것 같은 기본적 질문조차 제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태도는 아무리 봐도 불행하다. 자신만의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평화를 경험해 볼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이 같은 자기 만족은 광신은 아닐지라도 종교적 맹목이 되고 만다. 소설가 에니델라드Annie Dillard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전반적으로 나는 카타콤(초기 기독교도의 피난처가 된 지하 묘지—웁긴이) 바깥에서는 여러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가 과연 어떤 종류의 힘을 그다지도 기쁘게 염원하는지 흐릿하게나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또는 내가 의심하는 것처럼, 아무도 교회가 하는 말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인가? 교회는 화학 약품 세트를 가지고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놀면서 일요일 아침을 죽일 수 있는 강력한 폭약을 뒤섞고 있는 어린아이들이다. 교회에 밀짚모자를 쓰고 벨벳을 입고 가는 것은 미친 짓이다. 교회에 갈 때는 안전 헬멧을 써야 한다. 안내원들은 생명 보호대와 신호용 불꽃을 제공해야 한다. 그들은 우리를 신도용 좌석에 꼭 붙들어 매놓아야 한다. 왜냐하면 잠자고 있는 신이 어느 날 깨어나서 화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깨어 있는 신이 우리를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끌고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연약함의 힘

예수의 역설적인 말 가운데 실행에 옮기려고 할 때 가장 어려운 말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가 한 어린이를 주목하면서 했던 구절이 아닐까 싶다. 그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어 이 어린이와 같이 되는 사람이다.”

어린이처럼 된다는 것은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어른이 된다’는 것을 거의 모두 잊어버리는 것을 뜻한다. 즉 강하게 보이려는 유혹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보다는 기꺼이 상처받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여러 한계와 약함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것을 감수하려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는 병자를 고치고 군중을 먹이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물 위를 걷기도 했다. 그는 모든 종류의 힘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었다. 그러나 체포되어 빌라도 앞에 불려가고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마침내 십자가형에 처해질 때, 예수는 자기를 보호하기를 거부했다. 또 그는 궁중에 태어나기를 선택하지 않고 허름한 마구간을 택했다.

그리스도는 순종이라는 ‘연약함’ 을 택했는데, 아마도 이것이야말로 그의 평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숨겨진 열쇠일 것이다. 도로시 데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덧입혀진 그리스도에 대해 듣는다. 그의 사생활과 활동적인 삶, 공생애, 그의 가르침과 고통당하는 삶 속에서 예수를 생각한다. 그러나 그의 삶을 어린 아이나 젖먹이로서 생각하는 것은 부족하다.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고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었던, 그의 어쩔 수 없음과 무기력함에 대해서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브루더호프 공동체 식구로, 70대인 게어트루드 베그너는 불의의 사고를 당해 움직일 수 없게 된 뒤, 도로시 데이의 이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워싱턴 시에서 남편과 함께 사업 박람회 참석했다가 넘어져 척수를 심하게 다쳤다. 그 즉시 위급한 상황이라는 걸 직감했다. 몸 어디에도 느낌이 없었다. 목 아래로 완전히 마비된 것이다. 두 번의 수술로 어느 정도 나아지기는 했다. 그러나 하루에 두 번, 몇 시간씩 걸리는 치료는 몹시 고됐고, 심신을 지치게 했다. 게다가 담당 의사는 내가 다시 움직일 수 있을지 전혀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사고를 통해 나는 겸손함을 배우게 되었다. 왜냐하면 온갖 사소한 일들이 나를 위해 행해져야 했기 때문이다. 다달이 아주 조금씩 나아지긴 했지

만, 그것은 지루하고도 힘겨운 투쟁이었다.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러한 경험을 통해 나는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의 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바울의 말을 기억하려고 노력했다.

이 밖에도 다른 여러 가지 개인적인 싸움이 겹쳤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평화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평화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 도움이 되었다. 당신의 인생에서 한 번이라도 평화를 경험해 보았다면, 그 경험은 계속해서 당신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

인생을 되돌아볼 때 참 많은 일들이 떠오른다. 자식들에게 더 좋은 엄마가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실 때 함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더라면, 어머니께 더 많은 사랑을 보여주고 더 자주 도와드렸더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친절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더 많이 할 수 있고 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으면 하는 일들이 많다. 그러나 그런 후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우리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나의 평화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와 형제자매를 섬기기를 소망하는 가운데서 올 것이다. 비록 그것

이 특별한 은총이며 바라기에는 분에 넘치는 것임을 알지만 말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중 누구도 ‘평화를 소유’ 할 수 없다는 것이 내게는 더욱 분명해진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과분한 것이다.”

게어트루드의 생각은 중요한 진실에 닿아 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신하면 할수록 그리스도를 덜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인간적 연약함은 하느님에게는 아무런 장애가 아니다. 사실, 죄에 대한 변명으로서만 쓰지 않는다면 연약하다는 것은 좋은 것이다. 이러한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 자신보다 훨씬 위대한 힘을 경험하고 이에 항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힘을 없애는 것, 이것이야말로 은총의 뿌리다. 아주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서 힘이 생겨날 때마다 성령과 하느님의 권위는 그에 상응해서 물러나게 될 것이다. 내 판단으로는 이 관점이 하느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유일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통찰이다.” (에버하르트 아놀드)

우리 공동체의 또 다른 식구인 캐시 트랩넬은 자신의 삶과 탐구를 통해서 이러한 진실을 입증한다.

“철이 들어 가족간에 심각한 불화를 자주 겪게 되면서 나는 평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 4학년까지 모두 가톨릭 학교를 다녔지만, 학교

에 다니는 내내 나의 내면에서 또 친구들과의 사이에서는 늘 평화를 위한 투쟁이 있었다. 착한 가톨릭 신자인 소녀가 뭔가 잘못했다고 느끼고 죄책감을 느낄 때, 그 다음으로 하는 일은 고해실로 가는 것이다. 그러한 고백을 하고 나면 아주 행복한 기분이 들곤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심지어 대학 때도 잘 알고 지내던 예수회 신부에게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이른바 ‘공개적인’ 고해를 했고, 그리고 나서는 하느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는 느낌에 평화로울 수 있었다.

그러나 곧 학생 시절의 반란이 시작되었다. 나는 히피가 된 것이 자랑스러웠고, 평화와 사랑에 역행한다고 생각되는 기존 질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분노하게 되었다. 베트남 전쟁을 끝내기 위해 노래하고 행진하고 반전주의자들을 지원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나는 내가 평화를 위해 일한다고 상상했다. 나는 포도 불매 운동을 벌임으로써 이주 노동자들이 처한 곤경을 어느 정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려고 노력했다. 또 요가도 하고, 내 돈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쓰기도 했으며, 공동체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법을 배우기도 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에서도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지는 못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평화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근본 원칙과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

것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좋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다. 문제는 내가 자신의 신이었기 때문이었다. 내 인생과 다른 사람의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였다. 나는 죄받을 정도로 무섭게 그리고 기꺼이 자신의 두목이 되었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발버둥 쳤다. 그러나 일은 그렇게 되지 않는 법이다.

그 뒤 나는 전혀 다른 평화의 영靈을 발견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연약함과 직면하고, 우리를 예수에게로, 평화가 실현되는 미래의 하느님 나라로 향하게 하는 믿음에서 우리나라오는 평화였다. 이러한 깨달음 안에서 나를 바라보니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평화롭지 못한 사람이었는지 자각하게 되었다. 이제 내 인생을 하느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판단 앞에 항복시킴으로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데 내 자신을 바침으로써, 나는 새로운 힘을 찾게 되었고, 날마다 평화의 기적을 누리게 되었다.”

우리 사회는 캐시가 이해하는 평화와는 동떨어져 있다. 우리는 통제 안에 머무르는 것을 모욕이라고 배운다. 우리는 모두 평화와 사랑을 원한다. 어느 누구도 그것이 좋은 것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멈추어 서서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평화를 발견했는지를 질문하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평

화가 아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평화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너무 염려를 하고 있다. 우리는 겸손함과 단순함이 부족하다. 예수에게 향하여 그의 평화를 구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 눈에 완전하게 보이고 싶어한다. 우리는 팔복(〈마태복음〉 5장 3절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에서 12절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까지)에 나오는 예수의 행복론—옮긴이)이 사람들 앞에서 빛나는 위대한 성인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비천한 사람을 요구한 것임을 잊어버리고 있다.

장애우들을 섬기고자 하버드, 예일, 노트르담 대학의 교수라는 화려한 경력까지 버린 작가 헨리 나우웬Henri Nouwen은 다른 이들이 거의 이해하지 못한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다.

“우리는 성공하거나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업적을 쌓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부름을 받았다. 성공은 힘과 긴장 그리고 인간적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풍성한 결실은 상처받기 쉬움으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함으로부터 생겨난다.

나는 오랫동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 속에 살면서



안전무사를 추구해 왔다. 하느님 나라의 일들은 작은 어린이들에게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으며, 하느님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어리석은 자를 선택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들의 따뜻하고 가식 없는 환대를 경험하고,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는 사람들로 부터 사랑스러운 포옹을 체험하면서, 참된 영적 귀향이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곧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로 돌아감을 뜻한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영의 가난을 추구하도록 동기 부여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것은 상반되는 두 목표 사이의 충돌과 같다. 하나의 목표는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 위대한 사람, 영적인 사람, 영리하고 좋은 사람, 천부적인 재능으로 말하자면 인간성의 산맥에서 최고봉에 오른 사람을 추구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목표는 겸손한 사람, 소수에 속한 사람, 장애가 있는 정신지체자, 수감자를 추구하는 것이다. 즉 위대한 이들의 고지 사이에 있는 비천한 이들의 계곡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들은 강등당한 사람이며, 노예가 되어 착취당하는 사람이며,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이다.

첫 번째 목표는 특정한 개인으로 하여금 그가 지닌 천부적인 재능에 힘입어 신의 경지까지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에 그는 하나의 신이 되어버린다. 또 다른 하나의 목표는 사람이 된 하느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낮은 지위를 추구한 하느님의 경이와 신비를 찾아나서는 것이다. 이 둘은 전적으로 상반된 방향이다. 전자는 자신의 영광을 좇는 상승적인 돌격이다. 반면에 후자는 인간이 되는 하강 운동이다. 전자는 자기애와 자기 높임의 길이며, 후자는 하느님의 사랑의 길,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다.”

이 같은 사랑 안에 살면서 그 속에서 생겨나는 평화를 누리려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 십자가의 예수를 생각해 보라. 여기에는 궁극적인 취약성이 있다. 그러나 또한 하느님의 평화에 대한 최고의 본보기도 있다. 그에게 가해진 온갖 일들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전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옆에 있는 범죄자 한 사람을 용서해 주었다. 그는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최초의 그리스도교 순교자인 스테반이 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무릎을 꿇은 채 빛나는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또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라고 기도

했다. 나는 그러한 평화가 인간의 힘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 제4부

## 징검다리

“우리는 다만 조금씩 나아간다.”

-사도 바울

## 징검다리

토마스 제퍼슨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독립 선언서에 넣었으며 또 그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덧붙여야 한다. 행복을 추구하는 이들은 결코 행복을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기쁨과 평화는 도망치기가 아주 쉬운 것이며, 행복은 도깨비불이나 환영과 같아서 붙잡으려고 손을 내밀면 대기 속으로 사라져버린다. 하느님은 기쁨과 평화를,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을 찾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이에게 선사한다. 기쁨과 평화는 오직 사랑하는 가운데서만 발견된다. — 존 스토틀 John Stott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평화 속에서 산다는 것은 그것을 얼마나 열심히 추구하느냐 하는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듯하다. 평화는 때로 그것을 가장 열심히 좇는 이에게는 교묘히 몸을 숨겨버린다. 그 반면 그것을 바라지도 않고, 어떤 경우에는 부차적인 문제로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마치 우연처럼 평화를 경험하기도 한다.

우리가 평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지 혹은 그

래서는 안 되는지 하는 문제는 결코 만족스럽게 답을 내릴 수 없다. 평화는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다룬다거나 말끔하게 진술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웅장한 해결책을 좇는 일, 즉 인류를 구원하고 세계 평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도움이 안 된다. 우리는 대부분 가까이 있는 일들—사소하지만 아마도 우리가 오늘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을 제대로 완수하고자 기꺼이 헌신한다. 스토틀가 한 말이 평화에 대한 또 다른 열쇠를 쥐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이 때문이다. 즉 평화 그 자체를 위해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서 평화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할 수 있으며, 우리 인생에서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 그것을 통해서 평화로 나아갈 수 있다.

당연히, 무언가를 하기 전에 그것을 하기로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가 제공하는 평화를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것에 등을 돌리고 세상이 주는 평화를 추구할 수도 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하나이다. 나는 단연코 이 선택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그 선택의 여파가 느껴지고, 우리가 내리는 경제적·사회적·정치적 그리고 개인적인 모든 선택도 조만간에 그 선택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예수도 여러 선택에 직면했었다. 예수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뒤 성령에 이끌려 사막으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악마의 유혹을 받아야만 했다. 40일 밤낮을 금식한 예수는 가장 약한 상태, 가장 유혹받기 쉬운 상태에 있었다. 예수는 궁지에 몰렸고, 안락한 길로 나아가 결국은 악마의 음모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의 편에 굳건히 설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했다.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저마다, 비록 예수만큼 번뇌하지는 않을지라도, 유혹의 시간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가 하느님께 진실한 태도를 견지하기로 단호하게 결정을 내린 일, 그리고 그 결과로 누리게 된 승리는 우리에게 희망과 힘을 준다. 그것은 또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을 상기시켜 준다.

오스카 로메로 Oscar Romero의 시를 인용해 본다.

하느님은 선물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악하게 태어난 아이는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리 악이 무성한 것입니까?

인간의 영혼이 타락해서 사람들이 부패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정화가 필요합니다.

유괴범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범죄자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문자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인자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하게 살도록,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하도록 태어났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우리 모두가 얼마나 지극한 선으로 부름받았는지 깊이

생각하며,

나 자신도 후회하고 있는 바,

나이 든 세대가 얼마나 많은 이기심과 악의 유산을

그대들에게 남겼는지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이 손수 뿌리신 새 밀과 새 곡식들로,

논밭은 새로워지고 여전히 신전합니다.

어린이들, 젊은이들이야말로 더 나은 세상의 씨앗입

니다.

나는 운 좋게도 성장기에 로메로의 표현처럼 “우리 모두가 얼마나 지극한 선으로 부름받았는지 깊이 생각



하도록” 격려해 주시는 부모님이 있었다. 부모님께 평화에 대한 그리스도의 약속은 단순히 성서에 나와 있는 구절로 머물지 않았다. 그것은 그분들이 어떤 태도를 결정할 것인지를 묻는 실제적인 제안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다 거룩한 체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두 분은 허영과 거짓된 경건을 끄찍이 싫어했으며, 때로는 그와 같은 철저한 태도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지치게 했다. 그럼에도 부모님을 알고 지낸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 분이 언행일치를 위해 노력했고, 하느님과 이웃을 섬기는 데서 삶의 기쁨을 추구했음을 인정할 것이다.

아버지가 하느님의 평화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같은 맥락으로 하셨다. 하느님의 평화는 오직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이탈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고. 베를린에서 유명한 작가이자 강연자로 활동했던 할아버지는 성 프란체스코의 가난을 따르기 위해 그 길을 포기하셨는데, 자녀들이 어릴 때 말씀하기를, 자신은 금전으로 유산을 남겨주지는 않을 것이며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삶의 본보기를 선물로 주겠다고 하셨다.

내 부모님도 똑같은 유산을 내게 남겨주셨다. 비록 내가 늘 그 진가를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말이다. 사실 나는 십대 초반에 의식적으로 거기에 반항했다. 그렇다고 지금의 기준으로 수치스러운 짓을 한 것은 아니다. 나는 부모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

고, 나 역시 어느 정도는 그것을 원했다. 또 부모님이 하느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는지도 알고 있었다.(어머니는 교수가 되기를 바라는 가족들의 기대에 반하여 유명한 기숙 학교를 그만두었다. 이 일로 인한 갈등은 몇 년이 흘러서야 해결되었다.) 그러나 나는 무엇보다도 재미있게 지내기를 원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친구들과 함께 놀러나가곤 했다.

그때 하느님께서 나를 멈추게 하셨다. 열네 살 때 우리 가족은 내가 자란 파라과이 오지의 공동체에서 뉴욕의 우드크레스트라는 곳으로 이사를 했다. 우리가 도착했을 당시 미국의 분위기는 대체로 낙관적이었다. 경제는 호황이었고 독일과 일본을 이긴 승리감도 아직 사라지지 않던 때였다. 동시에 냉전이 한창 진행중이었고 많은 이들이 핵으로 인한 재앙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 부모님이 옮겨간 집단에서는, 사람들이 부와 전쟁의 공허한 승리를 떠나서 뭔가 새로운 것, 즉 단순함, 공동체, 조화, 평화 등을 찾고 있었다.

우드크레스트에 도착한 날부터 나는 이러한 탐색 과정을 접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수백 명의 젊은 손님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수십 명의 새로운 공동체 식구들이 있었다. 그들의 질문을 통해 나는 전에는 전혀 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 이곳에는 하느님께 헌신하

는 삶을 살고자 세속적인 성공을 내던져버린 사람들, 가난해지기 위해 자발적으로 집과 차를 팔고 좋은 직업을 포기한 이들이 있었다. 나는 그들의 얼굴과 말을 통해 이러한 포기로 인해 그들이 성취감을 느끼고 기뻐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곧이어 내가 전에 동경하던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고등학교 이후의 삶, 곧 대학, 돈, 독립에 대한 계획이 바뀌기 시작했다. 조금 더 지나자 그것들은 더욱 사소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보였다. 나는 새로운 목표와 우선순위를 갖게 되었다.

나의 진로를 바꾸게 만든 가장 중요한 사건을 정확하게 꼬집어내기는 어렵다. 아버지께 “이제부터는 다르게,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 살겠노라” 고 말했던 날이 아직도 기억난다. 내가 그 말을 최종적인 ‘회심’ 으로 여기고 했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그 경험을 통해 인생에서 참된 목표를 찾고자 하는 나의 열망은 강해졌고 확신은 더욱 깊어졌다.

당시에는 그다지 의식하지 못했지만, 내 생각을 정립하는 데는 책도 도움이 되었다. 특히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이 그랬다. 나는 독서광이었지만, 그들의 책을 ‘종교적’ 이라고는 여기지 않았던 것 같다. 도로시 데이나 피터 시거Pete Seeger 같은 손님들과의

대화 또한 내게 큰 영향을 끼쳤다. 되돌아보면 부모님이 하신 역할도 깨닫게 된다. 내 마음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미처 그걸 몰랐었다. 부모님은 나를 위해 자주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셨던 게 분명하다.

아마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목회자로서 아버지가 지닌 영향력이었을 것이다. 아버지가 다른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마다 나는 감동을 받았다. 나는 거룩함의 영, 하느님의 영을 느꼈다. 그리고 이 느낌은 후에 아버지가 세례를 베풀어준 사람들의 변화를 보면서 굳건해졌다. 어떤 사람은 너무도 완벽하게 변해서 마치 새로운 인격을 입은 것처럼 보였다. 나는 내 자신에게도 똑같은 일, 즉 자기 중심적인 자아와의 투쟁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의 기쁨과 자유를 발견하게 되기를 원했다. 나는 열여덟 살에 세례를 받았는데 이것은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이제 내 인생을 하느님께 전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헌신하지 않을 수 없음을 깨달았던 것이다.

이 책의 앞에서 평화는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듯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 랍비의 글을 인용한 바 있다. 나는 그 이미지가 좋다. 우리를 영적인 데로 이끈 한 번의 대화, 한 권의 책, 한 번의 경험, 그리고 이에 따른 한 번의 결정 때문에 우리의 인생 여정이 변화되지 않는

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함께 작용하면서 현재의 우리 모습이 이루어졌다. 궁극적으로 그것들은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고 인도할 수도 있다.

나는 자기가 회심하게 된 정확한 순간과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다. 나는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마도 대부분은 최근의 영국 작가인 말콤 머거리지 Malcom Muggeridge가 한 다음과 같은 지적에 더 동질감을 느낄 것이다.

“사도 바울처럼, 몇몇 사람들은 다마스쿠스 길을 경험한다. 나는 자주 그러한 극적인 사건이 내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해 왔다. 그리하여 마치 기원전에서 기원후로 변화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시간 속에서 시작할 수 있기를 간구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은 나에게 허용되지 않았다. 나는 단지 버니언의 순례자(영국 근대 문학의 선구적 작품으로 인정받는 존 버니언의 소설 《천로역정 The Pilgrim's Progress》의 주인공. 고향인 ‘멸망의 도시’ 를 떠나 도중에 여러 인물을 만나며, ‘낙담의 늪’ ‘죽음의 계곡’ ‘허영의 거리’ 를 지나 천신만고 끝에 ‘하늘의 도시’ 에 당도한다.—웁긴이)처럼 넘어졌을 뿐이었다.”

나에게도 회심은 한 걸음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었

다. 처음에는 새로운 무언가를 향한 열망이 있었고, 이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기로 걱정했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40년이 지난 오늘에도 나는 여전히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새로운 답을 찾아가고 있다. 여기서 또다시 징검다리의 모습이 떠오른다.

4부에 나오는 각각의 이야기들은 그러한 발판을 제공한다. 모두 원만하거나 안전한 것은 아니다. ‘겸손’ 과 ‘신뢰’ 와 같은 몇몇 이야기에는 위험이 숨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비틀거리게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평화에 이르는 길로 나아가자면, 그곳들을 하나하나 건너가야만 한다.

## 단순함

인생의 목표는 다수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신 나간 이들의 대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들에게 칭송받거나 영광받기를 원치 아니하며, 오히려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성에 따라, 행동 속에서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신이 있음을 기억하라. 무화과나무는 자신의 목적에 충실하고, 개와 별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사람이 그의 소명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

겠는가? 그러나 슬프게도 이 위대하고 거룩한 진리는 기억에서 사라져버리고 만다. 혼잡한 일상 생활, 전쟁, 분별 없는 두려움, 영적인 불구, 그리고 습관적인 노예 상태로 인해 이러한 진리가 질식당하고 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Marcus Aurelius

우리는 대부분, 비록 도중에 이 열망이 사라날 수는 있겠지만, 하느님과 하나되고자 하는 식의 고상한 추구가운데서 평화를 바라지 않는다. 평화에 대한 바람은 보통 훨씬 단순한 것들, 즉 생활 속의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피곤함, 그리고 아우렐리우스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미쳐가고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생겨난다.

우리 문화는 광란으로 특징지어질 뿐만 아니라 바로 광란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토마스 머튼의 말을 인용하자면, 우리는 시공간의 부족, 시간 절약, 공간 정복, 미래 예측, 그리고 “크기, 분량, 질, 속도, 숫자, 가격, 힘, 가속에 대한 걱정”에 붙들려 있다. 우리는 “전혀 여유가 없는 시대, 즉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인구가 수십억에 이르렀고, 함께 한 덩어리가 되었으며, 정렬하고, 헤아리고, 여기저기를 질주하고, 세금을 내고, 훈련하고, 무장하면서…… 생명을 싫어하게 되었다. 그리고 종말이 가까워짐에 따라 자연을 위한 여지가 없게 되었다. 도시가 지구의 표면을 가득

채워버렸다. 고요함의 여지가 없다. 홀로 있음의 여지가 남겨져 있지 않다. 생각할 여유가 없다. 집중하며 우리의 상태를 깨달을 만한 여지가 없다.”

더 나빠진 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만의 평화를 위한 시간과 공간, 여유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평화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5년 동안만 보더라도 새로운 발명품이나 개량품이 생활 방식을 엄청나게 변화시켜 왔다. 컴퓨터와 팩스, 무선 전화기와 무선 스피커, 이메일, 그 외 다른 노동 절약형 첨단 제품들로 인해 우리의 일과 가정 생활은 혁명적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과연 그것들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주었는가?

이 점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점점 무더지게 되었다. 새로운 기계에 돈을 쓰도록 강요하는 체제의 노예가 되어 버렸고, 더욱 열심히 일하면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것은 잘못된 논리다. 소프트웨어에서 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성능이 좋아질수록 우리는 더욱 박차를 가해 달릴 수밖에 없다. 이웃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허세를 부리느라 우리는 늘 애를 쓰고, 심지어는 더 나은 판단을 거스르기까지 한다. 이러한 때 우리는 과연 지금까지 모아온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이 조금이라도 더 평화로워졌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오늘날 삶이 복잡해짐에 따라 우리는 평화를 빼앗기고, 신경과민과 불안정, 그리고 혼란이라는 전염병이 소리 없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미 50년 전에 독일의 교육자 프리드리히 빌헬름 포에르스터 Friedrich Wilhelm Foerster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 시대의 기계 문명은 모든 면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삶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무기력하게 인생의 충격 앞에 굴복한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그것은 단지 물질적이고 기술적이기만 한 문화는 비극적인 사건이 닥친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외향적이 된 반면에 자신 안의 들떠 있음과 불화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힘은 잃어버렸다. 고통을 잘 다룰 줄도, 그래서 그것을 건설적인 쪽으로 변화시킬 줄도 모른다. 오로지 고통을 자신을 억누르는 것, 화나게 하는 것, 삶을 방해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인다. 평화를 전혀 누리지 못한다. 역동적인 내적 생명을 지닌 사람이라면 삶의 승리로 가져갈 경험이,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는 정신 병원으로 가게 만드는 경험이 되어버린 것 같다.”

《타임》지의 ‘경향’ 이라는 최근 기사에 보면, 부

자 동네인 오하이오 교외에서 이사 온 한 젊은 부부 이야기  
가 실려 있다. 그들이 이사한 까닭은, “크고 빈 집을  
값비싼 잡동사니로 채우느라고 대부분의 시간을 써  
버리는” 이웃 사람들과 사느라 아내가 부대꼈기 때문  
이었다. 아내는 “평온함과 단순함, 그리고 약간의 마음  
의 평화”를 원했다.

새로운 소도시 환경에서 사는 게 처음에는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얼마 안가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범죄가  
늘고, 속 좁은 이웃들과 갈등이 생겨 머리가 아프기 시  
작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유적지 보수  
와 교육위원회 문제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어느 쪽도 결  
과가 만족스럽지 않았다. 마침내 그 부부는 평온한 생활  
방식을 누리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떠올렸다. 그들은 먹  
고 자고 하는 단순한 생활을 시작하고자 낸터킷 섬(미  
국 매사추세츠 동남쪽에 있는 섬으로 피서지로 유명하  
다.－웁긴이)으로 떠났다.

단순함은 행복과 마찬가지로 좇는다고 해서 언제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단순함을 좇는 것  
이 헛된 추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단순함 그  
자체를 추구할 경우 단지 실망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  
이다. 우리가 물질적인 생활 방식에 환멸을 느끼고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속도의 변화 이상의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

내 부모님도 1920년대 유럽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좀더 단순한 삶을 추구했는데, 거기에는 진실됨, 자연에 대한 경외, 공동체, 그리고 창조주와의 조화가 결합되어 있었다. 1960년대의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내 부모님 시대의 젊은이들도 서로가 더 친밀하게 살 수 있는 협동조합들을 만들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록 종교적인 언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하느님과 좀더 밀접한 관계를 추구하였다.

오늘날 ‘켄터키의 소로우’라 불리는 웬델 베리 Wendell Berry 같은 이들은, 자연으로 돌아가 더욱 자족적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일, 또 “다른 이들이 단순하게 살 수 있도록 스스로 단순하게 살아가는 일”의 중요함을 강조한다. 주로 베트남 출신의 스님들과 가족들의 공동체이자 수련원으로 프랑스 남서부에 있는 텍낫한 스님의 자두 마을 Plum Village도 단순함과 평화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어린아이나 손자손녀, 조카가 있는 사람은 아이들의 단순함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준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른과는 다르게 어린이들은 본질적이고 즉각적인 것을 환영하는 경향이 있다. 아이들이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고 단순한 것에 있다. 아이들은 충분히 현재를 누리며 살아가며 기꺼이 마음에서 우리나라 오는 행동을 한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마음

은 계획이나 도식, 금기 사항이나 의도로부터 훨씬 자유롭기 때문이다.

단순함이 그 자체로 끝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단순함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얻고자 애써야 하는 어떤 것이다. 우리가 소유물과 활동 그리고 논의할 사안들 때문에 삶의 중요한 내용인 가족, 친구, 건설적인 관계, 그리고 의미 있는 일들, 즉 우리를 연결시키고 함께 묶어주는 것들에서 벗어나 있을 때 단순함이 필요하다. 우리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고 도구나 장난감과는 덜 보내야 한다. 또 이런저런 일들에는 덜 의존하고 하나님께는 더 의지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고 물으신다. 나는 종종 이 단순한 질문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평화를 발견한다. 이 물음은 우리 머리를 계속해서 짓누르는 위협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확실한 안내이다. 그것은 우리가 진실로 우선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환기시켜 준다.

## 침묵

허야말로 가장 강력한 조작의 무기다. 우리는 자신의 대외적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애쓰느라 광적이다 싶을 정도로 말을 많이 한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두려워하며 그들이 똑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말을 한다. 만일 내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는데(또는 옳은 일인데 당신이 오해를 하는 경우에도) 당신이 그것을 아는 것 같으면, 나는 당신에게 내 행동을 이해시키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 침묵은 거룩한 영의 가장 깊이 있는 수행 중의 하나다. 왜냐하면 침묵은 더 이상 어떤 자기 정당화도 일어나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침묵의 결실 중 하나는 하느님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도록 맡기는 것이다. 다른 이들의 오해를 바로잡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리처드 포스터Richard J. Foster

평화를 방해하는 가장 커다란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침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잠자코 있거나 자신의 일이나 신경을 써야겠다고 마음먹는 순간마다, 우리를 끌어내 수다에 끼어들도록 만드는 이들이 있다.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

이 자신의 평화를 빼앗기고 있다. 말을 하고 잡담을 하고, 그러면서 그 모든 무익한 말들로 우리가 판단받으려 하는 것을 잊어버린다.

침묵은 이 책에 언급된 평화의 다른 면들에 비해 그리 대단치 않아 보일지도 모른다. 작가 막스 피카르드 Max Picard는 “침묵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낼 수는 없다. 침묵은 큰 공적이 아니며 비생산적인 것이다. 그래서 침묵은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침묵 속에는 어떤 유용한 것보다 더 많은 도움과 치유가 있다”고 지적한다.

혼자 있을 때는 걸으로나마 침묵하기가 쉽다.(내적으로는 전혀 고요하지 못할 수도 있다. 여러 생각과 계획으로 머릿속이 시끌벅적할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혼자 있을 때보다 침묵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침묵은 말하지 않는 것 이상을 필요로 한다. 침묵은 경청을 배우는 것이다.

브루더호프에서는 예배, 회의, 독서 또는 나눔을 위한 저녁 모임들이 일주일에 몇 차례씩 열린다. 사람들은 우리가 침묵의 가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아마도 우리는 그럴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표현하고 의견을 내서 다른 사람이 듣게 하려는 바람이 내실 있는 대화에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지 놀라울 정도다.

대응하지 않고, 바꾸거나 윤색하지 않고, 심지어 대

답도 아끼며, 단지 듣기만 하는 것은 선물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침묵할 수 있고 진실로 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느님은 말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수행이다. 마더 테레사는, 우리가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지적한다. “내면에서 우리나라오는 말이 아니라면 모두 쓸모없다. 그리스도의 빛을 담지 못하는 말은 단지 어둠을 키워줄 뿐이다.”

많은 사람들은 침묵이 필요 이상으로 삶을 심각하게 만들며, 수사나 수녀와 같은 ‘종교적인’ 사람에게나 어울리는 거라고 여기는 것 같다. 많은 종교 단체에서 침묵을 수련하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 공동체에서는, 자신의 헌신을 재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잠시 침묵의 서약을 하기도 하고 참회의 상징으로 침묵의 서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어쩌서 침묵이 소극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는가? 침묵은 응답해야 한다는 짐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다. 또 침묵은 사소한 일로 당황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초기 퀘이커교도 사이에서는 공동 침묵common silence을 우선에 두었고, 예배와 선교는 그 다음이었다. 그들은 공동 침묵을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하느님을 기다리는’ 방법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침묵을 통해 자아로부터 물러나 더 큰 영역으로 들어갔고, 그 속

에서—심지어 분열을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서조차—일치와 통일을 이루어내는 가장 풍성한 상태를 경험하였다. 대화하고 탐구하고 기도하면서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때, 그들은 침묵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답을 발견했다.

때로 침묵은 사람들과 떨어져 홀로 있을 것을 요구한다. 친밀한 조직인 가족이나 공동체처럼 다른 이들과 아주 가깝게 살거나 일을 한다면, 고요하게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 본회퍼Bonhoeffer (1906-1945, 독일의 개신교 신학자이며 목사로, 세속 사회 환복판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핵심으로 이해하고, 히틀러암살계획에 참여하였다가 투옥되어 처형되었다.—웁긴이)는 공동체에서 살 수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도 살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역 또한 진실이다. 자기 자신과 대면할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에서도 살 수 없다. 할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인용해 보면 이렇다.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처럼, 다른 이들과 더불어 지낼 때 필요한 힘을 얻기 위해서는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니체가 쓴 차라투스트라의 생애를 보면 고대의 예언자들이 종종 동물과 더불어 홀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예언자는 들로 나가서 이 영리하고 강하며 고귀하면서도 또 순종적인 동물들 사이를 고요하



게 걸어 다녔다. 이를 통해 재충전을 하고, 다시 한 번 사람들에게 나아갈 힘을 얻었다.”

개인적으로 나는 비록 단 몇 분만이라도 매일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부부는 되도록이면 자주 아침에 고요한 산책을 하는데, 산책 시간은 생각을 정리하기에 좋다. 우리 공동체의 다른 이들도 산책을 즐긴다. 한 노부부는 매일 저녁 식사 전에 짧은 산책을 하는데, 그렇게 고요히 있으면서 저녁을 즐긴다.

특히 우리가 혼돈과 상실의 시기를 겪고 있을 때는, 자연에서 느껴지는 고요한 치유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나는 아직도 어린 시절에 리아 키피라는 나이 든 부인이, 슬퍼 보이는 사람에게 “밖으로 나가서, 자연을 즐기세요!” 라고 말하던 기억이 난다.

나의 아버지는 《죄스러운 생각으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Sinful Thoughts》라는 책에서, 또 다른 종류의 침묵인 초연함 또는 내적 침묵에 대해 썼다. 초연함에 대해서는 언급할 것이 많다. 신비가들은 초연함에 대해서 몇 권이나 되는 책을 쓰기도 했다. 한편 초연함은 매우 단순하게는 평화로움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일들의 아우성, 계획의 소란함, 내일에 대한 염려 등을 내려놓고 내적으로 고요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진다.

17세기의 퀘이커교도인 윌리엄 펜William Penn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한다.

“마음의 침묵까지도 사랑하라. 왜냐하면 몸에 대한 말의 관계처럼, 마음에 대한 생각의 관계도 골치 아픈 것이기 때문이다. 지나친 말은 과도한 생각만큼이나 소모적이다. 그리고 말뿐 아니라 많은 생각 속에도 죄가 있다. 참된 침묵은 마음의 쉼이다. 이러한 마음의 쉼이 영혼에 주는 것은, 잠이 몸에 끼치는 것과 같은 자양분과 재충전이다. 참된 침묵은 위대한 덕목이다. 어리석음을 덮어주고 비밀을 지켜주며 분쟁을 피하게 하고 죄를 예방한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과 아무 말 하지 않고도 아주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다. 그러나 침묵이 언제나 평화를 주지는 않는다. 때로는 대화가 잠시만 중단돼도 불안함을 느끼고, 그 불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재빨리 대답을 궁리한다. 겉보기와는 달리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즉 우리와 다른 이들 사이에 또는 우리와 하느님 사이에 무언가 있을 때, 침묵은 심지어 두려운 것이 될 수도 있다.

내가 몇 년 동안 상담해 온 한 여인은, 격변기 동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면이 고요해짐으로써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고 얘기한다.

“당신이 당신 자신과 평화로이 지내지 못하면, 삶

의 어두운 그림자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제대로 보거나 읽지 못하고, 전혀 귀기울이거나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 할 일이 없어지게 된다. 고통이나 상반되는 목표, 두려움, 비난, 떳떳치 못한 마음 등의 내적인 문제들로 혼돈에 빠진 자신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그럴수록 더 혼란스러워질 뿐이다. 당신이 아무리 삶의 어두운 그림자를 회피하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혼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면 그 안에서 신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다. 내적인 혼돈을 직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당신은 평화라는 선물을 맞이할 수 있고, 하느님의 뜻에 더 조화를 이루는 인생을 준비할 수 있다.”

나는 아버지의 어릴 적 친구인 소피 퇴버라는 분과 계속 알고 지내는데, 그분이 최근에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 그분은 “나는 살면서 자주 평화를 위해 싸워야만 했다. 그러나 침묵을 통해 비로소 내면을 향하고, 하느님께서 우리들 각자를 그의 손으로 붙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 말씀하셨다.

소피는 독일 브루더호프 공동체의 식구였는데, 독일 브루더호프는 1937년에 비밀 경찰인 게슈타포의 불시 단속에 걸려 해체되었다. 경찰은 공동체 식구들을 한데 모은 뒤, 남자들은 벽에 일렬로 세우고 여자와 아이들은 한 방에 가두어놓고 심문을 했다. 그리고는 24시간 이

내로 집과 땅을 떠나 나라 밖으로 나갈 것을 명령했다.

“나치가 우리를 추방했을 때 우리는 가방에 든 옷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보물인 기쁨과 슬픔, 갈등과 축하의 시간들, 그리고 몇 년 동안 그곳에서 겪은 모든 것을 마음속에 품고 나왔다. 비록 물질적인 것은 모두 빼앗겼지만,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이러한 것을 가져갈 수는 없었다. 이로 인해 나는 고요한 기쁨으로 충일하고 마음에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

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소피와 그의 남편 크리스천은 희귀병으로 두 아들을 잃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눈이 멀고, 그 다음엔 정신이 쇠약해졌다. 두 아이는 몇 년 차이를 두고 모두 침대에 죽었다. 소피는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끊임없이 질문이 떠올라 괴로웠다. 그러나 점차 그들은 침묵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믿음과 평화를 발견하였다.

“나는 계속해서 자신에게 물었다. 왜 하느님이 우리에게 이 끔찍한 시련을 보내시는가? 때때로 절망이 너무나 커서 참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이는 심지어 우리가 하느님을 향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내적으로 고요해지면서, 나는 내 관심과 기도가 너무나 작고 개인적인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크리스천과 나는 우리 자신을 위한 필요들 주

위에서 맴돌며, 바로 이웃집에 역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음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우리는 또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최근, 소피는 남편을 암으로 잃고,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셋째 아들을 전기 사고로 잃었다. 하느님은 분명히 그녀를 시험하셨다. 그러나 그녀는 고통을 통해서 내적으로 고요해지는 법과 “여기 이 땅에서 우리를 구속하는 모든 것들을 떠나보내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이를 통해 그녀는 하느님께 자신을 내어맡기게 되었고, “하느님이 내 마음 안에 충만하도록 함으로써, 내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했다” 고 한다.

“이제 내 인생의 끝이 가까워지고 보니, 침묵은 내게 더욱 중요하게 느껴진다. ‘너희는 고요하여 내가 하느님임을 깨달아라.’ (〈시편〉 46: 10)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느님이 우리를 완전히 채워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 내어맡김

어려움 때문에 풀이 죽거나 마음을 돌려서는 안 된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대의는 아주 위대하기 때문에, 개 개인의 연약함이 그것을 파괴할 수는 없다. 나는 오직 한 가지를 여러분께 부탁한다. 자신에 대해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다. 자신이 세운 계획이나 목표로부터 자유로워져라. 그것들이 당신을 너무 많이 점령하고 있다. 꽃이나 새가 그러하듯이, 자신을 태양과 비, 바람에 내어맡기라. 여러분을 하느님께 내어맡기라. 오로지 한 가지만을 소망하라. 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느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그리고 하느님의 본성이 드러나기를. 그러면 모든 것이 잘될 것이다.

—에버하르트 아놀드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동기를 분별해 보며,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속에 막혀 있던 질문을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 이 모든 과정은 평화롭지 못함의 뿌리를 살피는 데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춘다면, 그것은 죽음이다. 내면을 향한다는 것은 하느님께로 향하는 것과 같은 것

이 아니다. 일단 자신의 문제를 숙고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맡기고 나아가야 한다. 이것을 빨리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빨리 평화를 깨닫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마치 거울을 보듯이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긴장하며 산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내면 상태를 그리 의식하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긴장한다. 왜냐하면 오랜 상처를 놓아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끓어오르는 분노, 또는 이루지 못한 소망이나 다스리지 못한 좌절을 안고 산다.

우리 공동체 식구인 위니프레드 힐텔은 외아들을 사산한 뒤 한동안 깊은 슬픔에 빠졌다. 그녀는 이 일을 놓아버리지 못하고, 틀림없이 자신이 뭔가 잘못해서 사산을 한 것이라고 고집했다. 주치의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확신을 시켜줘도 소용없었다. 몇 년이 흘러서야 그녀는 자신을 고문하는 일을 그만둘 수 있었다. 잘못을 저질렀을 거라고 상상한 모든 일에 대해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하나 털어놓고 얘기하면서 자책감에서 벗어난 것이다.

위니프레드가 겪은 오랜 내적 갈등에서, 많은 사람이 앓고 있는 평화롭지 못함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바로 비극이 자기 탓이라며 책임을 떠맡으려는 시도이다. 객관적으로 죄를 지었든 아니든 간에, 비극을 해결하는 열쇠는 내어맡김surrender이다. 겸손은 덕이다. 그러나

자기 비난은 그렇지 않다. 자기 비난은 치유를 가져오지 않으며,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자기 반성으로 이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이에게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평화롭지 못한 사람도 있다. 가정 상담가로 일하면서, 나는 이것이 가정에서,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얼마나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는지를 보았다. 많은 가정에서, 평화롭지 못함의 많은 부분은, 특히 십대 후반 또는 어른이 된 아이와 부모 사이에 평화롭지 못함은, 부모가 자녀를 놓아주고 그들의 미래를 하느님의 손에 맡긴다면 해결된다. 선생님이었던 내 어머니는 학부모들에게 늘 “여러분이 자녀에게 주게 되는 가장 큰 피해는 그들을 여러분 자신에게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들을 놓아주세요. 그들을 하느님과 맺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감정의 응어리는 또 집 밖에서, 특히 직장이나 교회 그리고 사회 조직에서 긴장을 일으킨다. 다른 이에게 간섭하고 충고하고 비난하는 경향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기진맥진하게 되고, 그들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의 삶이 괴로워진다.

아마도 평화롭지 못함의 가장 흔한 원인은, 단순히 보면 우리의 완고함, 즉 자신의 삶을 지배하려는 우리의 고집스러움일 것이다. 자신이 직접 자신의 삶을 이끌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느님



의 여지가 없어진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평화를 원한다면, 일이 잘되어 갈 때에도 또 힘겨울 때에도 그 분이 이끄시도록 해야 한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라고 기도할 때의 뜻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나는 글쓰기나 강연과 관련하여 몰리 켈리Molly Kelly를 종종 만나왔다. 그녀는 한 사람의 어머니이자 작가, 대중 강연자로, 십대의 성성에 대해 가장 뛰어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여정에 대해서도 가치 있는 통찰을 준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데 있어 굴복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해준다.

“나는 5남 2녀의 가톨릭 가정에서 자랐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우리를 매우 사랑하셨다. 모든 것이 항상 원만하지는 않았지만, 사랑이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 주었다. 나는 대학에 가서 내 인생의 사랑인 짐을 만났는데, 그는 조지타운 대의 멋진 젊은 의대생이었다. 나는 대학 2학년 때 짐과 사귀기 시작해 졸업한 다음해에 결혼했다. 여러 사람들이 말하듯, 우리의 결혼도 하늘이 정해준 것이었다. 그는 나를 사랑했고, 나도 그를 사랑했다. 서로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 가정의 입안자가 되시도록 결정했다.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풍성한 은총을 베푸셨다. 우리는 11년 동안 여덟 명의 자녀를 얻는 축복을 누렸다.

그러나 평화에 대해서는 어떤가? 평화라는 말을 생각할 때, 나는 먼저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말을 잘못 사용하는지를 떠올린다.…… 22년 전의 어느 날,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짐과 나는 가장 친한 벗이던 세 부부와 주말 여행을 떠났다. 짐의 병원 일정에다가 여덟 명이나 되는 어린 아이들 때문에 어디를 간다는 게 쉽지 않았다. 그래서 포코노스에 있는 겨울 휴양지에서 주말을 보낼 생각에 매우 흥분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내 존재의 모든 세포에 스며들어 몇 년 동안이나 머물며 나를 불안과 슬픔 속으로 내몬 한 사건을 말하고자 한다. 그 사건을 겪음으로써, 비로소 나는 하느님께 나아가게 되고, 평화와 기쁨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때 나는 썰매 경주장 정상에서 친구들과 잡담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사면의 맨 아래에서 소동이 일어난 것 같았다. 방금 전에 짐이 썰매를 타고 언덕을 내려갔다. 하지만 짐을 보고 있지 않아서 그 소동이 짐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지 못했다. 몇몇 사람이 우리에게 손짓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의아해졌다. 그때 누군가가 짐이 다쳤으니 빨리 내려오라고 소리쳤다. 나는 몇 번이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언덕 아래로 달려갔다. 도착해서 보니 사람들이 짐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이 옆으로 물러서서 내가 들어갈 공간을 내주었고, 나는 짐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반半의식 상태였고, 출혈이 심했다. 결국 짐은 죽었다.

나는 망연자실했다. 짐은 내게 최고의 친구였고, 잠자리에서 다정한 이야기를 나누는 남편이었으며, 아이들의 아버지였고, 함께 우리의 꿈을 일구어가는 이였다. 나는 짐이 없는 인생을 상상할 수도 없었다. 집으로 가서, 이미 소식을 전해들은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안아주던 일을 잊을 수 없다. 맏이인 짐은 열두 살이었고, 막내인 댄은 생후 14개월이었다. 큰 아이들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서로를 붙들고 슬퍼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몰랐다. 우리 집은 사람과 소리,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음식으로 넘쳐났다.(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긴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음식을 가져왔다.) 하느님은 자비로우셔서 나를 가족과 좋은 친구들로 감싸주고 보호해 주셨다. 나는 흘러넘치는 사랑에 감사했다. 그러나 상처가 너무 깊어서 누구에게도 고맙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 짐이 다친 것처럼 나도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있었다. 아무도 내 상처를 치유할 수 없었다. 상처는 스며들어서 몇 년 동안이나 나를 괴롭혔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만큼은 계속할 수 있었다. 내가 아이들을 끄찍이 사랑하기도 했거니와, 아이들을 초라하게 양육해서 짐에 대한 기억을 불명예스럽게 하지 않겠다고 내 자신에게 다짐했기 때문이었다. 아직 기저

귀를 차야 하는 아이가 둘이나 있었다. 나머지 아이들은 거실에서 미식 축구도 하고, 내 침대 쿠션으로 장난감 집을 만들기도 하고, 내 시간과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이런저런 요구를 하기도 했다. 내게는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은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하루하루가 힘겨웠다. 잠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잠이 들면 잠시나마 짐이 죽었다는 것을 잊을 수 있었다. 나는 인내심이 부족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말할 수 없이 외로웠다. 내가 외로움과 홀로 있음의 차이를 깨닫게 된 것은, 시간이 흘러 평화가 찾아왔을 때였다. 나는 여전히 외로움이 두렵다. 그러나 이제 홀로 내 자신과 하나님과 있는 때를 소망하게 되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얼마 후, 몰리는 남편이 큰 관심을 보이던 낙태 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짐은 모든 생명의 신성함을 믿는 가톨릭 신앙을 지닌 의사로서, 로 대 웨이드Roe v. Wade(미국 내 낙태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3개월 이전에는 낙태할 절대적인 권리가 여자에게 있다고 판결했다.—웁킨이) 판결에 명백히 반대했다. 몰리도 비록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짐과 같은 생각이었다.

“나는 전에 사람들 앞에서 말해본 적이 없었다. 이제 그렇게 하려니 겁이 나 죽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스

스로에게 말했다. ‘너는 짐의 죽음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았잖아.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뭐 얼마나 힘들겠어?’ 우선 지역의 가톨릭 고등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몇 년 안 가 꽤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게 되었다. 오후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 집에 있으려고 일정을 조정하기도 했다.

친구들은 내게 강연을 줄이라고 충고했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강연이라는 선교로 부르셨다고 느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다. 오히려 뭔가를 드러야만 했다. 그때 비로소 나는 드러야 하는 것은 바로 나임을 깨달았다. 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맡겨야만 했다. 즉 하나님께 굴복해야 했던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다.

나는 통제하는 것을 좋아했다. 여덟 명의 아이들이 어머니로서 가정이라는 배를 빈틈없이 운영했다. 장을 보고, 저녁을 짓고, 옷을 빨고, 숙제를 도와주고, 놀거나 운동을 하러 나갔다. 나는 가정과 학교의 수장首長이었다. ‘굴복’이라는 단어는 내 사전에 없었다.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것이 포기를 의미하기보다는 ‘내어맡김’을 뜻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내 통제를 하나님께 내어맡겨야 했다. 내 불안과 외로움, 압도된 내 존재, 심지어 내 아이들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맡겨야 했다. 내 삶의 각 영역에서 이렇게 하자, 거의 동시에 실제적인 평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몰리는 “내가 온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들” 이라고 부르는 백만이 넘는 십대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부모들에게 강연을 해왔다. 최근에는 로마에서 6천 명의 사제들이 모인 데서 강연을 했고, 캘리포니아에서 50명의 추기경과 주교들 모임에서 강연을 했다.

“내 일정이 너무 많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 일정들에 짓눌리지 않는다. 내 평화는 깊어졌다. 오랜 시간에 걸쳐 고요함이 자리 잡아 가는 듯하다. 왜냐하면 꾸준히 하느님에 대한 내어맡김을 갱신해 왔기 때문이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하느님이 내가 하는 것을 원한다고 생각할 때, 강연 약속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할 수 없을 때는 거절한다. 내가 항상 옳은 것일까? 나는 의심스럽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느님께 드린다면, 때때로 실패하더라도, 하느님은 평화라는 선물을 결코 거두어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참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은 오직 내어맡김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전쟁에서 행복은 잃어버림과 포기함을 뜻한다. 하느님께 행복하는 것은 승리하는 것이며, 당신의 인생을 그에게 내어드리는 것이다. 나는 매일 미사를 드리며 하느님께 요청한다. 그날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자리에서 하느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린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하느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한다. 그러나 이어서 나는 오직 하느님만이 볼 수 있는 나의 백기를 꺼내들고 앞뒤로 당당하게 흔들며, 내가 오늘도 다시 한 번 하느님의 뜻에 항복할 것임을 고백한다. 내 영적인 삶을 굳건히 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훈련이다. 그러면 하느님은 나를 믿으며, 언제나 나에게 그의 기쁨과 평화를 선물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녹초가 됐다고 느낄 때조차도 용감하게 분투한다. 왜냐하면 하느님 앞에서 경계를 내려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아무리 대가가 많이 들더라도 고집스럽게 자신의 인생을 조종하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신을 속박하고, 그 다음엔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시간을 소비한다. 일정을 조정하고 일의 우선순위를 가리느라 애쓴다.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가정에서는 소박하게 살며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직장에서는 참을성 있게 행동하려고 노력한다. 하루가 끝나는 순간에도 이들에게 진정한 평화는 없다.

최근에 어떤 이가 내게 어떻게 매일같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목사님이 돌보시는 모든 영혼들을 걱정하다 보면 미칠 지경이 되지 않나요?” 목

회자로서 섬긴다는 것은 언제나 힘든 일이고, 2,500명이 모이는 교회의 선임 장로로서 내가 부적합하다고 느낄 때도 많다. 고맙게도 나는 열둘 혹은 더 많은 동료 목회자들이 내가 교인들을 잘 인도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고, 또 30년이나 나와 함께 한 충직한 아내도 있다. 그럼에도 근심 때문에 마음이 흐려지는 날들이 있다. 때때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다.

바로 이런 순간이다. 평정을 잃어버릴 것 같은 크나큰 위험을 느낄 때, 하느님은 우리에게 내적 확신과 평화를 주실 수 있다. 우리가 하느님께 향한다면 말이다. 일단 우리의 문제와 그 문제를 우리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를 내려놓기만 하면, 아무리 높은 장애물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구약 성서의 〈시편〉에서 약속받았다. “그대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그분이 그대를 지원할 것이다.” 현대인의 마음에는 이 일이 너무 간단하고 너무 좋아서 사실이라고 믿기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이 언제나 이루어주신다는 제안이다.

19세기 후반에 ‘종교 사회주의의 창시자’이며 큰 교구의 목회자였던 크리스토프 프리드리히 블룸하르트 Christoph Friedrich Blumhardt는, 아내 에밀리가 근심에 쌓여 있을 때도 매일 밤 평화롭게 잠자리에 들었다고



한다. 교구민을 위해 기도하고는 몸을 돌려 곧바로 잠에 빠지는 남편의 능력에 마음이 괴로워서, 에밀리는 남편에게 그 비밀을 물었다. “내가 걱정하여 교구민의 안녕을 도와야 할 정도로 하느님이 무기력하단 말이에요?” 하고 그가 대답했다. “매일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하느님께 넘겨드리는 순간이 있소.”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우리의 힘은 보잘것없고 우리의 해결책은 온전하지 못하다. 굴복한다는 것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느님의 위대한 능력을 인식하는 것이며, 그분이 우리 삶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드리는 것이다.

“내어맡김은 때때로 뒤로 물러서서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느님의 나라는 단지 우리의 노력만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시야조차도 넘어서 있다. 우리는 우리네 인생에서, 하느님의 작품인 웅장한 계획의 아주 작은 부분을 이루어갈 뿐이다.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완성된 것은 없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 하느님의 나라는 언제나 우리를 넘어서 있다는 것이다. 어떠한 선언도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는 없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표현하는 기도는 없다. 어떠한 고백도 완전하지는 않다. 아무리 많은 목회적인 돌봄도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 교회의 선교를 완성할 수 있는 사업은 없다. 모든 것을 포함하는 목표와 목적의 조합은 존재하

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언젠가 자라게 될 씨앗을 심는다. 이미 심겨져 있는 씨앗이 미래의 약속을 담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씨앗에 물을 준다. 우리는 앞으로 발전이 필요한 곳에 기초를 놓는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어떤 해방감을 경험한다. 이러한 깨달음으로 우리는 작은 일을 정성껏 할 수 있다. 그 일은 불완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일은 시작이며, 길을 떠나는 한 걸음이며, 주님의 은총이 들어가서 나머지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이다. 우리는 마지막 결과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 도편수와 일꾼의 차이이다. 우리는 일꾼이지 도편수가 아니며, 목자와 양이지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예언자이다.” (오스카 로메로의 글로 추정됨)

## 기도

기도의 효과는 하느님과의 합일이다. 어떤 이가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 그는 원수로부터 분리된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순결을 지키고, 화를 다스리며, 허영을 없앨 수 있다. 기도는 상처를 잇고, 시기를 극복하며, 불의를 이겨내고, 죄악을 보상하게 해준다. 기도를 통해서 육체는 건강해지고, 가정은 행복하고 평화로워지며, 사회는 든든하고 질서정연해진다. 기도는 여행자의 방패가 되고, 잠자는 이를 보호하며, 불침번을 서는 이에게 용기를 준다. 기도는 당신이 피곤할 때 새 힘을 주고, 슬퍼할 때 위로를 줄 것이다. 기도는 기뻐하는 이들의 기쁨이요, 피로워하는 이들의 위로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친밀한 교제요, 보이지 않는 것을 관조하는 것이다. 기도는 현존하는 것들 속에 있는 기쁨이요, 앞으로 올 것들의 알맹이다.

—넛사의 그레고리Gregory of Nyssa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때가 있다. 우리 주위에 또는 우리 안에 있는 평화롭지 못함의 근원으로부터 초탈하기 위하여 단순함과 침묵을 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히 하느님만이 채울 수 있는 어떤 공간에 남겨져 있는지 모른다. 만약 하느님이 초대받지 못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분이 들어오도록 간청해야 한다.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인 〈시편〉 130편의 한 절 “깊은 구렁 속에서 당신을 부르오니”는 우리가 궁핍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준다. 이 구절은 언제나 하느님을 향해야 한다는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는 언제나 깊은 곳에서 신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 위에 확고하고 안전하며 강한 분으로 있다.

유대인 철학자인 마르틴 부버Martin Buber는 “기도할 때마다 마치 절벽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데 사나운 비바람이 몰아쳐 곧 떨어져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을 상상하면서 부르짖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부버는 이어서 “누구든지 하느님께 눈과 마음을 들어올리고, 그분에게 부르짖지 않고서는 그 어떤 권고나 피난처, 그리고 평화를 찾을 수 없다. 언제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세상에서 엄청난 위험 속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부버의 표현은 극적이지만 과장된 것은 아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를 보면, 대중 매체의 촉수가 너무나 널리 퍼져 있어서 유명 인사의 소식이나 추문 또는 비극적

종말에 대한 소식이 순식간에 수백만의 사람을 잡아끈다. 이런 문화에서 개인은 군중을 따르려는 유혹에 쉽게 빠진다. 니체는 백여 년 전에 이것을 보았다. 그는 “공동체가 통속적인 것을 만들어낸다”는 격언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대중의 가치가 너무 강해서 아무리 강한 양심이라도 죽일 수 있는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했다.

적극적인 기도 생활이 없다면, 우리는 개성의 힘을 잃고 사회학자들이 군중 심리라고 부르는 것에 굴복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다른 이들에 대한 두려움, 야망, 그리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야 한다는 욕구의 먹이가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끊임없는 교류와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우리의 내적 생활로 밀려오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익사당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이들이 기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스스로 생각하는 일조차 하지 못한다. 하느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은, 단지 (니체를 다시 인용하자면) “온갖 종류의 서로 다른 집단의 영향과 사회적 요구에 끊임없이 순응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기도는 마음이라는 고요한 불꽃의 들레를 보호하는 갑옷으로, 마음의 습격을 막는 최고의 방어책이다. 아니 그 이상이다. 기도는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하느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수행이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집중하게 되고, 평화의 근원으로 향할 수 있다.

나는 기도 수행이야말로 내 삶에서 평화로움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임을 알게 되었다. 하루하루의 삶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바로 기도(또는 기도의 결여)인 것 같다. 본회퍼가 《옥중서신 Letters and Papers from Prison》에서 지적한 것처럼, 시간 낭비나 유혹에 대한 굴복, 일에 있어서 게으름이나 무기력, 생각이나 다른 이와 의 상호 작용에서 단련이 부족한 것은 기도를 게을리 하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기도가 형식을 갖춰야 할 필요는 없다. 아내와 나는 자연스럽게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끝낸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매일 저녁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한다. 이보다 더 자주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고, 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어떤 이는 기도서를 사용하며, 어떤 이는 말을 하며 기도하고, 어떤 이는 말을 전혀 하지 않고 기도한다. 이 책의 앞부분에서 언급한 블룸하르트 목사는, 매일 저녁 하나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기 위해 창문을 열었다고 한다.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관례가 아닌 진실한 고백이기만 하다면,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딘가에 기도를 위한 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

한 것이다.

비슷한 말이 성서에도 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는 명령이다. 하느님을 찾는 많은 이에게 이 생각은 아주 명료하다. 물리 켈리는 “예전에 나는 아침이나 잠 자기 전과 같이 하루 중 특정한 때에 하느님과 대화하려고 기도를 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기도가 하루 온 종일 하느님과 대화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공항을 가로지르거나 슈퍼마켓 통로를 걸으면서 기도한다.”

다른 이들에게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장애물이다. 어떻게 사람이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가? ‘쉬지 않고’ 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브루더호프의 오랜 식구인 제임스 알렉산더는 이에 대해 여러 해 동안 깊이 생각했다.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지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을 이해하게 된 것은, 기도를 삶의 방식으로 이해하면 서부터다. 즉 반복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변치 않는 태도로 여기게 되었을 때이다. 《순례자의 길 The Way of a Pilgrim》(19세기 후반 러시아의 한 농부가 참된 기도를 찾아가는 영적 여정을 기록한 책—옮긴이)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수 기도’, 즉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는 기도도 도움이 되었다. 우리가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변함없이 예수 기도를 하는 것이라는 말도 읽었다. 그러

나 예수 기도는 단지 말의 조합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이다.”

19세기 시인인 제라드 맨리 홉킨스 Gerard Manley Hopkins도 거의 같은 말을 한다. “단지 기도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 노동 또한 그렇다. 모루를 내리치는 일, 들보를 켜는 일, 벽을 하얗게 칠하는 일, 말을 몰거나 청소하고 빨래하는 일, 이 모든 노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성껏 행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교회에 잘 다니는 것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는 일이지만, 감사하고 절제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두 손을 모아 기도를 올리는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만, 손에 거름을 든 남정네와 구정물 통을 든 여인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하나님은 너무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다고 뜻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 그렇다면, 형제들이여, 즐겁게 살아가라.”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게 기도할 것이다. 또 질병이나 나이 들 또는 위기 등을 통해 환경이 바뀌면 기도 생활도 바뀔 것이다. 우리 교회 교인인 더그 무디는 젊은 시절 기도에서 별 의미를 찾지 못했다. 더그는 자신이 속한 주류 교단의 위선에 분노했고, 그러면서 점점 다니던 교회와 마찰을 빚게 되었다. 특히 군복무 문제로 그



러했다. 그는 양심적으로 전쟁을 반대했다. 진주만 폭격 사건 이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동기와 선생님들은 그의 징집 거부를 칭찬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 그를 징집을 기피한 중죄인이라고 재판하고 판결을 내린 판사는 그가 다니던 교회의 교인이었다.

“나는 낡아빠진 시골 감옥에 수감되었다. 사면받니가 우글거리고, 음식은 형편없고, 샤워기는 고장 나고, 옷도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 운 좋게도 어머니가 비누와 갈아입을 속옷 한 벌을 전해줄 수 있었다. 그때가 내 수감 생활에서 처음으로 가장 힘든 때였다.

감옥에서 《친우회 Fellowship》라는 잡지를 읽었는데, 내가 징집영장을 거부하도록 용기를 주었던 메노파 mennonite(16세기 종교 개혁의 급진적 개혁 운동인 재세례파에서 발생한 프로테스탄트 교회—웁긴이) 신도 부부가 입장을 바꿨다는 기사를 보았다. 나는 화가 났다. 그러나 지루함과 불결함, 그리고 한갓 숫자로만 취급당하는 수모까지도 그다지 힘들지 않게 견뎌내면서, 나는 서서히 이상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 바로 옆 침상에 있는 배고픈 수감자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때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토마스 켈리가 ‘영원한 현재’ 속에 산다고 말한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수감자들은 석방될 때까지 남은 시간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면서 영원히 미

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었다. 석방을 위해서 혹은 다음 식사나 영화, 잠잘 기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순간순간을 살기 시작하면서 나는 감옥에서 평화로워질 수 있었다.”

몇 년 동안 더그는 개인적으로 힘겨운 투쟁의 시기를 겪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그 과정에서 기도의 새로운 의미를 깨달았다. “무슨 방법을 써도 낙담과 우울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기도가 지속적인 평화와 살아가는 목적의 토대가 되었다. 기도는 단순하다. 사랑으로 하느님과 이웃에게 향하는 것이다.” 노년에 접어든 더그는 지금 자신에게 기도 생활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아내와 함께 혹은 나 혼자서 아침과 정오, 잠자기 전과 밤에 깨어 누워 있을 때 드리는 정기적인 기도는 나에게 생명줄이 되었다.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이런 저런 실패나 유혹, 낙담, 의기소침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것도 기도이다. 기도를 늘 말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루 내내 고요히 하느님을 향하는 것, 하늘을 한 번 바라보는 것, 아프거나 고통이나 투쟁을 겪는 누군가를 생각하며 한두 번 침묵의 순간을 갖는 것도 기도이다. 기도는 그날의 다양한 관심과 질문을 숙고하는 것이기도 하고, 내 잘못을 볼 수 있도록 또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빛을 요청하는 것이기

도 하다. 나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내 형제자매들에게 더 힘차게 헌신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이 모든 것 속에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예수의 평화가 있다.”

칼 바르트Karl Barth는 기도 중에 두 손을 움켜쥐는 것은 세상의 무질서에 맞서 일종의 반격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쓴 적이 있다. 나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기도 생활은 어떤 분리된 영역에 존재할 수가 없으며, 우리의 기도는 염원이나 의도 이상의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이 분명하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행동이 없는 기도는 위선이다. 행동이 따르지 않더라도 기도를 통해 세상에 뭔가 영향을 끼치려고 한다면, 기도는 자신만을 위해 행복을 비는 간청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더그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다른 이를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준다. 초기 기독교인과 박해받은 교회, 순교자들의 역사에서도 똑같은 사상이 있다. 나아가 예수가 명령한 것처럼, 우리를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더욱 급진적인 사상도 있다. 우리는 험담이나 비방으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원수를 사랑하자고 공언만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거류자Sojourners》라는 잡지(믿음, 정치, 문화를 다

루는 미국의 진보적 그리스도교 잡지로서, 영성과 사회 변화를 위한 운동을 추구하고 있다.—웬진이)의 창시자인 짐 월리스 Jim Wallis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적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의 관점만, 즉 자신의 정당함만 보게 되고 적들의 시각은 무시하게 된다. 기도는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구별을 무너뜨린다. 다른 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당신은 그를 원수로 만들게 된다. 반면에 기도는 적을 친구로 만든다. 기도하면서 원수를 자기 마음에 데려오게 되면, 폭력을 낳는 적대감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기도는 원수를 우리 가까이 데려옴으로써 원수를 보호하기까지 한다. 그리하여 기도는 원수를 미워하고 두려워하라는 선전과 정책을 뿌리째 뒤흔든다. 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순화시키는 기도는 보배롭기까지 하다. 원수를 위한 뜨거운 기도는 전쟁과 전쟁을 일으키는 감정에 커다란 장애물이다.”

전쟁이나 국가의 위기 상황에 수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지만, 이와 같은 정신으로 기도가 드러진 적은 거의 없다.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그렇다. 걸프전 때 있었던 일 하나가 기억난다. 1991년 초 미국이 이라크에 대해 본격적인 지상 공격을 시작한 직후, 부시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걸프 만에 있는 ‘우리의 장병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호소했다. 부시

대통령은 “하느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 라는 뜨거운 기도로 연설을 마쳤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별 생각 없이 멈추어 서서 애국의 의무를 다했을 것이다. 그러나 틱낫한이 지적한 대로, 아마도 바로 그 순간에 이라크에서는 똑같은 수의 이슬람교도들이 알라에게 절하며 남편과 자식을 위해 기도를 올리고 있었을 것이다. 하느님은 어떤 나라 편을 들어야 할지 아셨을까?

틱낫한은 기도에 대해 이런 얘기를 했다.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자신의 요구를 하느님이 들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소풍을 가려는 사람은 하느님께 맑고 쾌청한 날을 요청할 것이다. 동시에 농부는 정반대로 비가 많이 내리길 바라는 기도를 드릴 것이다. 만약 날씨가 맑다면 소풍 가는 이들은 ‘하느님은 우리 편이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비가 온다면 농부들 쪽에서 하느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방식이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는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화로워야 한다. 그대가 평화로운 마음을 품을 때 그대는 하느님의 어린이이다. 그러나 평화의 일꾼 중 많은 이들이 평

화롭지 못하다. 여전히 화와 욕구 불만에 쌓여 있고, 따라서 그들의 일 또한 진정 평화롭지 못하다.

평화를 계속 지켜가려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의 형제자매들과 평화롭게 지내야 한다.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애쓴다면 이는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당신이 ‘사담 후세인은 사악하다. 그가 계속해서 사악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고 하면서 그가 사용한 것과 똑같은 수단을 쓴다면, 당신은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만다. 악을 악으로 극복하려고 애쓰는 것은 평화를 이루어가는 길이 아니다.

자신의 소풍만을 위해 기도하고 비가 필요한 농부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예수가 가르친 것과 정반대로 행하는 셈이다. 예수는 ‘그대들의 원수를 사랑하고, 당신들을 저주하는 이들을 축복하라’ 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화를 깊이 들여다본다면, 원수라고 생각한 사람 또한 고통받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곧 그를 받아들이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예수는 이것을 ‘원수를 사랑하기’ 라고 불렀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니다. 원수라는 생각은 사라지고, 그 대신 우리의 긍휼이 필요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해가 생겨난다.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은 때로는 생각보다 쉽다. 그러나 우리는 사

량을 계속 실천해야 한다. 성경을 읽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 신뢰

의사를 신뢰하라. 그리고 고요와 평안 속에 그가 처방한 약을 먹으라. 왜냐하면 비록 그의 손이 무겁고 굳어졌다 해도, 보이지 않는 분의 부드러운 손길로 인도되기 때문이다. 또 그가 가져오는 잔은, 비록 그대의 입술을 태울지라도, 조물주가 그의 거룩한 눈물로 적신 진흙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칼릴 지브란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신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배웠다. 이 말은 어느 정도 진실이다. 신뢰하는 일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포함된다. 신뢰는 의심이라는 이득을 다른 이에게 넘겨주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기꺼이 자신이 상처받는 것을 감수하는 태도를 요구한다. 또 신뢰는 우리의 안전이 더 높은 전능자에게 있음을 아는 것이며, 우리의 평화가 모든 것을 결합시키는 우리의 능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다. 신뢰는 믿음 안에서 하느님께 굴복하는 것이다.

대중적인 견해와는 반대로, 신뢰는 나약한 순진함이 아니다. 신뢰는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양 삶을 평온하고 행복하게 지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한 ‘신뢰’는 오늘날의 환경에서는 자멸하고 말 것이다. 그렇다고 근심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도 우리를 힘들게 하기는 마찬가지다. 메노파 작가인 다니엘 헤스Daniel Hess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많은 노동자들이 건강 보험의 혜택을 받고, 주 40시간 노동으로 여가 시간이 생기고, 월급을 받아 어느 정도의 풍요를 맛보고, 과학이 발전하여 좀더 안전한 도구를 만들고 자연의 변덕에 대처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걱정하고 있다.

사람들은 체질화된 바쁨, 무엇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중독이 가져오는 공포, 화학적 불균형으로 인한 우울함, 너무 많은 주인과 너무 많은 봉사과 이루지 못한 욕구들 때문에, 위가 딱딱해지고 손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하며 살아간다. 많은 이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걱정하고, 불화로 답답해하며, 배신 때문에 움츠러든다. 법적 소송, 불공정 경쟁, 감원, 적대적 기업 인수 등 너무도 사실적인 두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예수 자신이 우리에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온순하라고 충고했다. 반면에 또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는 우리를 안심시키듯 다음과 같은 단순한 질문을 통해, 그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고 걱정해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환기시킨다.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한 시간인들 더 늘일 수 있겠느냐?”

슬프게도, 모든 인생살이에서 불가피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배반과 험담과 뒷말 때문에, 많은 이들이 신뢰라는 모험을 감행하지 못한다. 최근에 우리 공동체의 식구가 된 사업가 클레어 스토버의 말이다.

“불신은 평화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제법 큰 장애물이다.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 의심의 벽을 쌓는 것으로 끝난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이용하거나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면, 우리는 단지 그 특정 상황 동안만이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해서 최악의 경우를 추정하며 비약한다. 신뢰의 사촌인 ‘상처받기 쉬움’을 연약함의 표지로, 어리석고 지나치게 순진한 어떤 것으로 여긴다. 다른 이들을 신뢰하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여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이다. 사랑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보호요 가장 든든한 안전이다. 불신할 때는 사랑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없다. 우리

자신을 하느님과 서로에게서 갈라놓게 된다.”

어느 친밀한 집단들처럼 브루더호프도 가정과 가정이 가깝고 식구들의 일상 생활이 잘 보이기 때문에, 험담이나 잡담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파문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는 75년 전에 시작할 때부터 ‘터놓고 말하기’라는 서로간의 약속을 통해 참된 신뢰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공동체의 초기 지도자였던 내 할아버지의 말이다.

“사랑 외에는 어떤 법도 없다. 사랑은 다른 이들을 보며 느끼는 기쁨이다. 그렇다면 그들에 대한 화는 무엇인가? 사랑의 말은 형제자매의 면전에서 우리가 지닌 기쁨을 전달한다. 짜증나거나 속상한 채로 다른 사람에게 대해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형제자매에 대해 혹은 그들의 개인적 특성에 대해 험뜯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거나 빗대어 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그들의 등 뒤에서 말해서는 안 된다. 어떤 가족에 대한 잡담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침묵의 세월이 없으면 충실이 있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존재할 수 없다. 직접적인 표현만이 가능한 유일한 길이다. 직접적인 표현은,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

에게 우리가 베풀어야 할, 형제 또는 자매로서의 자발적인 봉사이다. 다른 사람에게 직접 표현하는 솔직한 말은 우정을 깊게 하고 원망을 낳지 않는다. 두 사람이 빨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만 그들이 신뢰하는 제삼자가 개입하면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가장 크고도 깊은 차원에서 그들을 하나되게 하는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

수십 년 전에 우리 공동체 식구가 된 엘렌 카이더링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녀가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가 얼마나 흥분을 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난다.

“공동체에 처음 와서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뒤에서 이야기하는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 어깨에서 엄청난 짐이 벗겨지는 것 같았다. 내가 살던 곳에서는 뒷말이 하나의 삶의 방식이었다. 다른 이들도 그랬지만, 나도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내 등 뒤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걱정을 하며 살았다. 그러나 그런 염려를 진심으로 세밀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지독한 짐인지, 세월이 흐를수록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이가 내게서 뭔가 잘못된 점을 느꼈을 때 나에게 와서 말할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마치 내 발밑에 새로운 대지가 생긴 것과 같다. 그 뒤로도 나는 직접적으로 말하는 데 실패하는 일이 잦기는 했지만, 그런 가운데 신뢰는 쌓여갔다. 되돌아와서 다져지는 견고한 어떤 것 말이다.”

우리 마음의 평화는 너무나 자주 깨어진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로든—그 이유가 타당하든 아니든—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을 거라고 감히 믿지 못한다. 연약하고 흠이 있는데 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해야 한다. 두려움과 불신으로 인생을 낭비하기보다는 기꺼이 다른 이들을 신뢰하고 또 신뢰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우리를 배신한 사람까지도 신뢰해야 한다.

하느님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일이다. 한 작가가 이런 묘사를 했다. 어떤 여인이 근심과 걱정 에 너무나 허덕인 나머지, 천국에 갔을 때 그녀에게 남겨진 것이라곤 흔들거리는 걱정더미밖에 없었다고 말이다. 우스워 보일지도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고 살아간다. 그 사람들이 신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간에, 하느님은 거기에 계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느님은 우리 마음속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 그분은 또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

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있는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뿐이다.

예컨대 갓난아이나 어린아이를 둔 어머니에게는 이러한 믿음을 갖는 일이 쉽지 않다. 전쟁이나 재난, 테러나 폭력 범죄 등 온갖 무서운 일 때문에 두렵고, 때로는 아이를 낳은 것이 잘한 일인지 회의가 들지도 모른다. 이는 새로운 두려움이 아니다.

나는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던 때에 영국에서 태어났다. 매일 밤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폭탄이 떨어졌다. 가까이 폭탄이 떨어진 적도 두 번이나 있는데, 한 번은 우리 마을에, 다른 한 번은 바로 인접한 마을에 떨어졌다. 그러나 부모님은 폭탄보다 나치의 침공을 훨씬 더 두려워했다. 부모님은 히틀러를 비판한 독일 피난민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치의 침공은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었다. 어머니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크나큰 불안에 휩싸였다. 몇 년 후 아버지는 이 시절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상담하고 있던 부부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우리가 이제 폭격기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지는 않지만, 이 시기는 엄청난 고통과 죽음의 시기입니다. 어린아이를 둔 당신들 같은 부모를 비롯해 많은 이들이, 어느 날 믿음 때문에 고통을 겪거나 죽게 되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나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간청을

드립니다. 당신들이 하느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성서에는 무서운 장면이 많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이 그렇죠. 그러나 그것에도 하느님이 친히 고통받는 모든 이의 눈물을 씻어줄 것이라고 써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오셨음을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 <요한복음> 3장 16절의 전반부) 이 구절을 붙잡으세요. 인류를 구하려는 하느님의 형언할 수 없는 열망을 기억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하느님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서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가장 두려움에 떨어야 할 이들에게 가장 깊은 내적 평온함이 오기도 한다.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나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 죽어가고 있는 사고 희생자 들은 평화롭지 않을 거라고 모두들 여길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영원한 것에 집중하게 된다. 그렇게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여기게끔 만드는 피상적인 관심들은 옆으로 제쳐놓고, 단순한 선택에 맞닥뜨린다. 즉벽에 머리를 부딪쳐가며 피할 수 없는 것을 회피하려고 애쓸지, 아니면 믿음으로 하느님의 손에 자신을 내어맡길지 선택을 해야 한다.

브루더호프의 식구이자 친한 친구인 조지 벌리슨은 천천히 그러나 끈질기게 번지는 암과 4년 동안 싸워왔다. 그가 최근에 내게 이런 편지를 보내왔다. “암에 걸린 사실을 알고, 내 미래가 얼마나 불확실한지 깨닫고 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네. 오직 그렇게 할 수 있을 때에만 내 근심이 사라진다는. 죽음은 모든 이에게 찾아오네.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셈이지. 그러니 이렇게 분명한 일에 집착하는 건 시간 낭비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네. 이것이 진정 중요한 것이며, 이것을 받아들일 때 평화를 누릴 수 있다네.”

또 다른 친구인 무미아 아부자말 Mumia Abu Jamal은 이와는 매우 다른 환경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급진적인 언론인이자 ‘검은 표범 Black Panther’이라는 단체의 창시자인 무미아는, 경찰관을 살해했다는 죄목으로 기소되어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인종 편견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재판이었다. 무미아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자신이 ‘평화로운’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에도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또 이 책에서 평화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어휘들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다. 그렇지만 그는 평온함을 발산한다. 진리의 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위에 희망을 품은 사람처럼. 궁극적으

로 그는 정의가 승리하리라 믿는다. 그는 말한다. “당신이 올바른 일에 전념한다면, 의로움의 힘이 당신을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작가인 데일 오커만 Dale Aukerman은 신뢰의 힘이 평화의 통로임을 또 다르게 증언한다. 앞에서 말한 조지나 무미아처럼, 데일의 평화도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대한 연약한 체념에 뿌리를 둔 게 아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삶에 대한 데일의 사랑은 쇠퇴하지 않았다. 그는 분명히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다.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데일은 무기력해지지도 혼란에 빠지지도 않는다. 더 높은 힘을 믿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강하고 안정되어 있다. 데일의 이야기다.

“1996년 11월 5일, 나는 왼쪽 폐에 10여 센티미터 되는 종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의 검사를 통해 암이 간과 오른쪽 골반 그리고 척추의 두 군데에까지 퍼졌음이 드러났다. 살 날을 두 달에서 여섯 달 정도로 예상하는데, 중간쯤 해서 녀 달 정도 살 수 있을 거라고 했다. 내 사고방식은 놀랍도록 재교육되었다. 몇 달 밖에 살 수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 찾아오는 변화였다.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지고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도 전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매일 아침 나는 오늘이 며칠인지를 생각하고, 하느님이 나에게 또 하루를 주셨음을 생각하곤 했다. 나는 전혀 새로운 마음으로 가



죽과 집과 하느님의 창조물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시간도 곧 끝날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암 진단을 받은 뒤 얼마 되지 않아 세례 의식을 받았다. 그때 나는 하느님께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오지 않았음을 고백했다. 암을 통해 확실히 하느님께 더 많은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내 누이 제인이 치명적인 암에 걸려 열네 살에 죽었을 때, 어머니는 그 일을 하느님의 뜻으로 이해하셨다. 하느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기로 선택했는데, 인간인 우리가 뭐라고 그것에 도전할 수 있겠냐고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떤 이에게는 평안을 준다. 그러나 나는 좀 다르게 본다. 나는 하느님이 암이나 심장병을 보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술 취한 운전자가 길을 벗어나 다른 차와 부딪쳐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세상에는 하느님이 의도하지 않고, 하느님이 원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다……

오히려 하느님은 죽음에 맞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느끼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방식으로, 하느님은 죽음의 힘을 저지한다. 어렸을 때 나는 농업용 마차에 깔려 죽을 뻔한 적이 있다. 몇 년 후에는 비소 중독 때문에 죽을 뻔하기도 했다. 운전을 하면서도 몇 번의 고비가 있었다……

여섯 번의 화학 치료를 받고, 식이요법을 하고, 친구들의 수많은 기도를 받은 후, 나는 다시 컴퓨터 단층 촬영을 했다. 그런데 폐의 종양이 원래보다 4분의 1도 되지 않은 크기로 줄어들어 나타났다. 의사 두 명은 기적이라고 말했다. 놀라운 방식으로, 게다가 의학적 개연성과는 반대로, 하느님은 나에게서 죽음을 보류하고 더 긴 생명을 주셨다.

〈에베소서〉 1장 19절~22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시고 하늘나라에 불러 올리셔서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시는 하느님의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능력’에 대해 쓰고 있다. 하느님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밑에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승리토록 하여 모든 차원의 힘을 지배하도록 하셨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승리를 거둔 정복’과 ‘복종시키는 통치’에 대한 성서적인 상象이다. 죽었다가 다시 일어난 그리스도는 암과 심장병, 에이즈, 치매, 정신분열증, 아동 학대에 대한 승리자이다.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행위, 하느님이 창조한 이 좋은 지구를 파괴하는 행위, 그리고 군비 낭비와 핵무기라는 미친 짓에 대한 승리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미 그러한 것에 승리를 거두었다면, 어째서 그것들이 이렇게 많이 눈에 보이는가 하고

물을 수 있다. 왜 그것들이 이렇게 도처에서 폭넓게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전쟁에는 어느 편이 이길지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전투가 있다. 그 전투 때문에 한 편은 분명히 완전한 승리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 비록 상대편과 전투가 계속되더라도, 상대를 완전히 정복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따름이다.

우리의 희망은 죽음 이후에 영생을 얻는 것을 우선으로 하지 않는다. 신약 성서에 나타난 크고 놀라운 희망은,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하신 주님이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재창조하기 위해 빛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악하고 파괴적인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역사가 바르게 되리라는 희망이다. 인간의 이야기는 하느님이 주시는 결말을 맞게 되리라. 하느님은 어떤 점에서는 인간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지배하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경이로운 새 왕국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의 희망은 우선 하느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완전히 성취되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그 다음 희망은 우리가 그 일에 있어 아주 작은 부분을 맡는 것이다.

나는 어른이 된 후 줄곧 평화에 대한 증언과 평화를 이루기 위한 활동에 깊이 관여해 왔다. 최근 몇 달 동안에는 특히 평화에 관한 구절을 소중히 품어왔다. 그 중

하나가 〈요한복음〉에 있는데, 일어나신 주님이 문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이라는 구절이다. 또 한 구절은 내가 MRI 촬영 장치에 들어갔다 나올 때 생각한 〈빌립보서〉의 구절로,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라는 것이다.

이사야는 ‘주님,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간구한다. 성서적 이해에서 볼 때, 이 완전한 평화는 영혼의 평온보다 더 큰 것이다. 그것은 우리를 조각내고 파괴하려는 모든 것에 굳건히 맞서고 있는, 온전한 삶과 관계들이다. 그것은 우리가 깊은 어둠 속을 걸을 때조차도 우리를 지탱해 주는 선물이다.”

## 용서

한 스승이 제자들에게 물었다. “새벽 어느 때쯤이면 사람이 어둠 속에서 빛을 구별할 수 있겠느냐?” 한 제자가 대답했다. “당나귀와 염소를 구별할 수 있을 때입니다.” 스승은 아니라고 답했다. 다른 제자가 말했

다. “무화과나무와 종려나무를 구별할 수 있을 때입니다.” 역시 스승은 아니라고 답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쯤입니까?” 하고 물었다. 스승이 말했다. “너희가 모든 남녀의 얼굴에서 형제 자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때가 바로 그때이다. 오직 그때만이, 너희는 빛을 본 것이다. 그 밖의 모든 것은 아직 어둠이다.”

—하시딤 이야기

인간의 본성이 어떠하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형제나 자매로 볼 수 있는 능력은 은총이다. 가장 가까운 이들과의 사이에서도 약간의 불만만 생겨도 먹구름이 낄 때가 있다. 다른 이들과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때로는 기꺼이 굴복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먼저 솔직해져야 한다. 오늘은 고요함을 유지하기 위해 겸손이 필요할 수도 있고, 내일은 직면하거나 터놓고 말하기 위해 솔직함이 요구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 만일 우리가 관계 속에서 평화를 찾고자 한다면, 몇 번이라도 계속해서 기꺼이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저마다 이런저런 일로 상처를 받아왔고 또 상처를 입혀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용서해야 하고 또 용서받을 필요가 있다.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평화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용서란 무엇인가? 나는 《일곱 번씩 일흔 번을Seventy Times Seven》이라는 책에서 이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이 책에서 나는 하느님이 주시는 용서와 우리가 서로에게 같은 인간으로서 주는 용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둘은 서로 다르지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하느님이 용서를 통해서 주시는 평화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꺼이 다른 이들을 용서해야 하는 것 같다. 이에 대해 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다.

“하느님은 우리 자신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 더러 다른 이들을 용서하라고 명령한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인생살이에서 중요한 것이다. 더욱이 우리가 죽을 때에 가장 중요하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고 자신에게 상처를 준 이들을 용서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임종 때 덜 고통스러울 것이다.”

용서라는 것은 공평함이나 잘못된 일을 너그러이 봐주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사실 용서는 용서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누군가를 너그러이 봐줄 때 우리는 그의 실수를 가볍게 넘긴다. 자신이 받은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을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를 용서할 때는 어떻게든 그 상처를 떠나보내야 한다. 보복을 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용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도 있다. 그렇지만 화해를 위해 손을 내미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화와 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설령 상처 입은 채로 남게 될지라도, 용서하는 태도를 통해 우리는 누군가를 뒤에서 험담하며 괴로워하는 일을 그만둘 수 있다. 또 바로 다음에 상처입었을 때 다시 한 번 용서를 하려는 결심을 강화시켜 줄 수 있다. 도로시 데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수가 말씀하신 탕자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하느님은 쓸모없는 사람까지도 편을 드신다.…… 독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도 있다. 탕자가 뉘우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다음 토요일 밤에 집을 나가서는 돈을 헛되이 써버렸을지도 모르고, 농사 일 돕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요구했을지 누가 알겠는가. 그 때문에 형이 화가 난 것은 정당한 일이다.…… 예수는 이런 주장을 펴는 이에 게 또 하나의 답을 제시한다. 형제를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 일부러 위로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해답은 있게 마련이다.”

역설적이게도, 인생에서 가장 나쁜 일을 겪은 사람들이 종종 누구보다도 기꺼이 용서를 한다. 나는 사형제 반대 시위에서 빌 펠케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잔인한 살인자에게 할머니를 잃었다. 그럼에도 빌은 할머니를 죽인 십대 청소년과 화해를 구하였고, 마침내 종착점

을 발견했다.

빌의 할머니는 이웃 아이들에게 성서를 가르칠 정도로 사교적인 분이였다. 1985년 5월의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소녀 네 명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몇 구역 떨어진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었다. 그런데 소녀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강도로 돌변하더니 빌의 할머니를 때려서 바닥에 쓰러뜨렸다. 그러고는 물건들을 훔쳐서 낡은 차를 타고 도망쳤다. 바닥에 쓰러진 빌의 할머니는 칼에 찔린 상처들 때문에 출혈이 심했고, 결국 죽게 되었다. 빌은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그 소녀들은 훔친 차로 친구들을 태워주며 기분을 내다가 붙잡혔다. 그리고 재판에 회부되었고, 15개월 후에 선고가 내려졌다. 한 소녀는 34년, 다른 두 소녀는 6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라 쿠퍼라는 소녀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나는 최소한 한 명이라도 사형을 받은 것에 만족했다. 만약 그들이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다면, 법정이 내 할머니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을 것이다. 나는 할머니야말로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폴라가 사형 선고를 받은 지 4개월 후에 나는 사귀던 여자 친구와 헤어졌다. 관계를 되돌리려고 함께 노력했지만 결과는 더 참담해져갔다. 나는 어디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고공 크레인을 운전하다가(나는 베들레헴 철강에서 일하고 있었다), 왜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지에 대해, 그리고 할머니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곧바로 ‘왜죠, 하느님? 도대체 왜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 나라에서 가장 어린 여자 사형수가 된 폴라가 생각났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마음에 그려보았다. 나는 폴라가 사형 선고를 받던 날을 기억했다. 그 애의 할아버지가 법정에서 ‘저것들이 내 손녀딸을 죽이려고 한다’ 고 울부짖던 모습이 떠올랐다. 폴라의 할아버지는 법정 밖으로 끌려나왔고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는 할머니와 그분의 믿음, 그리고 성서에서 분명하게 언급하는 용서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세 구절이 생각났다. 하나는 하느님이 그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대가 먼저 다른 이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구절이었다. 또 한 구절은 예수가 베드로에게 ‘일곱 번씩 일흔 번’ 을 용서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처형되면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구절이다. 폴라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한 소녀가 어떤 여인을 서른 세 번이나 찔렀다면, 그 아이는 제정신이 아니다.

갑자기 나는 그 아이를 용서해야 한다고 느꼈다. 나는 바로 그 순간, 그 장소에서 하느님께 나에게 그 아이를 향한 사랑과 동정심을 주시라고 기도했다. 그 기도가 내 인생을 바꿔버렸다. 나는 더 이상 폴라가 전기 의자에서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사형 집행이 나를 위해서나 다른 그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크레인에 들어갈 때는 좌절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45분이 지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왔다.”

빌은 재판 후 몇 번이나 폴라를 방문했고, 설교가 아닌 자비를 보여줌으로써 할머니의 믿음을 그녀에게 전해주려고 애썼다. 빌은 더 이상 가족들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나눈 거실에 사랑하는 할머니가 피투성이가 되어 누워 있는 모습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 그는 여전히 할머니의 죽음 때문에 고통스럽다. 그러나 그 고통은, 그가 겪어야 했던 쓰라린 고뇌를 다른 이들은 덜 겪게 해야겠다는 결심으로 연결되었다. “내가 그 소녀들을 증오하는 한은 계속해서 그들이 내 인생을 조종했다. 그들을 용서하기로 선택하자마자 나는 자유로워졌다.”

이제 빌은 회복적 정의 운동restorative justice movement의 헌신적인 활동가로, ‘희망의 여행: 폭력에서 치유로Journey of Hope: from Violence to Healing’ 라는 조직과 함께 전국을 누비고 있다. 그는 또

‘화해를 위한 살인 피해자 유족회 Murder Victim’s Family for Reconciliation’ (MVFR)라는 모임의 회원이기도 하다. “용서야말로 폭력에서 치유로 향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용서함으로써 증오의 부식 작용을 덜 수 있고, 다시 당신 안의 평화에 머물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다. 또 우리가 괴로워하는 많은 일들이 꺼내놓고 보면 심지어 우스꽝스러운 일일 때도 있다. 그런데도 용서를 하기가 힘든 때가 있다. 특히 오랜 시간 동안 분노가 커온 경우에는 분노를 근절시키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상처가 실제적이든 상상에 의한 것이든, 우리가 상처를 마음에 품고 있는 동안에는 그 상처가 우리를 파먹어 들어갈 것이다.

상처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상처를 잊어버리기 위해 자신의 불만을 무의식 속으로 밀어 넣는 사람은 자신을 불구로 만들 뿐이다. 상처를 용서하기 전에 그것에 이름을 붙일 수 있어야 한다. 때로는 용서하고자 애쓰는 사람과 직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거나, 가능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때 최선의 해결책은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과 고통을 나누는 것이다. 일단 고통을 나누고 나면 그 상처를 떠나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

을 사과를 기다리면서 영원히 분개한 채로 남아 있게 될 지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과 분리된 채로 지내게 된다.

“누군가에 대해 원한을 품고 있는 한, 하느님께로 향하는 문은 닫히게 된다. 그분에게로 가는 그 어떤 길도 없이 완전히 닫히게 된다.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많은 기도가 하느님께 들리지 않는 까닭은, 비록 기도하는 사람이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느님의 평화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용서를 배워야 한다.” (J. 하인리히 아놀드)

## 감사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그대의 인생을 살아라.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햇살에 감사하라. 그대에게 생명과 힘이 있음을 감사하라. 양식과 삶의 기쁨이 있음을 감사하라. 만일 감사할 만한 마땅한 이유를 찾지 못하거든, 그대 안에 허물이 있음을 알고 쉬어라. —테쿰세Tecumseh 추장의 말로 여겨짐

중세 독일의 신비가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Meister Eckhart가 한번은, 우리가 단지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만 드리더라도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말을 겉으로만 받아들인다면, 그 충고를 따르기가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 그렇지만 하느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드리며 모든 날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란 평생이 걸리는 일이다.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헨리 나우웬은 말한다. “삶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로 감사하기는 쉽다. 그러나 삶의 모든 일, 즉 좋은 일과 나쁜 일, 기쁜 순간과 슬픈 순간, 성공과 실패, 보상과 거절, 이 모두에 감사하는 것은 치열한 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모든 것들에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실로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한쪽에는 기억하고 싶은 사건이나 사람, 다른 한쪽에는 잊어버리고 싶은 사건과 사람으로 삶을 나눠놓고 있는 동안에는, 하느님의 선물인 우리 존재가 충만하게 감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를 지금 있는 곳으로 이끈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를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는 사랑하는 하느님의 손길을 곧 보게 되리라는 것을 신뢰하자.”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만큼이나 나쁜 일에 대해서도 똑같이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려운 일이나 늘

라고 불안한 상황 때문에 주춤거린다면, 우리는 결코 평화를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우리 인생길에 나타나 는 모든 것을 조용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예수는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라고 기도 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러나 인생에는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따라서 우리를 시험하는 일을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기회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느 베유Simone Weil(1909-1943, 노동 운동과 레지스탕스 운동에 참여하였고,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적 경향의 저술을 남겼다.—옮긴이)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다. “하느님은 끊임없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에게 충만하게 은총을 부어주신다. 그러나 그것을 얼마나 많이 또는 적게 받을 것인지에 동의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순수하게 영적인 문제라면 하느님은 모든 소원을 들어주신다. 적게 받은 사람은 그만큼 적게 요청한 것이다.” 이는 흥미로운 사상이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진심으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라고 말한다면,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기에 적합하다고 보는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들도 때때로 징계의 회초리로 응답받았다. 하늘로부터 ‘만나’ 만 받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정직하다면, 좋은 것들, 즉 가족, 양식, 집, 친구,

사랑, 일 등을 대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선물이라기보다는 권리로 여긴다.

우리 교회의 교인인 캐럴 킹은, 어떤 사람이 갈등이나 문제로 가장 힘겨워하는 바로 그때 감사함을 통해 인생관 전체가 바뀔 수 있다고 말한다. “내가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였는데, 만약 단 한 가지라도 감사하게 바라본다면, 그로 인해 회복의 첫걸음을 떼게 되리라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그대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무언가는 늘 있다. 나는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오랫동안 싸워왔다. 그러나 그대의 고민을 하느님의 손에 내어놓을 때 평화가 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결과를 주실 때 단지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결과가 어떠하든 진심으로 감사해할 때 평화가 있다.”

예수회 신부 알프레드 델프 Alfred Delp가 쓴 다음 글도 캐럴 킹이 말한 태도와 같은 얘기다. 이 글은 델프 신부가 1944년에 히틀러를 비방한 죄로 감옥에 갇혀 처형을 기다리던 때 쓴 것이다.

“외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이다. 빵 껍데기 하나도 없이 맞이하는 새해는 처음이다.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선의를 느낀 유일한 경험이라고는, 간수들이 내 청을 받아들여 수갑을 느슨하게 채워

준 것뿐이다. 왼손을 꺼낼 수 있을 만큼 느슨하게 수갑이 채워졌다. 수갑이 오른쪽 손목에 걸려 있어서 글을 쓸 수 있다.

틀림없이 나는 교수대 바로 가까이에 와 있다. 만일 고소의 모든 내용에 반박하지 못한다면 처형될 게 뻔하다. 그렇지만 내가 겪는 고통의 제단에서 많은 것들이 불에 타버렸고, 많은 것들이 녹아서 부드럽게 되었다. 놀라운 정도의 도움을 받아 서원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야말로 하느님의 은총 중 하나이며, 그의 은총이 깃들어 있다는 표징의 하나이다. 나는 확신한다. 그분이 내게 맡기기를 원하는 그 다음 과업을 내가 감당할 준비가 되자마자, 그분은 내 존재의 바깥에까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러한 외적 활동과 강렬해진 내면의 빛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느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새로운 열정이 타오르게 되리라. 왜냐하면 요즈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나는, 그분을 아는 것과 그분이 지금 여기에서 치유해 주심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느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상은 말 그대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진실이다.”

디트리히 본회퍼도 똑같은 놀라운 확신을 보여준다. 그가 처형되기 전날 감옥에서 약혼녀 마리아 베타마이어에게 쓴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행복은 무엇이고, 불행은 또 무엇



인가요? 행복과 불행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아요. 진실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나는 매일매일 그대가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나는 행복합니다.”

내 경험으로 볼 때, 감사할 줄 모르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곤경이 아니라 행복에 대한 그릇된 이해다. 델프와 본회퍼는 우리의 마음이나 영혼이 곤경이 있고 없음에 따라 영향받을 필요가 없음을 이야기한다. “하느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생각이 우리 안에서 깨어나기만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제 운명을 불만족스럽게 보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즉 속된 말로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것이다. 우리의 시야가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만 한정되어 있는 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물론이고 다른 이의 욕구와 필요도 볼 수가 없다. 내 아버지가 한번은 불행한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 “당신은 언제나 불평할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당신이 평화를 찾고 싶다면 불평하는 이유들을 기꺼이 버려야 합니다. 그대에게 부탁드립니다. 사랑받고자 하는 그대의 욕구에 집중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마빈은 앨라배마에 살고 있는 성공회 사제다. 그는 공평한 고통의 몫(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었다. 그러나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욥의 시험과도 같은 연이은 심각한 질병, 막내아들의 죽음, 실직, 그리고 이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괜찮아, 아직 종기 때문에 고통받지는 않았잖아?” 하고 말한다.(욥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로 고통받았다. <욥기> 2장—웁긴이) 나는 이러한 태도야말로 그가 지닌 평화로움의 열쇠라는 것을 어렵듯이 느낀다.

“나는 죽어가고 있었다. 1960년 12월, 내 나이 서른다섯일 때였다. 며칠 전에 나는 썩은 맹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른 아침,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일련의 확신이 떠올랐고, 갑자기 공포가 밀려왔다. 아내와 세 아들도 있는데, 나는 빗쟁이였다. 이제 정말 최후의 실패에 이르렀다고 느꼈다. 내가 죽고 가족 모두는 굶어죽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때 분명하고 예리한 음성이 내 귀에 들려왔다. ‘그래서 뭐란 말이냐! 너는 네 자신에게조차 중요하지 않다. 오직 하느님만이 중요하다!’

나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 종종 생각한다. 내 경험으로 볼 때 하느님은 보통 속삭이듯 말하며 매우 적게 말한다. 나는 이 사건을 겪은 뒤, 하느님께서 얼굴에 찬물을 끼얹듯 명확한 어조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회복은 매우 더뎠지만, 결국 나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내 인생에 또 다른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 내가 여덟 살 때,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일 년이 조금 지나 아버지는 당신보다 훨씬 젊은 여인과 결혼했다. 우리 집은 행복한 가정은 아니었다. 아버지는 학교 행정관이셨는데, 학문에 매우 큰 가치를 두고 규칙을 엄격히 시행하는 것으로 유명하셨다. 아버지는 이런 가치를 집에도 적용하셨다. 새엄마한테 한두 번 맞은 일은 있지만, 학대를 받은 적은 없었다. 빈정거리고 조롱하는 것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무기였다. 정해진 규칙은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였다. 내가 십대에 벌인 반란은 학년을 통과할 정도로만 공부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내가 부모에게 반항할 수 있는 한 방법이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는 공부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떠나라는 말을 들었다. 군에 입대할 나이가 될 때까지 친척 집에서 살았다. 군 복무 경험은 강렬했다. 전투를 보았고,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았다. 나는 부상당했다. 제대 후에 대학에 들어갔다. 그렇지만 인생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분명한 생각은 없었다.

나는 결혼을 했고, 곧 두 아들을 얻었다. 용자를 받아 교외에 집을 얻고, 차가 생기고, 우편집배원으로 일했다. 3, 4년이 지나자 나는 매우 불만족스러워졌다. 수없이 자기 분석을 하고 조언을 구하던 끝에 나는 성공회의 성직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신학교에서 두 달을 보

낸 후 피정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나는 당황했다. 피정 지도자인 ‘거룩한 십자가 수도회the Order of the Holy Cross’의 수사에게 가서 내가 실수를 했다고, 나는 목회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의 대답은 이러했다. ‘물론 당신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이 함께 일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

졸업과 안수식을 마치고 윌리엄은 몇 교구에서 섬겼다. 그러나 곧 윌리엄은 자신이 상급자들이 이해하는 것과는 다르게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해임되었고, 오랫동안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결국 그는 미국 성공회가 취하고 있던 방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 뒤 현재 섬기고 있는 성공회 교구에서 자기 자리를 찾았다.

그 사이 비극은 계속해서 닥쳐왔다. 첫 번째 비극은 막내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은 일이었고, 이어서 부인이 다른 남자와 집을 나가 결국 이혼을 했다. 또 둘째아들이 알코올 중독이 되어 서른다섯 번이나 강력한 발작을 일으키다가 죽었다. 이런 비극과는 달리 약간의 만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큰아들이 변호사로 성공했고, 딸은 철학박사가 되어 노트르담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윌리엄 자신은 마음씨가 따뜻한 교인들 속에서 가정의 포근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조금도 쉽

지 않았다.

“나는 평화를 발견하였는가? 그렇다고 생각한다. 나는 자녀들에게 내 책임을 다했다. 내 교구의 교인들을 돌보고 있고, 하느님이 의도하는 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매일 아침, 아침 송가인 〈시편〉 95편의 4절 ‘이 땅의 모든 곳들이 주의 손 안에 있나이다’ 를 암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밤에는 시므온의 노래(〈누가복음〉 2: 29~32—웁긴이)를 암송하며,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백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는 말씀을 암송한다. 깨어 있는 시간에는 동방정교회 신비주의의 요지인 예수 기도를 자주 드린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또 스스로 생각할 때도, 하느님의 자비는 그분의 사랑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다. 그리고 따뜻해짐을 느낀다. 나는 내가 용서받았고 받아들여졌음을 알고 감사하게 된다.

그렇지만 아직도 감당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다. 나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비록 앞으로의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죽는 날까지 매일매일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도록 노력할 것이다.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하느님의 섭리 안에

있어 왔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다. 그분의 섭리 안에서 내 아들들의 죽음과 아내와의 이혼을 겪으면서 나는 더욱 평온해질 수 있었다. 이러한 일들은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내가 교회에서 해고되고, 막내아들이 죽고, 아내는 심장 발작을 일으켰다가 회복되는 중이고(그리고 곧 나를 떠나가려 했다), 내가 일주일에 고작해야 10시간만 일하던 때가 21년 전이다. 그때 한 친구가 내게 읊과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느냐고 넌지시 물은 적이 있다. 나는 ‘글쎄, 아직 종기는 앓지 않네’라고 답했다. 그리고 나는 아직까지 종기를 앓지 않았다.

매주 금요일마다 나는 병원에 있는 사람을 찾아간다. 오늘은 은퇴한 의사를 찾아갔다. 그는 죽어가고 있고, 암으로 세 딸을 잃었다. 그의 아내도 몇 년 전에 암 수술을 받았다. 일요일마다 나는 그에게 영성체를 베풀었다. 그 사람만이 특별히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도록 은총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삶의 이러저러한 때에 고통을 경험한다. 또 다른 사람을 예로 들고 싶다. 몸의 40퍼센트에 3도 화상을 입은 한 젊은 엄마의 이야기다. 남편이 가족을 버리고 떠난 바람에 그녀는 예쁜 어린 자녀 셋을 혼자 키우고 있다. 그녀는 아이들 키우는 일을 매우 잘 해나간다. 하느님이 나로 하여금 이러한 사람들을 알게 하시고, 그들과 인생을

함께 나누도록 허락하신 것이야말로 내게는 큰 포상이 되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는 ‘이해를 넘어서 있는’ 하느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 정직

당신은 자신의 명예를 생각지 않고 한 어떤 일을 누군가 칭찬하더라도 그 칭찬에 무관심할 거라고 생각했다. 행여 그 칭찬에 우쭐거리고 싶은 유혹이라도 든다면, 당신은 언제든 그 칭찬이 업적에 비해 지나치게 과한 것이라고 기억할 것이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 자신을 유명하게 하려는 순진한 시도 앞에서 시기심이 불타오르는 것을 느낄 때야 비로소 자신이 일부러 무관심한 척해 왔음을 알게 된다. 자기 기만이 드러나는 것이다. 내 인생의 생생한 경험들을 통해 나는 내 마음이 얼마나 완고하고 보잘것없는지 보아왔다.

—다그 함마셴드Dag Hammarskjöld

내면의 평화를 위해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조건을 들라고 한다면 나는 정직을 선택할 것이다. 일반적인 의미의 진실함이든, 어떤 사람의 상태에 대한 앎이나 사실

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능력을 의미하든, 또는 다른 이들 앞에서 기꺼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든 간에, 정직은 평화를 위한 기본 전제이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평화를 위해 애쓰고 싸워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자신을 기꺼이 진리의 밝은 빛 아래 놓으려 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평화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겉으로는 순응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삶을 사는 경우, 나는 그런 삶을 그다지 좋게 보지 않는다. 만약 하느님과 악마가 양쪽에 버티고 서서 하느님은 이쪽으로 잡아끌고 악마는 저쪽으로 잡아끈다면, 누구라도 양심이 반으로 갈라지다 못해 무릎 꿇고 말 것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하느님을 향한 첫걸음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평화를 향한 첫걸음이기도 하다. 하느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싶다고 바라기 전에, 우리가 그분과 멀리 떨어져 있음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토마스 머튼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참 자기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실은 기껏해야 험잡꾼이나 낫선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의 동기를 물어보고, 그가 변장한 것을 꿰뚫어보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을 알고자 하는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자신을 아는 것은 단지 첫걸음일 뿐이다. 그것 자체



로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 오히려 자기 관심self-concern이라는 나선형 하강 운동의 덩어리에 걸려 평화와는 더 멀어질 수도 있다. 내 할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신다.

“자기 중심성self-centeredness은 거짓말하는 영靈이다. 그것은 치명적인 질병이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심각하게 아픈 사람이며, 회복되어야 한다.

자기 중심성은 위선적인 태도로 이어지고, 또 짐짓 거룩한 체하는 모습으로 이어진다. 이런 태도 때문에 가장 위태로운 사람들은 그러한 고통을 좋은 것으로 여기는 가짜 성인聖人들이다. 그들의 노력은 위선의 뿌리가 된다……

자신의 관점으로 하느님을 보면서 하느님을 자신과 연결짓는 것은 영터리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우리는 진리가 아니다. 내 자신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사고의 중심에 놓아서는 안 된다. 자신을 사고의 중심에 놓는다면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내 인생의 중심에 있어야 할 분은 하느님이다.

하느님의 대의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 바깥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단지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없어져도 괜찮은 존재라는 뜻이 아니다. 우리가 정직하다면 우리가 하느님의 장애물이고 대항자임을 인정할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을 이러한 방식으로 보게

될 때 비로소 구원이 시작될 수 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회피해 왔던 문제들을 직시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과 직면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그것은 또 하느님께로 전향함을 의미한다. 불행히도 우리는 대부분 세 번째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첫 번째나 두 번째 것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일이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기 만족이라는 위안을 포기하기를 꺼려한다. 온전히 깨어 있는 양심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깊고 큰 평화가 찾아오는지를 인식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우리 공동체 식구인 자네트 워런이 최근에 자신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젊은 여성인 워런은 수 년 동안 노동 단체와 정치 조직, 대학생 모임, 협동조합, 공동체 등에서 평화를 추구해 왔다. 그러나 먼저 그녀 자신 안에 있는 평화롭지 못함을 돌봐야 한다는 중대한 일을 깨우쳤다. 수많은 다른 이들과처럼, 그녀도 자신의 내면을 깊고 정직하게 바라봄으로써 자기 인생의 참된 상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나서야 평화를 추구하는 일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한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일에서 진실함은 자기를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진실함이 없으면 우리는 위선자가 된다. 다른 이들이 나를 보는 방식을 조작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겉모습을 바꾸는 것이다. 예수는 <마

태복음>에서 특별히 이 점을 우리에게 경고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 경건하게 보이도록 애써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닦아놓지만 그 속에는 착취와 탐욕이 가득 차 있다. 먼저 잔 속을 깨끗이 닦아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더 나아가 이렇게도 말했다. “너희는 겉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썩은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 같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옳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 이 구절들을 언급하면서 내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우리가 그 말을 행할 뜻이 없다면 종교적인 말을 하지 말자. 예를 들면 제자도에 대해 찬양하듯 말하면서 제자도의 요구에는 저항한다면, 이는 우리의 내적 생활을 해롭게 할 것이다. 할 의향도 없으면서 올바른 말을 하기보다는, 비록 빛나가는 일이 생기더라도 진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하자. 온전한 평화는 온전한 정직을 요구한다. 형제들과 평화롭게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마음에서 우리나라오는 진실을 전해야 하고, 우리의 사랑에 정직해야 한다.”

진실하지 못함은 습관이 될 수 있다. 일단 그것에 익숙해지면, 곧 완전히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뒤에 숨겨온 거짓을 벗겨내고 다시 정직해

지기 위해서 우리 자신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속여온  
사람들과 함께 하는 협동 노력이 필요하다. 고대 페르시  
아의 예언자이자 시인이었던 조로아스터는 이 상황을  
전투에 비유한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부르짖고 싶다.  
수많은 거짓 가운데서  
진리가 진정 더 좋은 것일 수 있을까?  
저들의 악마 같은 아우성 속에  
나는 함께 해서는 안 되는가?

나의 하느님, 저를 내버리지 마소서.  
이 시련으로 저를 강하게 하시고  
저에게 힘을 주소서.  
반역적인 생각아, 물러가라.  
그대의 목에 칼을 들이대리라.

생명이 샘솟아 오르는 근원을  
알고 있는 이들만이  
영원한 우물에서 길어 올릴 수 있다.  
이를 통한 원기회복만이  
진정한 기쁨이다.

조로아스터가 묘사한 이 투쟁의 고통이 과장되게 보인다면, 그건 그가 웅변적인 문체를 좋아한 탓일 것이다. 진리와 거짓 간의 전투는 단순히 추상적인 두 적수 간의 싸움이 아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거짓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탄과 하느님과의 전쟁이다. 내가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과 나눴던 대화를 되돌아보건대, 이 전투는 언제나 어려웠다. 특히 평화를 얻기 위해 정직은 너무 많은 대가를 요구한다고 믿는 경우에는 더 어렵다. 그런 사람은 처음에는 거짓과 싸워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이 거짓말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도 까맣게 모르기 때문이다.

《카라마조프의 형제The Brother Karamazov》에서 도스토예프스키는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인물을 보여주고 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조지마 장로에게 냉소적으로 묻는 젊은 청년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바로 그런 유형의 인물이다. 장로는 이렇게 대답한다.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오래 전부터 알고 있다. 술에 취하지 말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관능적인 욕망과 돈을 사랑하는 것에 지지 말라.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이나 주위에 있는 진리를 분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 그리하여 자신과 다른 이들에 대한 존경심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 아무런 존경심이 없으므로 사랑을 그치게 되고, 사랑이 없는 자신의 주의를 끌거나 딴 데로 돌리기 위해 욕정과 조잡한 쾌락에 빠지게 되고, 자신의 사악함 속에서 짐승같이 되어버린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게 된다.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쉽게 화를 낸다. 아무도 그를 모욕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모욕을 만들어낸다.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생생하게 하기 위해 과장하며, 한마디 말에 사로잡혀 침소봉대한다. 그는 자신이 그렇다는 걸 안다. 그럼에도 그는 화를 내는 첫 번째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커다란 쾌감을 느낄 때까지 자신의 분노에 폭 빠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진짜로 보복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셰익스피어도 같은 말을 한다. “무엇보다도 그대 자신의 자아를 진실하게 하라. 그렇게 되면, 밤이 낮을 따르는 것처럼 그대는 그 누구에게도 거짓되지 못할 것이다.”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든, 이 조언을 실천하기보다는 그냥 지나치기가 쉽다. 자기를 가장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라도 이전에 거짓말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여러 번 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릴 때 이미 부정직함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도록 확실하게 계속해서 교육받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것이 점점 자라나 그 습관을 깨기가 어렵게 되고 만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과자를 훔치는 행위를 있을 수 있는 일로 넘겨버리기도 한다. 어쩌면 넘길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용케 속이는’ 법을 배운 바로 그 다섯 살짜리 꼬마가 성인이 됐을 때, 가게 물건을 슬쩍하거나 탈세를 저지르거나 또는 아내를 속이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교회나 회당에 다니는 사람들한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종교적이라고 해도 ‘세속’에서는 다른 사람들만큼이나 거짓말을 하기 일쑤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찾기로 결심한다면 해결책은 항상 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고해성사와 같은 특별한 의식은 너무 복잡한 문제여서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다. 그러나 자유와 평화를 찾기 위해서 단순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복잡한 일이 아니다. 일단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과 남에게 보여주는 자신의 모습 사이의 부조화를 인식하게 되면, 그 둘을 조화시킬 수 있을 때까지는 긴장하면서 고통스럽게 지내게 될 것이다. 설령 자신의 방식을 고치고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돌아선다 하더라도,

자신의 비밀스러운 짐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 전에는 온전한 마음의 평화를 경험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시편〉의 저자가 “나에게는 아무런 평화도 없습니다. 내 뺨속 깊이 죄가 있습니다” 라고 말한 이유이다.

우리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내 영혼을 드러내는 것은 언제나 고통스러운 수행이다. 그러나 이 책 뒷부분에도 나오듯이, 그것을 돌아가는 길은 없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찾고자 원한다면, 우리는 그의 십자가의 고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한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 고뇌를 결코 바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열망이 충분히 깊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고뇌를 참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 하느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도록 맡길 것이다.

저를 받아주소서,  
주님, 이 순간에 저를 받아주소서.  
당신 없이 지낸 고아와도 같던 날들을  
잊게 해주소서.  
오직 이 짧은 순간을  
당신의 무릎에 넓게 펼치사  
당신의 빛 아래 붙잡아주소서.  
저를 끌어당겼지만,  
어떤 곳으로도 인도하지 않는 음성을 좇아



방황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이제 평화 가운데 앉게 하시고  
침묵의 영혼 속에서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 마음의 어두운 비밀로부터  
당신의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불사를 때까지  
그것들을 밝혀주소서.

—타고르 Tagore

평화는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 완고함이나 거짓, 교만, 자만, 아집 때문에도 그렇고, 또는 쉬운 길이라는 잘못된 안락감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오랫동안 평화를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평화를 찾아 다시 출발하는 일은 결코 늦지 않았다. 자신을 정직하게, 달리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를 다른 이의 눈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을 때라면, 언제든지 그리 어렵지 않게 예수에게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의 진리 안에 평화는 언제나 있다.

## 겸손

사람들은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살지만, 그리스도는 권력을 회피해서 죽었다. 권력은 가장 거대한 함정이다. 권력이 드러난 모습은 얼마나 끔찍한가! 명령하기 위해 치켜세운 목소리, 빼앗기 위해 내민 손, 탐욕에 불타오르는 눈길을 떠올려보라. 돈은 갖는 것보다 주는 것이 좋다. 조직은 해산되는 것이 좋다. 삶은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좋다. 산 정상에서 먼 풍경을 바라보는 것처럼, 시간을 건너 저편의 영원을 바라보는 일 말고 그 어디에도 평화는 없다. —말콤 머거리지

이 책에 나오는 평화를 향한 모든 징검다리 중에서, 알아가기가 가장 어려운 일이 겸손일 것이다. 겸손은 단순히 얌전하거나 순한 것이 아니다. 겸손은 쉽게 비난받을 수 있음을 감수하는 것이고, 기꺼이 상처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또 주목받지 못한 채로 살겠다고, 마지막이 되겠다고, 가장 적은 것을 받겠다고 걱정하는 것이다. 겸손은 평화로 가는 길에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평화는 하나도 주지 않는다. 오히려 평화를 파괴하는 많은 것들을 가져다준다. 그럼에도 겸손은 그리스도의 길을 가장 훌륭하게 나타내주는 말이다. 겸손은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며,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가장 깊고도 영속적인 평화를 가져온다.

예수 탄생을 나타내는 천사들의 찬양, 즉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라는 음성이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전해진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돈 있고 교육받고 문화를 향유하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종종 인간의 지혜와는 너무 상반되어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느껴진다. 뉴욕 대교구의 존 오코너 추기경이 지적한 것처럼, “그것은 세상이 권력과 영예에 대해, 획득에 대해, 그리고 부와 성공과 특권에 대해 가르치는 모든 것들에 정반대된다.”

또 예수가 유대에서 방랑하며 가르칠 때에, 자신과 함께할 사람으로 율법학자가 아니라 단순한 어부를 선택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자만심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복음의 어리석음과 평화에 대해 더 마음을 여는 경향이 있다.

겸손에 대해 쓰자면 쓸 말이 아주 많지만, 중요한 건 매일매일 그냥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것만큼 확실한 건 없다. 오로지 남에게 자신을 실제로 개방할 때에야 ‘상처받기 쉬움’ 속에 숨겨진 축복을 발견하게 된다. 또 패배를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만 ‘스스로 굴복함’에서 오는 평화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다. 이것이

〈집회서〉(‘시락의 지혜서’라고도 불린다. 가톨릭에서는 정경으로 인정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외경, 곧 정경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도움이 되거나 참고할 수 있는 문서 정도로 본다.—웁긴이)에서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네 처지가 불쌍하게 되더라도 참고 견디어라. 실로 황금은 불 속에서 단련되고 사람은 굴욕의 화덕에서 단련되어 하느님을 기쁘시게 한다. 네가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께서 너를 보살펴주시리라. 주님께 희망을 두고 바른 길을 가거라”라고 말한 이유이다.

어떻게 해야 겸손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 초기 그리스도교인인 헤르마스Hermas는 우화집 《목자The Shepherd》에서, 각각의 사람을 건축가가 선택한 석재로 비유한다. 석재가 벽에 맞게 다듬어지면 그 석재는 사용될 것이다. 그러나 교만과 아집이라는 거친 모서리 때문에 모양이 제대로 들어맞지 않으면 그 석재는 사용되지 못할 것이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고별사를 하면서 비슷한 비유를 한다. 그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 꺾어야 하는 엄격한 가지치기에 대해 말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모조리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잘 가꾸신다.” 두 비유 모두 이해하기는 쉽다. 그러나 우리가 석공의 타격이나 정원사의 칼에 감사

하며 굴복할 수 있을 만큼 겸손한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나의 좋은 친구 톰 코넬과 모니카 코넬은 뉴욕 말보로에 사는데, 그곳 가톨릭 노동자회 농장의 관리인 부부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빗대어, 하느님의 평화는 비록 공짜로 주어지지만 지속적인 ‘가지치기’ 없이는 그 평화를 붙잡을 수 없다고 말한다. 다음은 톰의 말이다.

“스스로 가지치기하는 것에 대해, 하느님이 하는 방식에 대해 얘기하기는 어렵다. 3년 동안이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살펴본 땅 주인에 대해 예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다. 땅 주인이 그 나무를 베어버리려고 하자 농사짓는 이가 그를 설득했다. ‘주인님, 이 나무를 금년 한 해만 더 그냥 두십시오. 그 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베어버리십시오.’ (〈누가복음〉 13: 6~9)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방식이다. 그분은 우리가 결실을 거두도록 하기 위해 우리 주위를 파고 또 가지치기도 하신다. 그리고 때로는 거름을 깊이 주시기도 한다.

뭔가 힘든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주님, 왜 하필 저입니까?’ 하고 부르짖는다. 나 또한 그렇게 말해왔

다. 카르멜 수도회의 위대한 개혁자인 아빌라의 테레사 Teresa of Avila가 한번은 말을 타고 개울을 건너다가 말이 비틀거리는 바람에 물속에 내동댕이쳐졌다. 그녀는 하느님께 불평했다. 그러자 ‘이것이 내가 내 친구들을 다루는 방식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테레사는 ‘당신께 친구가 별로 없는 게 전혀 이상할 게 없군요’ 라고 응수했다.

내가 열네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 일은 갑작스러운 재난은 아니었다. 이미 십 년 전부터 예고된 일이었다. 힘겹게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던 아버지는 일찌감치 몸이 상해 십 년 동안이나 앓다가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쉰두 번째 생신을 보내고 다음날 요양소로 떠나셨다. 그때 아버지를 살아서는 다시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6개월 뒤 어머니는 아버지를 땅에 묻으셨다. 나는 차갑고 무서운 기운에 사로잡혔다. 이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생각하기에도 말하기에도 이상하지만, 희한하게도 그 일이 결국 더 나은 쪽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 (〈로마서〉 8: 28) 이 사건마저도 그럴까?

만약 내가 커서 변혁적인 그리스도교의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우리는 끔찍한 싸움에 휘말렸을 것이다. 아버지는 극단적·맹목적인 애국주의자였다. 어머니는 중간쯤 되는 입장이었을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갈등은 결국 아버지의 혼령과 이루어졌고, 그 갈등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어머니와 누이와 나, 우리 셋은 일은 많이 하고 돈은 거의 쓰지 않는 식으로 살았다. 그래서 나는 예수회에서 세운 고등공민학교와 대학을 다녔다. 십대 때는 공장에서 일한 경험을 통해 가치 있는 교훈을 배웠다. 내가 한 일은 앉지도 서지도 않고 몸을 쭉그린 채 반복적으로 움직이면서 해야 하는 작업이었다. 두 손과 한 발을 써서 일을 하는데 한 동작에 약 2초가 걸렸다. 이런 일을 일주일에 60시간씩 했다. 일은 빠르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다. 나는 내 노동의 완성품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며,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혀 느끼지 못했다.

‘가톨릭 노동자회’에서 내 소명을 발견한 후 내 인생은 좋아졌다. 도로시 데이의 《오랜 동안의 고독》을 읽으면서 믿음과 경험에 관한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았다. 나는 대학을 채 졸업하기도 전에 노동자회의 지적인 핵심에 속하게 되었다. 우리 중 그런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이다. 졸업한 후에는 뉴욕으로 가서 가톨릭 노동자회를 위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 처음에는 남부 귀농

계획을 맡았고, 그 다음에는 광범위한 평화 운동 계획을 맡았다. 평화 운동은 ‘비폭력 행위를 위한 위원회’와 ‘반전주의자 연맹’에서 일하는 A. J. 무스페Muste 및 그의 동료들이 함께 했고, 당대의 유명한 급진적 비폭력 운동가들도 참여했다. 나는 비폭력의 내용에 대해 배우고 싶었고, 지도자들을 개인적으로 알아 이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가톨릭 노동자회에 연결시키고 싶었다. 나는 그 거대한 운동의 대사가 되고 싶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으로 받아들여졌다.

얼마 되지 않아 나는, 비록 근거는 명백하지 않지만, 전쟁과 평화 그리고 비폭력에 뭔가 권위가 있는 사람처럼 비쳐졌다. 그러나 나는 나를 향한 하느님의 뜻은 가톨릭 노동자회의 운동 안에서 비폭력의 이론과 실천을 발전시키도록 돕는 데 있다고 느꼈다. 그 일은 크게 성공했고, 개인적으로도 매우 만족스러웠다.

한 사람이 일생을 건 작업이 파멸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심한 가지치기는 없을 것이다. 바로 그러한 일이 도중에 벌어지고 있음이 내 눈에 들어왔다. 내 자신이 어둠이 짙어가는 숲 속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 비폭력 운동은 쇠락하고 있었다. 마틴 루터 킹이 살해되기 전에도 흑인 민족주의자와 분리주의자들은 킹의 마음을 그늘지게 해왔다. 그들의 구호는 ‘어떤 수단이라도 필요하다’였다. 반전 운동권 안의 주요 구성원들이



‘혁명적 과업’을 위해 자신의 평화주의를 타협해 왔다. 활동가들은 비폭력이라는 용어를 전용하면서, 간디주의의 원리나 실천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나는 15년 동안 해오던 일에서 해고되었다.

그 일은 내가 좋아하던 일이었다. ‘화해 연대(The Fellowship of Reconciliation)’는 교회 일치적이고 종교간 유대를 꺾하는 평화 운동 단체로서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컸다. 이 단체는 내가 가족을 부양하고, (가톨릭 노동자회에 필수적인) 수용력을 넓히고, 적당한 집과 중고차를 유지하기에 넉넉한 급여를 제공했다. 나는 그 단체 일을 통해서 더 넓은 무대에 다가갈 수 있었다. 나는 미국 전역과 라틴아메리카, 중동, 유럽 등을 여행하면서, 비폭력에 대해 강연하고 글을 쓰고 비폭력 활동가들의 연대를 강화시켰다. 나는 내가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장려금을 기대했고, 활동 무대가 더 넓어질 거라고 예상했다. 그러던 참에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좌절되었다. 내 일은 ‘퇴출되었다.’

그러고 나서는 3년 동안 자유 활동가로 일했다. 그전보다 더하지는 않았지만 그전만큼이나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고, 결국 나는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 일로 나는 마음이 상했다.

‘화해 연대’를 떠나는 것은 내게 큰 고통이었다. 그것은 가지치기였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평화를 위

해 내가 행한 가장 중요하고도 지속적인 활동은 이직을 하고 황무지에서 몇 년을 보내는 동안에 찾아왔다. 나는 미국의 가톨릭 교회가 군대 징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지원한다고 약속하도록 설득했다. 그리고 마침내 주교들의 승인과 공시로 몇 교구에서 징병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그와 동시에 중앙아메리카 주교회의의 의장이었던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로부터 엘살바도르의 평화를 위해 지원을 모아달라는 지시도 받았다. 로메로 대주교와, 내가 조직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미국인 수녀 두 분이 얼마 후에 그 주님의 현장(엘살바도르)에서 순교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내 가족을 부양할 수가 없었다.

하느님이 하나의 문을 닫으면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다른 문이 바로 즉시 열리는 것은 아니다. 절망한 나는 뉴햄프셔에 있는 공립 중학교에서 8학년생을 가르치며, 1년 동안 ‘북쪽에서의 유배 생활’을 보냈다. 이것은 당황스러운 가지치기였다. 나는 그 일의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겨울의 끝자락에, 미국 주교들의 행동 촉진 ‘전미 가톨릭 회의 U.S. Catholic Conference’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에드 두거티 Ed Dougherty가 부드러운 유머가 섞인 말로 ‘교회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주교 다섯 명이 1983년에 출간할 예정으로 평화 목

회에 관한 초고를 쓰고 있는데, 그들을 같이 만나러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초고 위원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방성과 국무부로부터 초대된 사람은 많았지만, 평화주의자는 단 세 사람뿐이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는가? 하늘이 잠시 열린 것뿐이었다.

그때 코네티컷 주의 워터베리 지역 교회 연합회에서 나와 내 가족에게 무료 급식소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호르몬을 주체 못하는 중학교 8학년생 100여 명 대신, 300명에 달하는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방화범, 강도, 도둑, 살인자, 그리고 매우 가난하다는 것밖엔 죄가 없는 이들을 대한다는 것이 내겐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 나는 그들이 원하는 것, 즉 수프와 미소를 그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자신들의 삶 속에 끼워주었다. 만약 내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직업을 가지치기 당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평화 관료’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강도들이 나를 정직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제 내 아내 모니카와 나는 가톨릭 노동자회 운동의 모퉁이 공동체로 다시 부름을 받았다. 낮아진 사람이 되어 다시 글을 쓰고 말하고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미망迷妄은 가지치기되었다. 내 생애 안에 내 노력을 통해서, 간디가 인도에서 해낸 일이 여기 미국에서 확장되는 것을 보았으면 하고 생각했으니, 이 얼마나 순진

하고 주제님은 일이었던가! 나는 냉전이 진행되는 동안 네 개 대륙에서 평화와 급진적 운동에 있어 가장 뛰어난 영혼들과 만났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실현되도록 일을 도모했다. 그리고 우리는 거의 모든 일에 대하여 틀렸다! 그보다 더한 것은, 내가 그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도왔다고 생각한 간디주의의 비폭력 운동이 멍청하고 비열한 자들에 의해 결길로 빠져 탈선해 버린 일이다. 이 때문에 나는 몇 년 동안이나 분하고 화가 났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이 짊어질 책임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중독자들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놓아두고, 신에게 맡겨라’ 라고 말한다. 여기에 가지 치는 가위가 다시 나온다.

어렸을 때 나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때 도로시 데이를 만났고, 처음에 들은 말이 내일 일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바람wind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취지의 말이었다. 그녀는 ‘앞으로 이루어질 위대한 일들이 있다. 젊은이들이 아니면 누가 그것을 할 것인가. 그러나 만일 그들이 생각하는 게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다. 도로시가 그 말을 했을 때 그녀는 지금의 나보다 젊었다. 그녀도 그랬겠지만, 더 많은 경험이 있었다면 나는 그녀의 충고를 완곡하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한 것은, 그것이 우연이든 또는 하느님의 은

총에 의해서든, 여전히 남아 있다.

우리는 비폭력 운동을 통해 미국에서 벌어지는 인종 차별의 법적 구조를 해체하는 일에 참여했다. 비록 40년이 지난 오늘날, 가장 가난한 흑인의 상황이 그때보다 더 악화되었지만 말이다. 또 우리는 비폭력을 가톨릭과 주류 개신교의 의식 세계에 재소개했다. 비록 전쟁의 위협은 여전히 있고, 세상은 여러 면에서 더 위험하지만, 이제 새로운 세대는 영웅을 갈망하고 있다. ‘해야 할 위대한 일들이 있다. 당당하게 투쟁하라!’

나는 투쟁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란 단순히 사랑의 영으로 평범한 사람들과 평범한 일을 하는 것임을 배웠다. 또 가난한 이들의 삶 속으로 녹아 들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로부터 사랑받도록 내어주는 것임을 깨달았다. 공동체의 요구를 따르며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위대한 일이라는 것도 배웠다. 성 리지외의 테레사 St. Therese of Lisieux(1873~1896, 가르멜회의 수녀로 ‘소화 테레사’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성녀—옮긴이)는 이것을 ‘작은 길’이라고 불렀다. 이 길이 바로 진정한 평화인 그리스도의 평화를 일으키는 길이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이다. 그것이 자라 가지치기된 포도나무가 된다.”

틈의 말에는 겸손과 평화에 관하여 숙고해 볼 것이 많이 담겨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우연히 우리 브루더

호프를 만나서 곧바로 머물기로 결정한 영국인 데릭 위들도 마찬가지이다.

데릭은 안락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다. 그러다가 런던의 이스트 엔드(비교적 하층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웁긴이)를 통과하는 기차를 타고 가면서 가난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다. 웨일즈 지방의 석탄 광부들 이야기를 다룬 〈별들이 내려다본다The Stars Look Down〉와 〈분노의 포도The Grapes of Wrath〉 같은 영화를 통해서 그는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고, 처음으로 양심의 동요를 느끼게 되었다. 이후 그는 메이데이 행진에도 참여하고, 정치 집회에도 다니며, 좌익 독서 모임에도 가담하였다. 그리고는 공산주의자가 되었다. 당시의 많은 유럽인들처럼 데릭은 자신도 스탈린주의의 악에 대해서는 눈이 멀었다고 말한다. 그는 소비에트연방을 사회주의의 이상향으로 여겼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랬듯이 정치적 견해 때문에 마음이 편협해졌다. “나는 당파에 따라 사람을 나누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은 대단히 경멸하고 때로는 증오하기까지 했다.” 시간이 흘러서야 그는 자신의 오만이 그가 거리에서 저항해 온 부르주아 계급의 의식과 똑같이 폭력의 씨앗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전쟁 발발 꼭 한 달 전인 1939년 8월에, 나는 내 펜팔이었던, 확신에 찬 히틀러 청년단원을 만나러 라이

프치히에 갔다. 그리고 나치 당원 ‘조차도’ 사람이라는 교훈을 배웠다. 부모님이 걱정하셔서 사흘 후에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경험은 사람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분류하는 내 습관을 산산이 깨부수기에 충분했고, 그들을 사람으로 이해하도록 만들기에에도 충분했다. 이 교훈은 내게 계속 남아 있다.……

나는 연약함과 실수에 대한 지나친 관심에서부터 노골적인 자만과 야망에 이르기까지, 어떤 모습이든 자아를 버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배웠다. 그 중 어떤 것에라도 빠지게 될 때마다 나는 평화를 알 수가 없다. 내가 겸손하고 온전히 하느님에게 굴복할 때 평화가 주어진다. 이것은 언제나 선택이다. 그리고 똑같은 선택이 오늘날 모든 젊은이 앞에 놓여 있다. 비록 그들도 내가 한 것처럼 힘겨운 방식으로 배워야 할지도 모르지만.”

마더 테레사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무릎을 꿇게 된다고 말한다. 내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 대신 나는 하느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 믿는다. 나는 계속해서 부정의—인종 차별, 자본주의, 민족주의, 또 다른 그 무엇이든—에 저항해 나아갈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하는 더 큰 일만큼이나, 일상에서의 작은 사랑의 행위가 우리의 진정성을 증명해 주는 일임을

느낀다.

악의 힘에 의해 좌절하고 더욱 비탄에 빠지기는 쉽다. 그러나 우리는 또 겸손할 수 있고, 자신의 분노를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과 같은 뭔가 긍정적인 일로 전환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 순종

그분은 이름이 없는 미지의 존재로서 우리에게 찾아온다. 예전에 그는 호숫가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왔다. 그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그대는 나를 따르라”—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루기를 바라는 일을 맡긴다. 그는 명령한다. 그리고 지혜롭거나 단순하거나 간에 그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와 함께 하면서 겪게 될 구속이나 갈등, 고통 속에서 그 자신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신비를 경험하면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앨버트 슈바이처

내 아버지는 목사인데도 이상하게 종교적인 언어 쓰기를 삼갔다. 그렇지만 어린 자녀들에게 중요한 진리



를 상기시킬 때는 성서를 이용해 설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자비에 대해 말씀하실 때마다, 우물가에서의 예수와 여인의 이야기(〈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웁긴이)가 떠올랐던 것 같다. 또 확신에 대해 말할 때는 하느님이 미지근한 사람들을 자신의 입에서 토해낸다는 〈요한계시록〉의 말을 인용하곤 했다. 순종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면 아버지는 예수가 제자들에게 어린 나귀를 데려오라고 보냈던 구절(〈마가복음〉 11: 1~11—웁긴이)을 사용하셨다.

“예수가 제자 둘에게 가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청했을 때, 그들에게는 나귀를 가져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지. ‘당신들은 더 위대한 일로 부름받았다. 나귀를 찾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귀를 가져오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었던다. 내 자신을 위해,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그렇게 기꺼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도록 부르신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이란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순종은 찢리는 문제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자라고 부르지만, 그 이름을 감당하는 데 본분이 되어야 할 기쁨과 복종이 부족하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간단할 때조차도 교만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찾는 과정 어디에서도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

우리 사회가 개인과 개인주의를 숭배하는 형편이니, 이것이 그리 놀랄 만한 일도 아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본능을 따르고 주도권을 보여주며 지도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워왔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모두 적절하고 좋은 배움이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는 것, 즉 그것과 똑같이 중요한 것인, 어떻게 따를지를 아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우리가 가진 최고의 관심사가 반드시 하느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아니라는 점과, 우리가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좋은 결과보다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언제 배울 수 있단 말인가?

슬프게도, 명백한 이익이 없는데도(또는 희생이 따름에도) 다른 이들에게 복종하는 사람을 흔히들 소갈머리도 없는 사람이라며 업신여긴다. 신적 권위를 포함해 모든 권위가 무시되고, 부모를 존경해야 한다는 생각은 낡은 가치관으로 치부된다. 노인을 공경하는 것도 옛날 일이다. 그리고 하느님도 종종 천박한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복한 불순종과 그것에

뒤따른 하느님의 진노를 잊어버렸다. 또 우리가 찾는 평화가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가져온 창조주로부터 오는 것임을 잊어버렸다. 하느님은 ‘황폐와 공허’ 만이 있는 곳에서 생명을 가져왔다. 그분은 혼돈의 하느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느님이다.

자기 결정에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옮겨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예수조차도 가장 힘겨운 싸움이 복종하는 것이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낸 기나긴 마지막 밤에 예수는 복종하는 것에 저항하며 피땀을 흘렸다.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주소서.” 그러나 이후 그는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라고 말할 수 있었다.

순종은 은총의 근원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종이 무언가 더 마음에 드는 것이 되지는 않는다. 앞에서 몇 번 언급한 도로시 데이의 얘기를 해 보겠다. 그녀는 희미하긴 했지만 일찍부터 제자도의 소명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처음에는 ‘더 중요한’ 다른 일에 몸을 담았다. 자유로운 예술의 유혹이 있었고, 이어 정치에도 가담했다. 그리고는 뉴욕과 이탈리아, 할리우드를 여행하면서 포효하는 20대를 맛보았다. 또 소설과 약간의 영화 원고들, 한 번의 유산과 짧은 결혼, 그리고 어린 딸이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하느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것과 하느님께 순종할 때까지는 그녀

의 열망이 가라앉지 않을 것임은 아직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

마침내 잊을 수 없는 밤이 그리니치 마을의 술집에서 찾아왔다. 그곳에서 친구인 연극 작가 유진 오닐 Eugene O' Neill이 그녀를 위해 프란시스 톰슨 Francis Thompson의 〈하늘의 사냥개 Hound of Heaven〉라는 시를 낭송했다. 그 시의 내용이 도로시를 흔들어놓았다. 다음과 같은 구절이 담긴 시였다.

나는 그분에게서 밤과 낮 아래로 도망쳤다네.

나는 그분에게서 세월의 문 아래로 숨어버렸다네.

나는 그분에게서 내 마음의 미로 속으로 달아났다네.

나는 그분에게서 눈물의 안개 속과 흐르는 웃음 밑으로 숨어버렸다네.

도로시는 회심이라는 말 말고는 달리 부를 수 없는 경험을 했다. 그녀가 복음에 새롭게 관심을 갖자 좌파 친구들은 그녀를 조롱했다. 급진적 사회주의자인 그녀가 종교란 단지 연약한 자들을 위한 버팀목이라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그러나 도로시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녀는, 예수는 그들 모두가 찾고 있는 평화와 정의의 새로운 사회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마음을 지닌 위선자들이

라고 해도 그것이 예수의 잘못은 아니라고도 했다. 그녀는 예수에게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1980년에 죽을 때까지 도로시는 자신이 노력한 것 이상의 일을 해냈다. 경제 불황 때 수백만의 사람들이 실직으로 절망감에 빠져 있는 현실을 보고난 뒤, 그녀는 유명 작가가 되겠다는 야심을 버렸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하느님과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데 보냈다. 그녀는 가난한 자들의 얼굴에서 예수를 보았다. 시민 불복종 행동, 비폭력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표방하거나(이로 인해 그녀는 여러 번 수감되었다) 책이나 신문 투고를 통해 ‘말씀을 퍼뜨릴’ 때에도, 그녀는 그리스도는 말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는 믿음에 투철했다.

도로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예수는 ‘자비의 사역’을 요구했다. 굶주린 이들을 먹이고, 노숙자에게 집을 제공하고, 병든 자를 방문했다. 또 그녀가 주는 음식을 받으면서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수백 명의 시끄러운 사람들 뒤에서 날마다 해마다 청소를 했다. 도로시는 ‘가톨릭 노동자회’에서 이 일들을 기쁘게 해냈다. 가톨릭 노동자회는 모래투성이인 뉴욕의 동남부 지역에 도로시가 세운 공동체 성격의 환대의 집이었다.

왜 순종하지 않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이유가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한다. 용기와 힘이 부족하다는 사람도 있고, 통찰력이 떨어진다는 사람도 있다. 또 주어

진 일이 자기한테 맞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이보다 훨씬 덜 고상하다. 바로 게으름, 교만, 완고함, 아집 등이 진짜 이유다. 마더 테레사는 사랑의 선교회 동료들과 몇 년을 함께 보내면서 이 문제의 뿌리에 맞서 싸웠다. 그녀는, 하라고 요구받은 어떤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알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일단 알고 나면 그것을 자기 방식대로 하고자 하는 유혹이 바로 그 뿌리라고 말한다.

“당신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하느님의 뜻을 안다면, 당신은 그 일을 더 잘 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아는 길은 순종을 통해서뿐입니다. 담쟁이덩굴처럼 당신 상급자에게 복종하십시오. 담쟁이덩굴은 무언가를 단단히 붙잡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도 순종을 확고하게 붙들지 않으면 거룩함 속에서 자랄 수도 살 수도 없습니다. 작은 일에 충실하십시오. 진정한 힘은 꾸준함과 순종에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비롯해 수많은 종교 공동체의 신참자들처럼, 마더 테레사 수도회의 수련 수사들도 가입할 때 순종 서약을 한다. 그러나 그러한 서약을 지키는 일은 평생에 걸친 과제이다. 이에 대해 토마스 머튼은 한 젊은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자네는 아마도 자네가 하고 있는 일 안에서, 또 그

런 일이나 자네가 보고 안 것을 통해서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노력하겠지. 말하자면 자네는 무가치한 존재, 아무 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일을 이용하고 있는 거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자네 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네. 자네가 어떤 선한 일을 하게 되든 그런 일은 자네로부터 나오는 게 아닐세. 오히려 자네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 쓰이게 될 때 그런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점을 좀더 생각해 보게. 그러면 점차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네. 또 자네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네를 통해 작용할 힘에 대해 좀더 열려 있을 수 있다네.

그러니 위대한 것은 바로 살아가는 일이라네. 자네 인생을 어떤 신화를 떠받드는 데 쏟아 붓는 것이 아니란 말일세.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가장 좋은 것들을 신화가 되게 하는 거지. 자네가 목적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단순히 그리스도의 진리를 섬길 수 있으려면, 더 많이 순종할 수 있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실망하게 되더라도 크게 낙심하지 않아야 하네. 왜냐하면 나는 보이는 모든 것 가운데서 슬한 실망과 좌절, 그리고 혼란을 보기 때문이야.

그렇게 되면 우리의 진정한 희망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에 있지 않고, 그것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방식으로 선한 무엇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께 있게 되네.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것이네. 그러나 우리가 사전에 이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닐세.”

〈열왕기하〉 에도 이와 똑같은 관점을 보여주는 인상적인 이야기가 나온다. 왕의 신하인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가서 자신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자, 예언자는 요르단 강에 가서 일곱 번을 씻으라고 말한다. 나아만은 자신이 조롱당했다고 느끼고 화를 내며 돌아간다. 그러자 시종이 그를 설득하려고 노력한다. “그 예언자가 당신에게 뭔가 큰일을 하라고 말했다면, 당신은 그것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역시 그의 말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나아만은 여전히 화가 나고 당황스러웠지만 마침내 설득을 받아들였고, 요르단 강으로 가서 순순히 물 속에 일곱 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의 몸은 마치 어린아이 몸처럼 깨끗해졌다” 라는 본문을 읽게 된다.

다니엘 베리건 신부는 성서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위들이 결과나 성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을 지적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갔고,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가장 믿기 어려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 단순히 그를 믿고 순종했다.



20세기로 넘어와, 나치 박해의 희생자인 에발트 폰 클라이스트Ewald von Kleist의 편지들에도 자발성과 순종에 대해 똑같은 증언이 나온다. 그 중 하나를 인용해 보자. “하느님 안에서 당신의 평화를 찾으라. 그러면 당신은 평화를 발견할 것이다. 그는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며, 마침내 영광 가운데 우리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절대로, 당신 마음의 가장 비밀스러운 방에 서조차도, 하느님이 그대에게 부과한 것에 반역하지 말라. 그러면 그 무엇을 감당하는 일이 전에 없이 얼마나 쉽게 되는지 알게 되리라. 나는 스스로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경험한 것이 아니면 어떤 것도 글로 쓰지 않았다. 그것은 영원토록 진실이다. 이 모두가 단순히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날마다, 때로는 매 시간마다, 끊임없이 자신과 싸우며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보상하는 축복의 느낌이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으라. 나는 그것을 경험하였다.”

냉소적인 사람은, 클라이스트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명료하게 사건을 바라볼 수 있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어떤 점에서는 그 말도 진실일 수 있다. 죽음의 문 앞에 있는 사람에게서는 인생의 중요한 일들이 완전한 형태로 드러나 보인다. 그렇다 해도 클라이스트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절대로 반역하지 말라” 는 그의 말은 두 배로 의미심장하다. 처형을 눈앞

에 둔 상황인데도 그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 그 어떤 것도 의도하지 않는다. 순종한다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도 그는 순종했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으며 그래서 대개 훨씬 더 이기적이고 완고하다. 우리의 결정을 추동하는 것은 대부분 순종이 아니라 편리함이다. 우리는 과업이나 소명을 깨닫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난 것’을 기대하면서, 하느님이 답을 지니고 기다리는 곳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는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신의 계획을 따르기를 더 좋아한다. 그러면 하느님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탄식하며 떠나가신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내리는 이 법은 너희로서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거나 미치지 못할 일은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법을 내려다주지 않으려나?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할 터인데’ 하고 말하지 말라. 바다 건너 저쪽에 있는 것도 아니다. ‘누가 이 바다를 건너가서 그 법을 가져다주지 않으려나?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할 터인데’ 하고 말하지도 말라. 그것은 너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서 하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신명기> 30장

## 결단

분명한 한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소명은 희미한 공기 속으로 사라지고 만다. 만일 이러한 걸음을 하지 않고 예수를 따를 수 있다고 상상한다면, 그들은 광신자처럼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비록 베드로가 자신의 회심을 스스로 이룰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그물을 버릴 수는 있었다. —디트리히 본회퍼

이 책에서 소개하는 통찰력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일반적인 줄거리가 잡힌다. 그들이 평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선택과 자유 의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평화는 선물일 수 있다. 그러나 평화는 또 ‘엄청난 값이 나가는 진주’ 이기도 하다. 그래서 평화를 찾아 나서서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파는 행위는, 어떤 경우든 간에, 먼저 결단이 있어야 한다.

빅터 프랭클(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로, 제2차 세계대전 때 수용소 체험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정신 분석 방법을 만들었다.—웁킨이)은 평화란 세 가지, 곧 본능 또는 낮은 본성, 유전적 특성이나 기질,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인간에게 본능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본능이 반드시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 유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타고난 성질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로부터 자유로울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환경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환경이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환경에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안다. 사람은 결코 단순히 유전과 환경의 산물이 아니다. 또 다른 요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결정’이다. 사람은 궁극적으로 스스로 결정한다! 그러므로 결국 교육은 결정하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어야 한다.”

프랭클은 계속해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단호하게 결정하는 사람이 드물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기만 할 뿐 흔들림 없는 중심으로 자신만의 결정을 밀고 나아가는 때가 별로 없다. 이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한 상태에 빠지고 만다. 아무 계획 없이 살며 닥쳐오는 것들에 그때그때 대응하기도 하고, 숙명론자나 패배주의자가 되기도 한다. 분명한 견해 없이 갈팡질팡하는 날도 있고, 그러다가도 다음날에는 어떤 생각에 폭 빠져서 아주 고집스럽게 집착하기도 한다. 프랭클은 궁극적으로 이 모든 징후들은 우리가 책임을 두려워하고 그로 인해 주저하게 되는 데서 기인한다고 말한다.

결정하기 쉬운 선택도 있지만, 지독한 고뇌 속에 영

혼의 탐색이 필요한 선택도 있다. 그때도 하느님은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실 수 있지만, 그러려면 우리가 그 이끄심에 열려 있어야 한다. 나는 여기서 번개나 섬광 같은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부분 뉘가에 대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 하느님이 우리 가까이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분을 향한 우리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는 그 ‘은총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한 ‘시간’은 우리에게 한 번, 두 번, 심지어는 여러 번 올 수도 있다. 우리가 그 시간에 대해 열려 있으면, 하느님의 음성이 아주 또렷하게 들려서 앞을 향한 바른 길이 분명해질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예수회 신부인 알프레드 델프는 이렇게 썼다.

“우리의 삶 속에는 자기 혐오가 가득할 때가 있고, 실패 때문에 자기 확신이나 자기 정당화의 가면이 벗겨질 때가 있다. 바로 그때, 비록 순간이더라도 실재가 드러나 보인다. 그러한 진리의 순간에 영원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타고난 성향 때문에 그것을 회피한다. 자만과 소심함(그리고 그 상황으로부터 나오는 유일한 길은 겸손해지고 하느님께 복종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순간이 현실이 아

니고 가짜라고 선언하도록 유혹하기 때문이다.

각성의 충격은, 오직 우리의 죄가 너무나 커서 마침내 자기 확신이 무너지고 자신을 좀더 세밀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될 때만 찾아오는지도 모른다. 모든 것은 우리가 이런 자기 확신의 상실(실제로는 자만감의 상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연약함’으로 치부하고 슬쩍 넘겨버리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한 순간으로부터 재빠르게 회복하고자 애쓴다면 우리는 죄와 실수 속으로 더 깊이 스며들게 된다. 일은 더욱 악화될 뿐이다. 자신의 죄악에 ‘면역’이 되고, 더 이상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심지어 끝에 가서는 자신의 실수를 ‘자기 결단’이니 ‘선택권’이니 하는 경건하지만 상투적인 말로 방어해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우리 공동체 식구 중에 일흔이 넘은 존 윈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최근의 편지에 쓰기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풍성한 시기는 확고한 결정을 내리고 공동체에 들어온 뒤 무슨 일에도 흔들림 없이 공동체에 충실했던 시간이라고 했다.

“나는 열여섯에 학교를 떠나, 납 파이프와 페인트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다. 야간에는 과학 분야에서 학위를 받고자 런던에 가서 공부를 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기차를 타고 가 수업을 듣고, 다시 기차를 타고

집에 오면 11시가 넘었다. 그런 일과가 매일 반복되었다. 주말에는 숙제도 해야 했다. 힘겨운 시기였다. 열아홉 살이 되자 나는 병역 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평화주의자였던 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되기로 결정했다. 직장 상사에게 내 결정을 말했더니, 그 사람은 공장이 이제 파이프와 페인트 대신 총탄을 만들 것이라면서, 내 입장은 회사 방침과 어긋난다고 했다. 그것은 충격이었다. 나는 주말 내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그 시간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정직한 마음으로 공장 일을 계속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공장을 그만두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평화주의자인 다른 친구 하나도 그 무렵 나와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전쟁 참여를 거부할 만한 확고한 근거를 잡지 못한 채 마음을 바꿔 공군에 입대했다. 전쟁에 대한 내 확신에 진실하게 행동해야 할지, 아니면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지 선택해야만 했던 그 주말이 내게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잠 못 이루는 긴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마침내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내 직업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지금은 그것이 아주 작은 결정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나에게는 매우 중대한 일이었다. 아마도 그 사건이 내 양심이 내게 하라고 말하는 것과 내 소망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던 첫 번째 경우였을 것이다. 58년이 지난 지금, 나는 그때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의 무언가를 경험했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다. 그 후의 인생에서도,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양심이 그것을 선택하라고 촉구할 때가 여러 번 있었고, 그때마다 그 시절의 일을 돌아보아야 했다. 양심을 따를 때마다 나는 내적인 평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그것은 그저 진실이라고밖에는 어떻게 달리 설명할 수 없다.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도 인생을 통해 깨닫게 되었는데, 어떤 소명을 듣고도 따르지 않으면 사람의 내면에 무언가 작용이 일어나, 하느님의 말씀이 있고 난 다음 순간에는 그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느님은 우리가 교만하거나 고집스러울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도 늦게서야 하느님이 우리를 구해주시는 때가 있음을 확실히 느낀다.

나는 공장 일을 그만두고 몇 개월 동안 실직 상태로 지냈다. 전쟁과 관련되지 않은 일을 찾아보았지만 내가 가진 기술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끔찍했다. 사무실이나 가게에서 하는 일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렇지만 나는 그때도 내가 한 행동에 대해 평화로웠고, 내 인생이 하느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느꼈다고 말할 수 있다.”



존과는 다르게, 자신의 결단에 충실하지 못해 자기 안에서 평화를 찾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은 마치 용골이 없는 돛배 같아서 아주 약한 돌풍에도 뒤집어지고, 아주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서야 처음에 정한 목표에 이를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해마다 다음에는 무엇에 자신을 던져야 할지 결정하느라 많은 시간을 쏟으며 산다. 내가 아는 최악의 경우는 그러한 주저함 때문에 감정의 불균형이 생기고 심지어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불안정해지기도 하는 것이다.

믿음의 문제에서, 결단은 건강하고 생산적인 생활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예수는 영원한 평화를 준다. 그러나 먼저 그는 우리에게 영원한 헌신이라는 약속을 요구한다. 많은 이들이 예수의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영원한 헌신에 기꺼이 직면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 바로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구절이다. 이것은 숙고하거나 탐구하거나 분석해야 할 철학이 아니다. 이것은 단호한 요구이다. 우리는 이것을 거부할지 또는 받아들일지를 선택해야 한다. 그 누구도 예수에게 무관심할 수는 없다. 그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바르트는 우리 공동체 출신의 젊은 청년이다. 그는 스물한 살 때 유명한 이스트코스트 대학에서 최고 성적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이미 몇 개의 좋은 일자리도 제안받은 상태였다. 그렇지만 바르트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다. 그는 약육강식의 인생이 주는 공허함을 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그만두고 자신이 자라온 공동체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삶이 자신의 재능과 시간, 돈을 공동의 대의에 내어맡기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일하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말이다. 마지막 학기 중간쯤 바르트는 학교를 그만두고 내게 이런 편지를 보내왔다.

“저는 지난 이틀을 정말 갈가리 찢긴 채로 보냈습니다. 학교에 남아 학위를 마치고, 직장을 얻고, 공중파 라디오 같은 우러러볼 만한 곳에서 일을 하고 싶은 욕구를 무척 강하게 느꼈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정과 공동체를 섬기도록 부름받았다는 것도 느꼈어요. 저는 제가 이곳에 머무는 것, 원하는 일을 하는 것,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는 것을 합리화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난밤, 그물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뒤따른 제자들 이야기를 <마태복음> 에서 읽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이에요. 이곳은 저에게 이론적 지식과

실용적 기술을 많이 주었지만 다른 것은 별로 주지 못했죠. 적어도 인격이나 영적 성장이라는 면에서는 준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곳을 떠나야만 합니다.

때로는 이유를 잘 알지 못한 채로 또는 무엇을 할 것이지 모른 채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왜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는지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누구도 자신이 하는 일 중 많은 것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하느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저에게 무언가를 말씀하려고 노력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바르트가 내린 결정이 미친 짓으로 보인다면, 그것은 단지 그 결정이 일반적인 관행을 거스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정은 하느님으로부터 분명한 소명을 듣더라도, 멈춰서 고려하는 것—상투적인 말로 ‘그것에 대해 기도하는’ 것—이 신중하다고 여기는 보편적인 생각과 어긋난다. 그러나 예수는 제자들에게 단순히 그물을 버리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죽은 자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지내도록 충고하지 않았던가? 아마도 우리는 예수가 우리에게 생각해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거라고 지나치게 확신하는 것 같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인생길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느님께 요청하자. 그러

면 모든 일이 그것에 딱 맞는 균형으로 나타날 것이다.

헨리 나우웬은 이렇게 말했다.

“어디에서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어떻게 내 마음의 눈이 하느님께 집중하도록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비하면 정말로 하찮은 질문이다. 나는 예일 대학에서 가르칠 수도 있고, 제네시 수도원에서 빵 굽는 일을 하거나 페루에서 가난한 아이들과 함께 걸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참으로 쓸모없고 비참하고 우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적절한 장소와 직업, 적절한 소명이나 사역 같은 것은 없다.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 내가 이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내가 경험했기 때문이다. 나는 가난할 때만이 아니라 풍요로울 때도, 유명할 때나 무명일 때도, 성공하거나 실패할 때도 혼돈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다. 그 차이는 결코 상황 그 자체에 있지 않고 내 마음과 가슴의 상태에 달려 있다. 내가 하느님과 함께 걷고 있음을 깨달을 때면 언제든 행복함을 느끼고 평화로울 수 있었다. 자신의 불평과 감정적인 욕구에 얽매어 있을 때면 나는 늘 들떠 있고 분열되어 있음을 느꼈다.

그것이 내 미래에 대해 결정해야 되는 때인 지금, 내게 찾아온 단순한 진리이다. 앞으로 5년 동안 또는 10년, 20년 동안 이 일을 하겠다든지 또는 저 일을 하

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결코 중대한 결단이 아니다.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두려움 없이 하느님께로 전향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결단이다. 이러한 깨달음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

## 회개

타락한 인간은 단순히 개선하기만 하면 되는 불완전한 피조물이 아니다. 그는 항복해야 하는 반역자다.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는 것, 잘못된 길을 걸었음을 깨닫고 잘못했음을 고백하며 밀바닥부터 다시 인생을 시작할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궁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이러한 항복의 과정, 전속력으로 후진하는 운동이 그리스도인이 회개라 부르는 것이다.

—C.S. 루이스Lewis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는 성서의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이리라.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랫동안 이 말을 열심히 반복해 온 만큼이나 애써 이 말씀의 충격을 회피해 왔다. 겸손이나 온화함 또는 친절은 굉장한 일이다. 그러나 깊은 참회는? 자신의 잘못

을 인정하고 이 때문에 슬피 우는 것은? 회개는?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회개가 없이는 평화가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받기를 거부하는 한, 십자가 위에서 그가 받은 고통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꺼이 그와 함께 죽으러 나아갈 때만이 그의 부활은 우리에게 유효한 약속이 된다. 새로운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만 온다.

회개는 낡은 자아, 즉 옛사람 아담의 죽음을 뜻한다. 타락한 세상의 부패로부터 돌아서는 것,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비밀을 보시는 하느님의 빛 아래 자신을 기꺼이 놓는 것이 회개이다. 회개할 때, 돌같이 굳은 마음은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이 변모된다. 한 사람의 사고방식 전체가 변화된다.

상담 일을 하면서 보니 감정의 혼란을 가져오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성적 부도덕함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적 욕망이 다른 죄보다 더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교만함이나 자기를 의롭게 여김도 똑같이 하느님께 반대된다고 분명히 말했다. 사실 그것들이 훨씬 더 극복하기 어려운 죄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런 죄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성은 훨씬 더 사적인 영역에 가장 깊이 감추어져 있으며, 따라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적 범위가 가장 무거운 짐이 되는 수가 많다.

몇 년 전, 한 젊은 여성이 우리 공동체에 왔다. 수 Sue는 교양 있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가정에서 자랐다. 그러나 그녀는 괴로웠다. 삶에서 온전함과 평화를 간절히 원했지만, 자기 증오와 죄의식으로 마음이 몹시 무거웠고, 걱정과 근심에 찌들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누군가가 1972년에 내게 ‘평화’가 뭐냐고 물었다면, 나는 ‘베트남 전쟁이 끝나는 것’이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1960년대에 성장한 나는 평화가 종전終戰 이상의 어떤 것임을 알지 못했다. 아버지는 폭력적인 데다 알코올 중독이기까지 했다. 우리 집은 전형적인 문제 가정이었다. 딱 중산층에,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었다. 아홉 살인가 열 살 때쯤 나는 성性を 가지고 장난치기 시작했다. 이웃에 있는 남자 아이가 나를 ‘원하면’ 내가 그 아이를 지배할 힘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고, 내 외모를 최대한 이용하기 시작했다. 이런 방법으로 많은 남자 애들과 어른을 유혹했다. 성관계를 가질 의도는 전혀 없었다. 단지 그들을 조종하고 싶었을 뿐이다. 나는 악의 사슬이 연달아 나를 묶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열네 살 때인 1968년에 언니와 형부가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해군과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된, 이 아름다운 스물두 살 여인의 삶이 끝

나버린 것이다. 둘이 싸운 걸까? 형부가 크게 좌절한 것일까? 그가 베트남에 가게 될 것 같다더니 그게 사실이었던 걸까? 다른 언니와 내가 그 방에 들어갔을 때, 두 사람의 시신과 권총만이 남겨져 있었다……”

이 사건 이후로 그녀의 인생은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점판과 모의 강신술降神術 모임에 다녀와서는 초자연적 세계에 대한 깊은 두려움과 함께 마치 언니의 영혼에 사로잡힌 느낌에 쫓겼다. 그러나 그녀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두려움을 말하지 못했다.

“특히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서, 나는 주말마다 남자와 술, 암페타민과 해시시, 마리화나에 빠져 지냈다. 열일곱 살이 되기 전에 나는 성에 관한 모든 일을 다 해버렸다…… 역설적이게도 나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온전한 평화, 사랑, 그 당시 강력했던 반전 운동을 지지했다. 1970년대 초반에는 정말이지 이상주의가 엄청나게 강했다. 그러나 문란한 성생활 속의 이기적인 탐욕은 그 이상과는 정반대였다.

열아홉 살에 나는 브루더호프를 찾아갔다. 당시 나는 고뇌에 사로잡힌, 힘겹고 절망적인 모습의 여성이었다. 과거의 죄악에 영혼이 무겁게 짓눌려 젊은이다운 모습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사람들은 내가 적어도 서른은 넘었을 거라고 믿었다. 그곳에서 나는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내며 평화를 찾기 위해 애를 썼다. 자매형



제들이 나를 도우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치열하게 싸워도 불순함이라는 내 어두운 감옥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공동체 식구 한 사람이 욕망으로 빚은 죄를 고백하고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나도 자유를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계의 마음을 단호하게 버리고 스스로를 비참한 모습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믿고 내 어두운 비밀을 말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야 했다. 나는 회개해야 하고, 그러면 하느님이 결국에는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추구해 온 평화를 주실 것 같았다.

그 다음 며칠 동안 나의 전 생애가 눈앞에서 스쳐 지나갔다. 마치 내가 빠져 있던 온갖 외설스러운 생각과 만지고 본 것들, 그리고 내가 계획적으로 유혹하고 상처 준 모든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고통스럽지만 또한 기쁜 마음으로 나는 내 가장 어두운 죄를 고백하기 위해 목사님의 부인을 찾아갔다. 되돌아서기를 수차례 반복하고서야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었다. 정화 의 한 단계 한 단계마다 내 마음엔 물밀듯 평화가 밀려왔다. 그 세월들이 내게서 풀려져 나오는 듯했고, 나는 다시 어린아이 같은 자유를 느꼈다.

이제 나는 마흔이 넘었다. 결혼도 하고 애들도 있지만, 열아홉 살 때보다 훨씬 젊어진 느낌이다. 그리고 누

군가가 오늘 나에게 평화가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나는 훨씬 더 나은 대답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새 생명을 얻고 변화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이다. 내 아버지가 쓰신 것처럼 “하느님은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며, 내적 성장과 개인적 성취를 위한 계획을 비롯해 우리 자신의 기대와 생각을 뒤집어엎는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킬지도 모른다. 하느님의 미래에 적합하게 되려면 우리가 반드시 그분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해결책을 따른다. 앞서 언급했던 윌리엄 사제가 내게 말하길, 자신이 40년이 넘는 목회 사역을 하는 동안 ‘모든 종류와 모든 조건의 죄’를 들어봤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다고 했다. “죄지은 이들은 대개 회개하기보다는 합리화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회개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사과하는 것으로써 그릇된 권리를 내세우거나, 눈을 감고 대충 얼버무리는 식이다. 사람들은 매일 이렇게 한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가 아니다. 영혼이 죄로 상처를 입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통하지 않고는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

종교 개혁 시대에는 사제가 면죄부를 판매해서 죄를

‘용서했다.’ 오늘날에는 몇몇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가 똑같은 방식으로 죄를 ‘용서한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돈을 내고 이런 말을 듣는다. “당신은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습시다. 당시의 행동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당신은 떳떳치 못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죄를 용서하는 방법이다.

《마태복음》을 보면 진정한 회개에 관해 주목할 만한 예가 있다. 예수의 십자가형이 있기 전날 밤에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이야기가 그것이다. 베드로는 자신의 행동이 용서받을 만한 죄라고 변호할 수도 있었다. 예수는 당국자들의 손 안에 있었고,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이었다. 제자들이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길이라곤 전혀 없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부인 행위를 변명하기보다는 차가운 배신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사무쳐 “밖에 나가서 목시 울었다.”

회개는 자기 고문도 아니고, 자기 혼자 생각에 잠기거나 우울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진실한 회개라면 고통스러울 것이다. 쟁기질처럼, 회개는 대지를 갈아엎고 흙덩어리를 부수며 잡초를 뿌리째 뽑아내, 새로이 파종을 할 수 있도록 토양을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죄를 범해 왔다. 그리고 이 때문에 그리

한 쟁기질이 필요하다.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인생에서 실패했다. 우리의 허물을 인정할 때 우리의 연합함을 알게 되고, 우리가 서로에게 의존하고 또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양심이 짓눌려 있으면서도 그 괴로운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위협에 붙들리지 않는 것이다. 영속적인 평화는 우리의 실패를 부정하는 데에 있지 않고, 오히려 실패를 정직하고 분명하게 바라보는 것 위에 있다.

회개의 길이 고통스럽다면, 죄를 숨기고 살아가는 고통은 훨씬 더 심하다. 마르틴 부버가 지적하듯이, 정적 전의 태풍처럼, 하나님과의 조화와 교통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 영혼을 평화로 이끈다. 그것에 저항하는 것은 계속해서 끔찍한 긴장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사람이 자신을 판단하지 않으면, 만물이 그를 판단하고, 만물이 하나님의 사자使者가 된다.”

제럴드는 나이가 제법 든 우리 공동체 식구인데, 몇 년 동안이나 마음의 평화를 추구했지만 실패했다. 과거에 저지른 죄로 깊이 마음 아파하긴 했지만, 죄를 온전히 고백하거나 진심으로 회개하지는 않았다. 제럴드는 믿음직하고 성실한 일꾼이지만, 내면은 고통당하는 사람이었다. 겉으로 보기엔 교회와 가정 생활에 헌신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남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젊은 시절에 간통을 한 적이 있고, 그 관계에서 생긴 아

이가 먼 도시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중년에 접어드는 위기의 나이에, 제럴드는 그때까지의 자신의 인생에 대해 진정한 결산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느님의 심판이 내 마음에 이르기 시작했다” 을 깨달았다. 제럴드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벌충하거나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지만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큰 고통을 느끼게 되면서 양심의 가책에 휩싸였다. 그래서 자신이 배신한 모든 사람에게 가서 겸손한 태도로 고백을 했다. 마침내 제럴드는 회개로 인한 대속적인 정화淨化를 경험할 수 있었다.

극적으로 죄를 씻게 됐지만, 제럴드는 이 경험과 그것이 가져온 평화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내가 발견한 것은 단순히 디딤돌일 뿐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마침내 평화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우리가 평화를 찾는 것은 정직하게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이리라. 나는 이것이 평화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 길은 내 자신에 대한 앎이요, 하느님의 판단으로 드러난 나의 죄 많음에 대한 앎이라고 믿는다. 그 길은 내가 저지른 죄를 지속적으로 회개하며 하느님의 용서에 감사하는 것이다. 또 내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드러내도록, 하루하루의 일에 명료함과 힘을 주시도록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또 모든 교만과, 야욕, 그리고 자아의 어떤 것을 날마다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 그분의 선물과 은총 안에서,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경이驚異 안에서 매일매일 기뻐하는 것이다.”

회개의 중요성은 나의 친척인 에미-마가렛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다. 그녀는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아마도 내가 아는 어떤 사람보다 더 치열한 싸움을 벌인 여인이다. 지금은 80대 후반이 된 에미-마가렛은 남편 한스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지성과 열정 그리고 카리스마에 감탄했고,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처럼 그를 좋아했다. 명석하고 품위 있는 사업가였던 한스는, 이제 막 공동체로 피어난 브루더호프에 와서 이곳의 복지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행복한 결혼으로 시작한 두 사람의 생활은 곧 악몽 같은 경험으로 전개되었다. 겉으로는 모든 일이 잘 되어 가는 듯 보였다. 한스와 에미-마가렛은는 활동적인 공동체 식구였고, 그들 사이에 아이들이 연이어 태어났으며, 가족 모두 건강하고 화목한 생활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한스는 남몰래 다른 면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권력을 향한 탐욕이 커서 만족을 몰랐고, 다른 사람이나 자신에게 어떤 고통이 따르더라도 권력을 얻

기 위해서라면 어디까지라도 기꺼이 갈 것처럼 보였다.

에미-마가렛은 처음에는 남편의 이런 성격 때문에 괴로웠지만, 괴로움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남편을 비판하면 그로부터 신랄한 말들을 고스란히 듣게 되었다. 차라리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이 훨씬 쉽고 말다툼도 안 생기는 일이었다. 유쾌한 일은 아니었다. 한스는 공동체에 함께 사는 거의 모든 사람을 불신했다. 또 처가 사람들보다 더 미워한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그들이 공동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넘본다고 의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스는 그의 야심을 이루게 되었다. 선택된 몇 사람만이 그를 떠받들 뿐 대부분의 사람은 그를 두려워했지만, 그는 실제적인 독재자가 되어 사람들을 지배했다. 그리고 그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 침묵을 시키거나 쫓아냈다.

수십 년 후, 에미-마가렛은 자신이 남편에게 헌신했음에도 남편이 어긋난 길로 가지 못하게끔 막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남편이 수년 동안 비서와 불륜 관계를 가져 왔음을 알게 된 것이다. 그녀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한스는 자신의 부정이 드러나자 그녀와 공동체를 떠났다. 그러나 에미-마가렛은 남편에 대한 감정적 의존이 너무나 컸던 탓에 자기 부부가 공동체에 얼마나 큰 손실을 일으켰는지 수년 동안이나 깨달을 수 없었다. 수백 명의 공동체 식구들이 그들의 지배 아래 고통을 당

해왔음에도, 심리적으로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었던 에미-마가렛은 이상하게도 한스와 그가 관여한 모든 일들을 이상화하고 방어하는 식의 태도를 보였고, 이는 한스가 프랑스에서 체트기 충돌 사고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후까지도 계속되었다.

한스가 죽고 얼마가 지나서야 에미-마가렛은 마침내 자신이 거짓되게 살고 있음을 보기 시작했다. 그녀가 집착한 모든 것, 즉 특권, 권력, 그리고 그녀의 ‘사회적 지위’를 떠받든(또는 시기한) 사람들의 이목이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개인적인 파산만 가져왔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후 몇 달 동안 그녀는 수십 년 동안 자신을 짓눌러온 상충하는 충성심과 감정, 그리고 가려진 거짓말과 반쯤 드러난 거짓말을 찾아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었다. 그것은 길고도 힘겨운 싸움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죄를 알기 위해 분투했고, 마침내 제대로 파악해 냈다. 그녀는 우리 공동체의 도움을 간청했고, 원하는 지원을 받았다.

에미-마가렛의 투쟁이 끝난 지 이제 25년이 되어가지만, 그 결실은 그녀와 우리 공동체에 여전히 분명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 세속의 눈으로 보면 그녀의 투쟁은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남편과 영원히 화해하지 못한 채 남편을 잃어버렸다. 또 그 과정에서 남편을 편들었던 오랜 친구들의 마음을 몹시 상



하게 했고, 자식들 몇 명과도 멀어지게 되었다.

에미-마가렛이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엄청난 고통의 대가를 치른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남편에 대한 심리적 예속을 깨고 회개하면서, 그녀는 전에는 결코 알지 못한 온전함과 치유를 발견하게 되었다. “내 기대와 기도를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해방감과 평화가 내게 주어졌고,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라고 몇 년 전 그녀가 오빠 하디에게 쓴 것처럼.

본회퍼는 회개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그것의 주된 요구가 기꺼이 “형제의 눈앞에서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죽는 것” 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 비참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기를 회피하려고 궁리한다. 때로는 우리의 죄를 인식한 뒤에도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고 그럭저럭 넘기려고 애를 쓴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이 괴로움,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구출하고 우리를 구원한다. “옛사람이 죽는다. 그러나 그를 정복한 것은 하느님이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눈다. 먼저 죽음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삶은 더욱 위대하게 될 것이다.”

## 확신

단지 수많은 일들이 충돌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갈등하는 세상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 적응해야 한다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 이 완전히 비기독교적인 생각을 이른바 기독교인들이 지지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것이 참 희한한 일이다.

의로운 대의에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로움이 승리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을까? 최근에 나는 구약 성서에 있는 이야기 하나를 자주 생각한다. 모세는 승리를 위해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손을 뻗은 채로 온 밤낮을 서 있었다. 그가 팔을 내릴 때면 늘 적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겼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신의 모든 생각과 힘을 일편단심으로 하나의 대의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소피 솔 Sophie Scholl

소피 솔은 뮌헨의 학생 조직인 백장미단the White Rose에 참여해 반정부 전단을 쓰고 인쇄하여 배포한 혐의로 1943년 나치에 의해 처형되었다. 그녀는 평범한 스물한 살이 아니었다. 또 평범한 활동가도 아니었다.

그녀의 언니인 잉에 솔Inge Scholl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The Resistance of the White Rose》이란 책에서 소피에게서 느껴지던 특이한 평화에 대해 말한다. 그 평화는 마치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 그리스도가 그녀와 함께하며 그녀를 인도하고 힘을 주는 것 같았다고 한다.

소피는 처음 백장미단을 만났을 때 오빠인 한스가 그 단체의 창립자이며 가장 활동적인 참여자임을 알고 화가 났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 모임이 진리를 외치는 고독한 소리이며, 자신이 돕지 않으면 점점 더 늘어나는 선전과 거짓말의 아우성에 그 소리가 묻히고 말 거라고 느꼈다. 소피는 곧 자신의 모든 힘을 바쳐 백장미단을 돕기 시작한다.

그 몇 해 전만 해도 한스와 소피는 둘 다 새로운 독일에 대한 히틀러의 공약을 열렬히 환영했다. 하지만 권력을 향한 독재자의 악마 같은 욕망에 얼마나 많은 양심과 생명이 짓밟히고 있는지 알게 된 후 그들은 점차 그 흐름에 거슬러가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1942년 후반까지 이보다 더 열정적인 저항 조직이나 위험을 감수한 인물은 찾기 어렵다.

1943년 2월, 백장미단의 지도자들이 체포되어 신원이 밝혀졌다. 그리고 닷새 만에 솔 남매와 그들을 도운 절친한 친구들이 죽임을 당했다. 4월과 7월에 또 다른

처형이 뒤를 이었다. 솔 남매는 죽음을 용감하게, 아니 자랑스럽게 맞이했다. 단두대에서 처형된다는 선고를 받았을 때 소피는 고요히 이렇게 응답했다고 전해진다.

“아주 맑고 화창한 날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깨어나 행동에 나선다면 날씨 짙어야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기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 나오는 평화가 있다.

오늘날 그러한 확신은 희귀한 일이 되었다.(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깊이 자신의 신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확신은 투쟁 속에서도 평안과 평화를 가져온다. 우리가 하는 일의 의로움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러한 시련을 용감하게 맞이할 수 없을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백장미단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점이라.

내가 좋아하는 구약 성서의 한 대목이 떠오른다.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에선 하느님에 대한 충성에 있어 최고인 세 젊은이가 있고, 이 충성심이 시련에 던져졌을 때 그들이 누린 평화가 있다.

“느부갓네살이 물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희는 내가 세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고 내가 위하는 신을 섬기지 않았더니 그게 사실이야? 이제라도

나팔, 피리, 거문고, 사현금, 칠현금, 통소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는 대로 곧 엎드려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할 마음이 없느냐? 절하지 않으면 활활 타는 화덕 속에 던질 터인데, 그래도 좋으냐?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줄 신이 과연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답했다. ‘저희는 임금님께서 물으시는 말씀에 대답할 마음이 없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하느님께서 저희를 구해주실 힘이 있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들을 활활 타는 화덕에 집어넣으셔도 저희를 거기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저희는 임금님의 신을 섬기거나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말을 듣고는 금방 안색이 달라지며 노기에 차서 화덕의 불을 여느 때보다 일곱 배나 뜨겁게 지피도록 하고, 군인들 가운데서도 힘센 장정들을 뽑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 활활 타는 화덕에 집어넣으라고 명령했다. 사람들은 그들을 도포와 속옷 등 옷을 입히고 관을 쓴 채로 묶어서 활활 타는 화덕에 집어넣었다. 왕명이 그만큼 급했던 것이다. 화덕이 너무나 달아 있었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넣던 사람들이 불길에 타 죽고 말았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뽕뽕 묶인 채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졌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랄 일이 생겼다. 그는 별떡 일어나 측근들에게 물었다. ‘뽕뽕 묶어서 화덕에 집어넣은 것이 세 명 아니었더냐?’ 그들이 대답했다. ‘임금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사람이 아무 탈 없이 화덕 속에서 거닐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나? 저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모습을 닮았구나!’ 하면서 느부갓네살은 활활 타는 화덕 어귀에 가서 이렇게 외쳤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아 어서 나오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화덕에서 나온 다음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 총독들, 왕의 측근들이 가까이 와 그들을 살펴보니, 몸이 불에 데기는커녕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았고 도포도 눌지 않았으며 불길이 닿은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신이야말로 찬양받으실 분이구나’ 하며 느부갓네살은 외쳤다.

‘저들의 하나님께서, 어명을 어기면서까지 목숨 걸고 당신만을 믿고 저희의 신 아닌 다른 신 앞에서는 절하지도 섬기지도 않는 이 신하들을 천사를 보내시어 구해내셨구나.’ ” (〈다니엘〉 3: 14-28)

오늘날 하나님의 ‘신뢰할 만한 중’ 들 중 믿음을 위해 죽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믿음을 지켜낼 준비가

되어 있는 이가 얼마나 되는가?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말과 함께 영원한 평화의 장소에서 되돌아서게 될 것인가?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자신의 신념 때문에 삶에서 비싼 대가를 치른 이들이다. 그들 중 몇 사람(디트리히 본회퍼, 알프레드 델프, 오스카 로메로 등)은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는 이들이다. 다른 이들, 예를 들면 마틴 루터 킹 같은 이는 특별히 짧게나마 만날 수 있었다. 최근에 만나고 있는 사람 중에도 믿음 때문에 매일 죽음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무미아 아부자말과, 멕시코의 산 크리스토팔 데 라 카사의 주교인 사무엘 루이즈 가르시아 Samuel Ruiz Garcia 같은 이들이다.

히틀러 체제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내 할아버지는 반대자들이 공통으로 겪은 운명을 피할 수 있었다. 1935년에 돌아가셨는데, 사인이 절단 수술에 따른 합병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할머니 말씀에 따르면, 투옥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은 할아버지를 더 용감하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한다. 할아버지는 몇 번이나 당신의 발로 걸어서 카셀에 있는 나치 사무소를 찾아갔다. 그곳에서 한번은 뒤에서 문을 잠그더니 이러저러한 청원서를 쓰든지 아니면 비판문을 쓰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한다. 거의 기적처럼, 그때마다 할아버지의 말은 정당하게

받아들여져 이내 풀려나곤 하셨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며칠 전인 속죄의 날(루터과의 공휴일), 병원 침대에서 큰소리로 외쳤다.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괴벨 씨가 벌써 회개했나? 히틀러도 회개했어?”

수십 년 후 내가 열네 살이 되어 뉴욕의 공립학교에 다닐 때, 나는 할아버지의 이 저항 행위에 고무되어 내게도 용기가 있다는 걸 내보인 적이 있다. 그때는 날마다 충성 서약을 암송하고 아침이면 순서를 정해 그것을 읽어야 했는데, 내 순번이 된 날 나는 교실 앞에 나가 충성 서약을 읽지 않겠다고 말했다. 내 충성은 천 조각이 아니라 하느님에게 있다고 했다.

선생님과 반 친구들은 너무도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도 못했다. 교실에서는 편 떨어지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였다. 그 당시에는 이러한 발언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다.(당시는 매카시 시대의 정점이고, 워싱턴 의회에서는 비미非美 활동조사위원회의 청문회가 한창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교장에게 불려갔다 오고, 전 교직원 앞에 서서 내 행동을 설명해야 했다. 충격을 받은 듯하긴 했지만, 그들은 내가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면서 내 행동이 불손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단지 신념에서 나온 것일 뿐이라고 안심시키자 이해를 해줬다.

집에 가자, 부모님은 다소 놀라면서도 전폭적으로



나를 지지해 주셨다. 아버지에게 이 일은 단순한 문제였다. 아버지는, 양심을 따르지 않으면 너는 결코 평화를 찾을 수 없다, 양심을 따르는 일이 풍파를 일으키더라도 그렇게 해라, 수수방관하면서 아무렇거나 괜찮은 척하는 것보다 그쪽이 언제나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다.

앞에서 나는 십대에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 그들이 내게 끼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중 내 마음에 가장 분명하게 남아 있는 사람 한 명이 드와이트 블라우이다. 아이오와 주 출신으로 젊은 시절 방문객으로 공동체에 왔다가 나중에 우리와 함께하게 되었고 내 아버지와는 막역한 친구가 된 분이였다.

드와이트는 확신에 찬 사람이었다. 열심히 일하고, 신나게 놀고, 치열하게 싸웠다. 그는 말과 행동이 단순한 사람이었다. 무엇을 하든지 온 마음으로 하고, 무언가를 말할 때면 요점만을 이야기했다. 그는 경건한 체하는 말투를 참을 수 없어했다.

드와이트의 미망인인 노란에 따르면, 그는 미국의 전형적인 십대였으며, 온갖 일에 빠져 지냈고, 공군에 입대하려고 애쓰다가 결국 열여덟 살에 입대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학에서 첫 해를 보내면서 드와이트는 앞에 놓인 예상되는 경로, 즉 학위와 결혼, 아이들, 직업, 마지막에는 자녀들이 똑같은 단계를 겪는 것을 바라보며 은퇴하는 삶이 아니라 더 나은 무언가를 갈망하기 시

작했다. 그는 자기 인생이 하느님을 향해 선회했다고 느꼈다. 2학년 때까지 복음서들을 열심히 탐구하던 그는 인생에서의 성취는 이웃을 위해 살 때에만 발견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 확신의 힘으로, 그는 공군 입대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자신의 상태를 부단히 변화시켜 나아갔다.

그 후 드와이트와 노란은 결혼을 하고, 우리 공동체를 알게 되어 방문한 뒤 공동체에 남고 싶다고 청했다. 드와이트는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목회자로서 재능이 있음을 보고 목회자로 정해졌다. 그가 성자이기 때문은 아니었다. 때로 그의 열정은 충동적이었고, 절충보다는 정직을 택하는 경향 때문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속고하는 것보다는 행동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또한 그랬다.

나는 우리 공동체의 중심 건물이 타버린 1957년 겨울의 끔직한 날을 잊을 수가 없다. 드와이트는 재빨리 사다리를 찾아내 꼭대기 층의 창문에 나타났다. 그가 구하려는 물건에 손도 대기 전에 연기와 화염이 가로막았다. 그러나 그는 시도했다. 아래에서 남은 이들이 너무 늦기 전에 내려오라고 소리쳤다. 무슨 사고가 나거나 누군가 심하게 다치는 경우에도 똑같이 했다. 드와이트는 언제나 그런 곳에 맨 먼저 가 있는 사람이었다.

1970년대 초에 브루더호프 공동체는 공동체 사이의

여행을 쉽게 하기 위해 비행기를 샀다. 드와이트의 열정은 비행에까지 확장되었다. 1974년 12월 30일, 드와이트는 자신이 부조종사로 탄 비행기가 안개 낀 산 중턱에 충돌하면서 사망했다. 노란은 자녀 12명을 둔 미망인이 되었다. 막내는 태어난 지 겨우 7주째였다. 그녀는 남편의 서류에서 다음 설교를 위해 준비한 ‘확신과 준비되어 있음’ 이라는 주제의 메모를 발견했다.

드와이트의 죽음은 우리 공동체 식구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이었고, 그를 알고 지내던 사람들 각자가 자신의 소명을 깨닫게 만들었다. 그는 마흔 살에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 나머지 우리들은 어떠한가? 우리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25년이 지나 지금 그 질문을 생각할 때, 그 질문은 그때나 마찬가지로 지금도 직접적인 것 같다. 하느님을 만날 준비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그분과의 평화가 다른 무엇을 위해서 있겠는가? 평화가 ‘준비되어 있음’ 이라면,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준비되어 있음을 뜻한다. 즉 용서할 수 없는 자를 기꺼이 용서하고, 그 죄악을 서둘러 잊고자 할 때 기억하며, 애써 기억하고자 할 때 잊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음을, 우리가 증오할 때 사랑하며, 가고 싶지 않을 때 가고 잊혀질 때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음을 뜻한다. 또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보며, 과거에 선을 굶고 빛을 향해 선회할 준비가 되어 있

음을, 형제를 위해 모든 것을,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어 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뜻한다.

드와이트는 인생을 온전히 살았다. 그리고 예언이라도 하듯 신기하게, 마지막 메모뿐 아니라 두 달 전의 목회 서신에서도 하느님께로 가는 준비에 대해 언급했다.

“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의 말씀은, 세계가 부도덕함과 배금주의, 그리고 그 밖의 죄악들로 질주하고 있는 바로 지금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나는 그러한 부름이 내가 예수께 순종하고 따르는 과정에 더욱 기본이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고 서로를 사랑할 때만 우리가 예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거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은 그리스도와 우리 형제자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더욱 강해져야 한다. 그리고 또한 나는 애매하게 있을 때나, 미지근하거나 냉담하고 편협해지거나, 자기 중심적이 되는 모든 경우에, 더욱 깊이 회개해야 한다……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와 그의 대의, 그의 선교, 그의 미래, 그리고 여기 이 땅에 이루어져가는 그의 나라를 위해 모든 이기심, 완고함, 그리고 자만심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예수는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

다. 내가 명하는 것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벗이 된다.’  
최초의 신자들은 서로에 대해,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  
이러한 사랑을 지녔다. 우리는 어떠한가?”

끝맺음에서 드와이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라며 내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인용했다. “준  
비하는 것만이 전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심을 기대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준비한다는 것이다. 우  
리의 손을 그분께 뻗쳐 그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될 각오  
를 하고, 무릎을 꿇고 그분에 의해 비천해질 각오를 해  
야 한다. 오로지 그분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  
의 힘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준비하자!”

## 섬김

인생의 참다운 기쁨이란 이런 것이다. 스스로 위대한  
것으로 여기는 목적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것, 세상이  
그대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불쾌  
와 불만으로 가득 찬 뜨겁고 이기적인 조그만 욕신이  
아니라 자연의 힘이 되는 것이다.

나는 내 삶이 다른 이들에게 속해 있고, 살아있는 한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내 삶의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죽을 때 내 인생이 완전히 소모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더 열심히 일할수록 더 많이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인생은 결코 짧은 초가 아니다. 나에게 인생은 내가 잠시 보유하고 있는 빛나는 횃불 같은 것이며, 나는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기 전에 가능한 한 밝게 불태우고 싶다.

—조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

평화롭지 못함의 뿌리들 중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것은 아마도 이기심이리라. 이 뿌리는 우리 안에,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 또 세상 전체에 퍼져 있다. 그것은 없애기도 가장 힘든 것인지 모른다. 교만, 불신, 성냄, 또는 원한과 같은 것은 꽤 분명하게 다룰 수 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 원인을 밝혀내고 특정한 조치를 취해 극복하려 한다. 그러나 이기심은 이름 없이, 간과된 채로, 그러나 너무도 강력하고 뿌리 깊게 자리 잡고서 우리의 인생관 전체를 규정하는 때가 많다.

때로 이기심은 욕망이나 탐욕 같은 명확한 죄의 형태로 드러난다. 어떤 때는 개인의 행복이나 고결함을 추구하는 경우처럼 ‘해가 없는’ 형태를 취하기도 하는데, 그때는 이기심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일단 이기심 그 자체를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이를 위

한 단순하고도 보편적인 대책이 있다. ‘다른 이들을 섬김’ 이 바로 그것이다.

16세기 신비가 아빌라의 테레사가 남긴 금언에서는, 섬김을 서로에게 신이 되는 행위라고 말한다. “신은 손이 없으며 발과 목소리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과 목소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나는 모든 식구가 열심히 일해야 하는 농장의 대가족 안에서 자란 까닭에, 섬김에 대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나 돌아보건대 부모님은 그와 비슷한 공경심으로 섬김을 바라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확실히 우리는 섬김의 중요성을 교육받았다. ‘고난받는 중’ 으로서 예수께서 자신을 억압받고 가난한 이들과 동일시했음을 아버지가 일찍부터 강조한 기억이 난다.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개선 행진 때 말이 아닌 당나귀를 선택했다. 어린이들을 환영하고, 몸져누워 있는 이들을 방문하고, 병자들을 치유하며, 죄인과의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몸을 낮추었다. 그러나 섬김을 하나의 덕목으로 설교하는 일은 없었다. 섬김은 그냥 실천되었다.

내 아버지가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나병 환자촌에서 정원을 가꾸는 일이었을 때, 아버지는 그 일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셨다. 그 일을 하다가 나병에 걸려 그곳에서 삶이 끝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한 번도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 다만 다른 이들을 위해서 가장 비천한 일을 하게 되어 영광스럽다고 말하며 기쁘게 그 일을 하셨다.

어머니의 경우에는 항상 바쁘게 돌아다니셨다. 나이든 이웃이나 산모에게 꽃다발이나 잼을 가져다주고, 아픈 사람 곁을 지켜주느라 식사를 거르곤 하셨다. 또 외로운 사람에게 편지를 쓰거나 뜨개질 선물을 마무리하려고 일찍 일어나신 적도 많았다.

나중에 나는 가톨릭 노동자회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봉사 활동하는 것을 보며 감명을 받았다. 그곳에서는 자원 봉사자들이 샌드위치와 스프를 만들고, 바닥을 청소하고, 고맙다는 말을 늘 하는 것도 아닌 노숙자나 궁핍한 이들의 고민을 몇 시간이고 들어주었다.

브루더호프 식구이며 전직 의사인 루스 랜드는 자신이 가장 큰 만족을 경험한 것이 바로 이런 종류의 겸손한 봉사였다고 말한다. “그대는 의식적으로 모든 곳에서 평화를 찾아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평화를 발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는 대신 자신을 잊어버린 채 그대 앞에 있는 일이면 아무 일이나 계속해 나아갈 수 있다. 바로 그것이 평화를 가져온다.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하거나 배우자에게 사랑을 주거나 또는 뭐든 생각나는 것을 하면 된다. 그대가 그 일을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하면, 그것이 그대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간디가 여러 번 말한 인도의 한 이야기는 이와 비슷한 진실을 보여준다.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작은 친절이 우리가 이룬 고귀한 업적들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야기는 이렇다. 고민이 있는 한 여인이 영적 스승을 찾아가서는 “오, 스승이시여, 저는 제가 신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말했다. 스승은 “그러면 그대가 사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하고 물었다. 그녀는 “제 어린 조카는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스승은 “그 아이에 대한 그대의 사랑 가운데, 신에 대한 그대의 섬김이 있다네” 하고 말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봉사가 주목을 가장 덜 받기도 한다. 우리 공동체에서는 상당수 노인이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하는데, 세탁소에서 옷을 정리하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분류하기도 하며 목재와 철재 작업장에서 일을 도와주기도 한다. 이 모든 경우에 그들이 감당하는 봉사는 매우 귀한 것이다. 단지 무엇이 생산되느냐는 관점에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 일을 통해 행복과 평화를 느끼고, 이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의 눈은 기쁨으로 빛난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생활은 놀라울 정도로 풍요롭다.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75살의 조 부시는 한때 유능

한 정원사였다. 지금 그의 활동은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책상에 앉아 있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 이런 환경에서도 그는 천천히 긴 번역 작업을 하고 있는데, 힘들게 한 글자 한 글자 자판을 치며 일을 해나가고 있다. 다른 이들은 좌절했을 수도 있지만, 조는 그렇지 않았다.

“내 일은 순수한 기쁨이다. 이 얘기를 하자면, 일과 관련해 떠오르는 한 가지를 말하고 싶다. 예전에 다른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데, 그곳 목사님은 모든 포상은 우리가 믿음 속에서 열심히 일할 때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곤 했다. 그는 우리 각자에게 천국의 신용 통장이 있다고 믿는 것 같았다. 나는 그런 생각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내가 뭔가 큰 빛을 졌다면…… 비록 매일 몇 시간씩 회개하려고 애를 쓰더라도 결국은 죄인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해야 할 일이 있고, 감당해야 할 봉사가 있다. 나는 하느님을 신뢰한다. 하느님이 만드신 이 놀랍고도 아름다운 세상에 그의 나라가 오게 될 그날을 바라면서 일과 봉사를 계속하고 싶다.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고 싶다.”

조의 아내인 오드리도 다른 이들을 섬기는 데서 똑같은 평화를 발견한다.

“조와 나는 아마 삶의 마지막에 가까워졌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다함없는 영원함이 있다. 이 생각을 하면 정말 흥분이 된다. 눈도 희미하고 다리도 절

뚝거리는 우리를 걱정하는 이들에게 ‘괜찮아요. 지낼 만해요’ 라고 말할 때, 이는 은혜를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러는 것은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길게 우리 자신을 쓸 때 인생이 더욱 활기찬 것이 되기 때문이다. 긴 초는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갑작스레 꺼지지 않는다.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약간의 덩어리만 있어도 계속 타오른다.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

설령 우리가 더 이상 유익한 뭔가를 할 수 없을 때조차도,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밀턴Milton이 시력을 잃은 후 인생의 마지막에 썼던 〈그의 눈뚫으로On His Blindness〉 라는 소네트의 마지막 줄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다. ‘단지 멈춰서 기다리는 이들 역시도 섬기고 있는 것이다.’ ”

조와 오드리는 자신들이 목적을 섬겼기 때문에 맡은 일에도 의미가 있었다고 말한다. 직업이 이렇게 되면, 그것은 결코 단순한 직업이나 작업이 아니다. 목적이 없으면 일은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고, 실업이나 강제 휴직 같은 커다란 좌절과 절망을 낳게 된다. 빅터 프랭클에 따르면, 인생의 진실도 대개 이와 같다고 한다.

“생명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아주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살아남고자 하는 간절함은, 그러한 생존이 어떤

의미를 지닌 것처럼 보일 때에만 생겨난다는 것을 보았다. 그 의미는 구체적이고 개인적이어야 하고, 그 사람 혼자에 의해서 실현되어 그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는 어느 강제 수용소에서 자살을 결심한 남자와 여자를 마주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내가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한 기억이 난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은 인생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는 두 사람에게 자신들의 질문이 ‘진정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진정한 질문은 그보다는 인생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가 아닌가? 나는 삶이 그들에게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충고했다. 실제로 그 여인은 외국에서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남자는 출판하려고 이미 쓰기 시작했지만 아직 끝내지 못한 몇 권의 책이 있었다.

나는 사람이 인생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를 물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삶이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것은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사람은 마지막 의지처에서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자기 자신이 질문받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인생이 문제를 그에게 건네주었고, 책임감 있는 존재가 되어 이 질문에

응답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려 있다.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담함으로써 인생에 응답할 수 있을 뿐이다.

인생은 과업이다. 종교적인 사람이 비종교적인 사람과 확연히 다른 것은, 자신의 존재를 단지 과업이 아니라 사명으로 경험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종교적인 사람은 또한 주인을, 그의 사명의 근원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수천 년 동안 그 근원은 신이라 불렸다.”

이런 방식으로 보면, 인생은 우리에게 훌륭한 목적을 제공한다. 즉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인생을 최대한 충분히 사용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죽음이 찾아왔을 때 하느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다. 나는 죽어가는 사람의 침상 곁에 많이 있어 봤는데, 어떤 사람은 평화롭게 또 어떤 사람은 고통스럽게 죽어갔다. 그 차이는 그들이 인생을 보내온 방식에 있는 것 같았다. 자신의 인생을 섬기며 보냈는가, 아니면 이기적으로 살았는가? 결국 딱 하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동료 인간과 그리고 신과 맺는 관계이다.

자기만을 위해 산다는 것은, 비록 여기저기서 희생이 생기더라도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의식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모든 것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 이것은 귀중한 평화를 거의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의 삶의 방식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곤

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섬김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상기시키는 한편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섬김은 또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데, 우리 인생을 우주의 나머지 존재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진정한 섬김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행위이다. 이것을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우리 공동체처럼 섬김이 모든 식구들의 헌신의 중심에 있는 종교 공동체에서조차도 그렇다. 우리의 일이 그 자체로만 끝나버리면,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에 더 깊은 목적을 부여하는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고, 일은 점차 기계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세속적인 일도 의미를 떨 수 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고귀한 임무도 단조롭고 고된 일이 되어버린다.

얼마 전에 나는 틱낫한 스님이 프랑스에 만든 불자 공동체인 자두 마을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내가 감명 깊게 본 한 가지는 마을 사람들이 일을 섬김으로 알아차리는 것을 익히는 방식이었다. 자두 마을에는 언제나 할 일이 많다. 새로운 건물을 세우고, 낡은 집을 보수하고, 몇 개나 되는 큰 과수원도 가꾼다. 그렇지만 일을 그 자체로만 생각하는 데는 찬성하지 않는다. 자두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일과 중 무엇이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서양의 일반적인 관점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현

재 속에 살아가기 living in the present' 를 연마한다. 그들은 각각의 상황과 행동,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더욱 충만히 살아있는' 기회로 바라보고자 노력한다.

마을 주민인 칼 리들이 내게 들려준 말이다. “충분히 깨어 있는 가운데 일한다는 것, 이는 ‘효과적으로’ 일한다는 일반의 생각을 다시 한 번 생각하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목표에 대한 강박 관념과 모든 것이 ‘단지 그렇게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해준다. 우리가 어떤 일을 좋은 것으로 또는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상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한다. 또 그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온실에서 하는 일이나 나무를 자르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세탁물을 너는 일 등등—에 영감을 불어넣어 기쁨을 밝혀내고 되찾도록 도와준다. 충분히 깨어 있지 않은 채로 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바쁨 속에 조화로움과 행복이 흩어져버리게 된다.”

자두 마을 찬송가에 나오는 한 구절은 이러한 태도를 더 확실하게 밝혀준다. 적어도 섬김에 관한 한 우선 순위가 어떠한지를 보여준다.

저는 오전에는 한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를  
오후에는 한 사람의 슬픔을 덜어주기를 서원합니다.  
저는 단순하고 분별력 있게 살기를,

소유물이 거의 없이 만족하며 살기를 서원합니다.

저는 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를 서원합니다.

저는 밝고 자유로울 수 있도록

모든 근심걱정을 떠나보내기를 서원합니다.

회의론자들은 일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고상하다거나 부자연스럽게 자기를 의식하는 것으로 폄하해서 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도 복음에 손과 발을 제공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바로 섬김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섬김은 예수 가르침의 정수이다. 예수는 만약 우리가 그의 걸음을 따른다면, 이해를 넘어서는 평화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스도가 그에게 ‘주여, 주여’ 라고 말하는 이들 모두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그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에서 굶주린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을 주는 이들을 구원한다. 이들은 그리스도가 그에게 감사하다고 할 때, ‘주님, 언제 우리가 당신을 먹었습니까?’ 하고 대답한다. 순수하게 동정할 수 있는 무신론자나 이교도는 기독교인만큼이나 하느님께 가까이 있으며, 비록 그들의 지식이 다른 언어로 표현되었거나 언급되지 않은 채로 있을지라도, 하느님을 똑같이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시몬느 베유)



## 제5부

### 풍요로운 삶

인생을 살피보니  
그 영원한 노래의 매듭을 풀 수가 없구나.  
기쁨과 슬픔이 고리와 매듭으로  
모두 묶여 있고 겹쳐져 있구나.  
-라마야나Ramayana

## 풍요로운 삶

우리는 결코 완전한 평화에 도달할 수도 없고 최종적으로 발견할 수도 없다. 징검다리를 따라 되도록 주의 깊고 정직하게 물을 건너겠지만, 다른 면에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으로 남을 것이다. 그럼에도 일단 우리가 평화를 경험하면, 우리의 가슴이 삶의 새로운 차원으로 열리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새로운 차원이 평화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것은 예수가 “나는 그대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고 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한 새로운 존재 양식이다.

이 책에 나온 사람들 중 몇몇은, 자신이 평화의 여정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이 구절 덕분이었다고 했다. 그들은 평화를 목표 그 자체로서 추구하는 것은 너무 자기 잇속만 챙기는 것이라고 말한다. “자, 이제 나는 평화를 찾았다. 다음에는 무엇인가?”

그들에게 있어 풍요로운 삶을 가장 훌륭하게 설명하는 말은, 자신이 바라고 있으면서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삶, 즉 자유와 기쁨, 헌신, 동정, 정의, 그리고 일치의 삶이라는 것이다. 그런 삶은 눈물과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완전한 평화가 지배하는 하느님의 나라를 강

력한 배경으로 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각기 자신들의 입지를 찾아가는 삶이다.

유대계 유럽인인 요제프 벤 엘리에젤은 그러한 삶을 찾아서 오래 전에 우리 공동체에 왔다. 무신론자였던 당시에는 풍요로운 삶을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을 테지만 말이다.

“내가 탐구를 하게 된 동기는, 내 어린 시절과 청년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가족이 독일에서 폴란드로, 다음엔 시베리아로, 마지막에는 이스라엘로 피난 갈 때 보았던 증오와 학살이었다. 나는 평화는 오로지 형제애라는 보편적 요구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평화를 추구하게 만든 동인이다.

이스라엘에서 나는 민족 해방 운동과 그에 따른 갈등 문제에 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운동이 권력을 갖게 되면서 억압적인 것으로 변하는 경험을 한 후 운동을 떠나게 되었다. 나는 다시 세계 혁명 속에서 답을 찾기 시작했다. 마르크스와 레닌, 트로츠키를 공부했고, 파리에서 다양한 좌파 운동에 참여했다. 그러나 갈수록 나를 더 괴롭히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러시아나 여타 나라에서 그랬듯이, 혁명이 승리해 권력을 얻은 이들이 결국에는 대중을 억압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브루더호프에 와서 공동체적 삶의 방식에 영감을 불어넣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읽으면서, 초대 교회야말로 참으로 혁명적인 운동을 벌였으며,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고 또 그 방식대로 살았음을 알게 되었다. 비록 예수가 그들 삶의 중심이었지만, 그들의 예수는 관습적인 그리스도교의 예수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사이의 분열을 극복하는 힘을 지닌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하느님의 아들이었다.

나는 오랜 세월 간절히 바라왔던 마음의 일치를 발견했다. 이 일치는 모든 사람의 바람일 것이라고 믿는다. 확실히 마음의 일치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우리 인생을 뒤엎으라고 요구한 까닭이다. 나는 그것을 경험했으며, 그 경험은 지속되었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 자신을 위해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를 추구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그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구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다.”

내 할아버지는 《내면의 세계Inner land》라는 책에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찾음으로써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믿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다. 할아버지는 평화란 감정적 만족과는 다른 것이며, 그것은 또 개인적인 행복 이상의 것이라고 쓰고

게신다. “그것은 전혀 다른 강력한 충동으로 나를 제자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 즉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라는 소명,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그의 통치로부터 오는, 정의와 영광을 개인의 안락함보다 우위에 두라는 소명인 것이다.”

이어서 할아버지는 참된 평화는 영혼의 만족 이상의 것을 뜻하는 게 분명하다고 말씀하신다. 확실히 그리스도와 또 다른 이들과 사귄 때 그 사람의 내면에는 평화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야 한다. 평화는 분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뜻한다. 왜냐하면 평화는 “일치하려는 신적 의지의 열매이며, 이를 통해 모든 상황과 관계, 모든 일과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되찾는 빛 redemptive light’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작가이자 오랫동안 우리 공동체에서 식구로 지내온 제인 클레먼트는, 긴 세월 마음의 평화를 찾았지만 그러한 평화 찾기를 포기하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삶을 집중했을 때 비로소 평화를 발견했다고 말한다.

“우리는 자아로부터 벗어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게 된다.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 나라로 더 나아가기를 추구한다. 우리의 목표는 자기 수양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공동체가 조화롭게 움직이는 것이다. 내 자신을 대수롭지 않은 사람

으로 보게 됨으로써 나는 아주 자유롭게 되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깨달음으로 해서 내가 전에 자아를 진단하고 양심을 성찰하며 추구해 왔던 평온과 내면의 화해가 비로소 찾아왔기 때문이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자유로워짐을 경험하는 이는 드물다. 우리는 불일치와 평화롭지 못함에 그냥 체념해 버리고 만다. “일이 다 그렇지 뭐” 하며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둔 풍성함을 잊어버린다. 그분의 위대함을 힐끗 보는 것조차도 매우 드문 일이다. 우둔한데다 일상 생활을 대부분 산만하게 보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코끝보다 더 멀리 보지를 못한다. 우리는 평화를 찾는다면서 그것을 이기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토마스 머튼은 자신의 삶 속에서 평화를 찾는 이야기를 하면서, 평화의 추구가 ‘열려 있는 사랑 openness of love’ 이라고 부르는 것과 손을 맞잡고 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지금 있는 이 수도원에 왔을 때 나는 삶의 무의미한 혼란에 저항하게 되었다. 너무 많은 행동과 너무 많은 운동, 쓸모없는 잡담, 피상적이고 불필요한 자극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벗어나 있는 것이 세상 속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비난하는 것도 아니며, 또 나한테 세상을 순전히 부정적인 방식으로 거부할 무슨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나는 세상을 등짐으로써 진리와 하느님께 이르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환상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것이 경건하다고 해도 말이다.……

모든 외부의 실재를 관념적으로 배제하거나 세상에 대한 감각을 무익하고 부정하다고 여겨 닫아버리는 것은 명상하는 삶이 아니다. 명상하는 삶은 열려 있는 사랑 가운데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 공동체 식구인 메리 와이저는 어렸을 때부터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곧 그것이 마음의 평화와 개인적인 행복의 성취보다 훨씬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내게는 평생에 걸쳐 계속해서 하느님 나라를 찾도록 이끈 어떤 끈 같은 것이 있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이 땅을 사랑했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 땅보다 더 밝고 힘차고 생기 있는 땅이 있으며,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주 일찍부터 나는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구하여라……’ 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이라는 예수의 말씀을 알았고, 예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고 느꼈다. 그러나 또한 부모님께서서 최고의 사랑과 행복은 자신의 가족을 위해 사

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신다는 것도 예민하게 알고 있었다. 교회에서 나는 ‘우리도 선조들처럼 당신을 위해 죽을 수 있기를……’ 이라고 노래하며 즐기고 있는 중년의 사람들을 보기도 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을까? 나는 열두 살에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그런 모습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놀랍고 당황스러웠다. 자유감리교회Free Methodists의 수련회는 나를 끌어당기기도 하고 밀쳐내기도 했다.

전쟁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나는 제1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1918년에, 겉으로는 안전해 보이는 뉴욕의 시골 지역에서 태어났다. 그렇지만 아주 어린 시절 퇴역 군인들이 전쟁 때 프랑스에서 겪었다는 경험담을 듣는 기억이 있다. 어느 날인가는 친구와 함께 친구네 할머니 집 응접실에서 참호전 광경을 찍은 환등기 사진을 여러 장 발견하기도 했다. 나는 의심스러웠다. 내가 아는 평범한 사람들이 실제로 다른 사람을 죽였다니!

우리 감리교 주일 학교에서는 평화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출판물을 퍼냈었고, 나는 그것에 흠뻑 빠졌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전쟁의 원인을 탐구하기도 했다. 아버지는 내가 통상적인 과정, 즉 좋은 대학과 안정된 직장, 그리고 성공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마칠 무렵, 나의



생각은 공화당 지역인 고향의 조그만 읍을 훨씬 벗어나 있었다. 나는 ‘생명’에 굶주려 있었다. ‘나는 그대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메리는 장학금을 받고 코넬 대학에 진학했다. 그곳에서 세속적 인본주의, 진보적인 정치 운동과 자유 성애주의에 영향받은 드넓은 세계를 알게 되었다. 그녀는 또 인종 차별주의와 전쟁에 대해 그녀와 생각이 같은, 대학의 활기찬 동아리 친구들도 찾았다.

“우리는 그 당시의 시대에 대해 대단히 급진적이었다. 그때는 스페인 내전이 벌어지고, 히틀러가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던 때였다. 우리는 우리의 평화주의를 철저히 생각해야 했다. 모임의 규모는 점점 작아졌다. 4학년 1학기 때 나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의기소침한 시절을 겪었다. 예수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이 점차 흔들리게 되었고, 비록 여전히 사회적인 복음을 붙들고는 있었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평화는 잃어버렸다. 나는 그것을 다시 발견할 수 없었다.”

이타카 근처의 고등학교에서 교직 의무를 마친 후, 메리는 철저한 평화주의자이자 반전 활동가인 아트를 만났다. 그녀는 “대학에 가기 전까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들어본 바가 없었음에도” 아트와 결혼했다. 결혼 후 메리는 남편이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

고는 놀랐다. 그렇지만 산상수훈을 존경하는 성실한 남편을 신뢰했다.

“그 다음 해인 1941년부터 1945년 사이에 우리의 영혼은 다른 모든 세대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았다. 그 ‘마지막 선한 전쟁’에서 내 남편처럼 히틀러와의 전쟁을 돕지 않겠다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았다. 우리는 또 전쟁터로 떠난 친구들 때문에 고통스러웠고, 바다 건너 전쟁으로 찢겨진 땅에 있는 수백만 사람들의 끔찍한 고통이 우리 양심을 괴롭혔다. 내가 다니던 옛 감리교회는 이제 설교단 옆에 미국 국기를 세워놓았고, 나는 다시는 그 작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대부분의 반전주의자들처럼 아트도 전쟁 동안 강제 구금되었다. 그는 노스다코다 주에 있는 민간 공중 복지 수용소에 보내졌다. 메리는 그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해 방 한 칸짜리 학교 건물에서 일을 구했다. 그러나 반독일 정서가 강한 그곳에서 평화주의자는 환영받지 못했다.

“어느 날 밤 내가 가르치던 아이들의 부모들이 학교로 몰려왔다. 다행히 그들은 곧 잠잠해졌다. 그들이 진짜로 화가 난 것은 인근 수용소에 있는 ‘겉쟁이’ 남편 때문이었다. 아트는 전쟁 종식을 위해—자신이 그 어떤 부분도 되기를 원치 않는—전쟁 기계 전반에 대해 저

향해야 한다고 느꼈고, 그래서 수용소를 걸어 나왔다.  
그는 바로 체포되어 여러 달 동안 수감되었다.

우리는 그 몇 년을 단순하게 통합된 삶의 방식, 즉 전쟁의 원인을 제거해 나아가는 삶의 방식을 원하는 몇몇 부부와 함께 보냈다. 우리는 공동체에 대해 공부하기로 결정했다. 나중에 우리는 그 중 몇몇과 함께 조지아 주 북쪽의 한 공동체에 정착했다. 그러나 함께 살아가는 동안, 악에 대처함에 있어 역량이 모자란다는 사실, 그리고 신념과 사상에 있어 일치할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이 고통스럽지만 점점 분명해졌다. 그때는 변화의 시기였다.

아트와 나는 친구들 속에서—그들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그리고 여러 가지 가치 있는 신조들 속에서 ‘하느님 나라의 정신’의 많은 것을 경험하였으며, ‘선한’ 사람들 속에서 많은 선한 것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 안의 악은 물론 모든 인간 안의 악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인 하느님 나라의 왕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나는 예수를 항상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나는 끊임없이 예수께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다. 일단 그렇게 하자, 내가 얼마나 빨리 믿을 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 놀라운 경험이 이어졌다.

나중에 나는 내 경험을 친한 친구인 하인리히에게

말했다. 나는 ‘그게 바로 내게 일어난 일이야. 그렇지만 나 또한 판단받았을 뿐이야’ 라고 한 그의 대답을 잊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의 겸손함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 역시 판단받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옛날을 돌아보면서, 메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회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나는 이제 내가 선한 자아상과 하느님에 의해 사용되기를 바라는 야망을 가지고 하느님 나라에 맞섬을 보게 되었다. 나는 하느님이 내게 주신 선한 것들을 개인적으로 소유했으며, 반역적인 내 마음을 기꺼이 드러내놓으려 하지 않았다. 빛은 그러한 악함을 어루만지기도 전에 내 마음의 틈새를 지나가야 했고, 부끄럽게도 그 작업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형제자매의 도움으로 내 속과 같이 일치할 때까지 싸웠고, 그리고는 놀라운 자유가 나에게 찾아왔다.

내가 지닌 가치가 젊은 시절에서 급격히 이동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내 가치는 이상주의(예를 들면 형제애)에서 벗어나 선을 위해 서로에게 헌신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으로 나오면서 더 깊어졌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우리들 안에 있게 하

여 주십시오’ 라는 예수의 ‘마지막 기도’ 가 내 힘이  
자 내 기쁨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활동적인 일을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는 나에게 점점 더 경이로우면  
서도 책임 있는 일이 되고 있다.

물론 나는 예수가 주는 평화를 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완전한 평온함은 아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투쟁의  
시간들이 있다. 나에게 있어 평화는 사랑이라는 무기로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를 포함해 모든 영역을 정복하며,  
그렇게 해서 얻은 것들을 하느님께 드리는 성령의 투쟁  
이다. 이러한 평화를 경험하고 그것을 값비싼 진주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다.

하느님 나라를 위한 싸움이 범 우주적임을 생각할  
때, 나는 특별히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과 그가 우리의 조그만 투쟁들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  
심에 경외감을 가지게 된다. 나는 우리의 개인적인 이야  
기들이 이 싸움에 속해 있다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그것  
들은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떨  
리는 마음으로 하느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영원히 지속  
되는 것을 바라본다. 어쨌든 나는 그것이 계속해서 펼쳐  
질 것으로 믿는다.”

메리의 생각은 우리를 마음의 평화에 대한 탐색 너  
머로 데려가서, 오직 목숨을 잃는 이들만이 평화를 발견

하리라는 역설적인 진리로 되돌아가게 한다. 하느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너무도 철저히 포기한 나머지 개인적인 성공을 위한 자신의 모색 따위는 중요하지 않게 된 사람들은, 백배로 그것을 되돌려 받을 것이다.

“우리의 생명은 점점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넓어지게 되며, 점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게 되며, 점점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부해지며, 점점 아는 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관대해지며, 점점 냉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열정적이 되며, 점점 나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담대해지며, 점점 공허해지거나 인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느님으로 충만하게 되며, 점점 슬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행복해지며, 점점 무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창조적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예수이며 자유와 평화인 그의 영이다. 그는 우리에게 오고 있다. 기뻐하며 그의 빛나는 미래로 나아가자!” (에버하르트 아놀드)

## 안전

나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는 듯 가장하거나 그것을 부정하거나 또는 그것을 빼내버리

기를 원하신다고 여기지 않는다. 두려움은 우리가 망가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우며 전적으로 하느님께 의존하는 피조물임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조종하거나 규정짓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이 믿음과 사랑에 복종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불신하게 되고 노예가 되며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된다.

나는 그 투쟁을 겪어왔다. 즉 내 두려움을 받아들여 그것의 지배는 거절하였으며, 두려움은 단지 겉만 보는 데 반해 믿음과 사랑은 속을 보고 진실을 보며 이른바 “용기를 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느님의 전문 분야를 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필립 베리건

나는 내 생애 두 번이나 마더 테레사를 만나는 특권을 누렸다. 그리고 그 두 번 다 같은 사실에, 즉 그녀의 고요한 확신에 감명을 받았다. 마더 테레사는 캘커타 빈민들과 죽어가는 이들에 대한 사역으로 역사의 맨 앞자리에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가난한 이들을 섬기며 지내 본 사람은 누구라도 선한 행위만으로는 그 일을 완수할 수 없음을 알 것이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투신했다가 좌절하고 피곤해한다. 마더 테레사의 평온함은 그녀의 사역보다 더 깊은 무언가에 뿌리 내리고

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소명에 대한 안전감, 그리고 인생에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한 확신이다.

안전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 그것은 확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근심이나 회의가 없음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우리의 목표와 정체성, 이 세상에서의 목적에 대한 통찰을 의미하기도 한다. 마더 테레사는 이러한 목적의식이 특히 강했다. 그녀는 자신을 하느님의 손 안에 있는 연필로 비유했다. 이러한 의식은 어떠한 비판이나 비난에 직면해서도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오늘날 사람들한테는 강한 정체성이 없다. 키르케고르Kierkegaard가 한 세기 전에 지적했듯이, 어떤 반대 소신을 갖는 것뿐 아니라 어떤 소신을 지니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 이러니 극소수의 사람만이 평화를 발견하는 것이 어찌 놀랄 일이겠는가? 나는 마더 테레사의 열성과 헌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충고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소명이 있고, 평화로 가는 길은 뜻밖의 사태와 반전으로 멀고 험하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하느님 앞에서 확신을 느끼는 이에게 찾아오는 내적 안정감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안전함이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평화의 열매다.

브루더호프 식구인 프레다 뒤로프는 1930년대에 고국인 영국을 떠나 독일에 있는 우리 공동체를 찾아왔다.



이 선택은 겉보기엔 이목을 끌 만한 것이라곤 거의 없다. 우리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은 극심한 가난을 받아들이고 낮은 언어와 관습을 배우며 자신의 고국과 전쟁을 벌이려는 나라로 옮기는 것을 의미했다. 그럼에도 프레다는 자신이 바른 길을 선택했다고 확신했다.

“물질적인 어떤 것에 끌린 것이 아니다. 보장된 평화를 버리고 싸움에 들어선 것은 오히려 확실한 소명 때문이었다. 공동체는 극도로 가난했으며, 생활은 고단하고 힘들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단념시키지는 못했다. 이곳에는 파편화되어 가는 세상 속에서도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해답을 살고 있었다. 사유 재산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함으로써 계급 차별을 없애고 사회적 불평등을 폐지했다. 누구도 어떤 것을 소유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눠 가졌다. 이는 단순히 환상도 아니고,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행적들처럼 글로 쓰인 어떤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실재였다.

나는 공동체에 참여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랜 세월 동안—런던 빈민가에서 가르치고 일하면서—갈구했던 하느님의 평화가 나와 함께 있음을 마침내 느꼈다. 물론 나는 평화를 얻기 위하여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다. 집과 가정, 가족과 친구, 조국과 언어, 부르주아 삶의 안락함 등등을 말이다.

아무도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가장 가까운 이들과 불화를 겪었으며, 심지어는 나를 증오하기까지 하는 데 깜짝 놀라고 상처를 받았다. 이후 나는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즉 내가 갖고 있던 개인주의(비록 내 양심은 아니지만), 자기 의지, 갖가지 확고한 의견들을 버려야 했다.

그 대신에 나는 고귀하고도 과분한 사랑을 얻었고 예수가 말씀하신 평화를 찾았다. 그것은 죽음을 포함한 모든 것을 통해 하느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확신이다. 나는 살면서 떨리는 일을 여러 번 겪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공포를 겪었고, 대서양에서 전쟁이 한창일 때 남아메리카를 위협스럽게 횡단했으며, 그 시기에 첫 아이를 낳았다. 극도로 위험한 상황도 있었고, 때때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그렇지만 밑바닥에서는 이상하게 언제나 내적 평온과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느꼈다. 내가 그 외에 누구를 신뢰할 수 있었겠는가? 이러한 평화는 내가 비록 위험 속에 있을지라도 하느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나왔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손 안에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인생은 그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평화 또한 그대에게 굴러 들어오지 않는다. 거기에는 언제나 투쟁이 있으며, 감당해야 할 선택이 있다.

젊은 시절을 돌이켜보면, 나는 평화를 찾는 데 몇 년이 걸렸다. 나는 하느님을 섬기는 것과 물신物神을 숭배하는 것 사이에서 흔들렸고, 이 흔들림 때문에 평안할 수 없었다. 나는 모든 젊은이가 열망과 좌절, 심지어 엄청난 혼돈의 경험을 겪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무엇이 나를 도왔는지를 알고 있고,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똑같은 것을 하라고 조언할 수 있다.

찾으라! 그대가 발견할 때까지 찾으라. 그리고 포기하지 마라. 비록 그대에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기도하라.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불신자’ 라도 신음할 때는 들어주시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그대를 줄곧 도우실 것이다.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대가 진정으로 염원한다고 알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도록 피는 유혹을 피하라. 만약 그대가 넘어졌으면, 그대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가던 길로 되돌아가라.”

인생의 대부분의 일이 그렇듯이, 안전함도 영원하지 않다. 안전함은 분명 평화의 열매이지만, 투쟁이나 두려움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극복될 수 있고 또 극복되리라는 확신이다. 내 할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세상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기분은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무력화시키는 예수의 평화는 그런 식의 기분이 아니다. 평화는 그 이상이며,

만족이나 안락감보다 더한 것이다.…… 새로운 물이 끊임없이 흐름으로써 썩거나 마르지 않는 강처럼, 평화는 항상 새롭고 신선하다. 평화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계속하여 경험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 안에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하신다.

기분과 느낌은 오고 간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끄는 손을 잡도록 권유하는 사랑의 자극이다. 안에서부터 그것들의 특성이 점점 강해지다가, 결국에는 그 신경 조직이 최악의 날씨만큼이나 파동을 치면서 포악해질 수도 있지만, 내면의 삶은 별로 뒤집어지지 않는다.

강한 바람이 강의 흐름을 거슬러 불어올 때, 표면은 어지러워지고 잔물결이 일어난다. 마치 물이 상류로 끌려가는 것 같다. 그렇지만 강의 흐름은 경로를 바꿀 수 없다. 맞바람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강바닥 깊은 곳에서 강은 아래로 흘러간다. 그러니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다루도록 해주자. 만약 평화가 우리 영혼을 지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여정을 확신할 것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뒤흔들 수 없다.”

나는 《신비를 말한다》라는 책에서, 인간의 확신에 가장 커다란 도전을 제기하는 듯이 보이는 것, 즉 죽음에 대한 우리의 보편적인 두려움에 대해 언급했다. 여기

서 그것을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평화에 대한 이 위협조차도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확신과, 사도 요한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이라고 말한 사랑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마틴 루터 킹은 엄청난 카리스마와 겁 없는 솔직함으로, 인종 평등주의라는 신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그는 궁극의 대가를 지불했다.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킹도 분명 죽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몇 번인가 그를 만나고 그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때마다 그는 깊은 고요와 평화를 발산하였다. 그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 아무 의심이 없는 사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크나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데 전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다.

1963년, 한 시민 권리 집회에서 그는 “만약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자마자,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라고 청중에게 말했다. 친구들은 그에게 위협을 좀 줄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그는 친구들의 걱정을 떨쳐버리며 “나는 내 안전을 염려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두려움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내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내가 정복한 두려움이 하나 있다면, 그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이 무언가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면, 그 사람은 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식구인 막달레나 볼러는 십대 때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그때 매우 다른 상황에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했다. 그 경험을 회상하며 그녀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했다. 일단 평화가 가슴에 가득하게 되면,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내 인생에서 평화는 낮설고도 가장 경이로운 방식으로 찾아왔다. 평화가 몹시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내 어머니한테서 평화가 흘러넘치는 것을 본 것이다. 막내 동생 펠릭스는 생후 9개월 무렵 심하게 앓다가 갑작스럽게 죽었다. 우리 가족은 남아메리카의 외딴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의료 혜택은 기초적인 것밖엔 받을 수 없었다. 그때 어머니는 일기에 이렇게 쓰셨다.

‘펠릭스의 맥박이 매우 약하다. 간호사인 모니카가 아이에게 장뇌 주사를 놓았다. 나는 아이의 맥박이 다시 한 번 뛰다고 느꼈다.…… 그때 갑자기 아기의 눈이 활짝 열려 점점 넓어지더니 하늘처럼 푸른색을 띠었다.…… 그러나 이제 그 눈이 흐려지고 있다. 나밖에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모니카, 아기가 죽어가고 있어요! 나는 울부짖었다. 우리는 손을 모았다. 뜨거운 탄원 속에 담긴 기도의 말이 하늘로 올라갔다. 주여, 당신의 뜻이라면 그에게 생명을 주소서. 그렇지만 나는 결

정미 이미 이루어졌음을 잘 알고 있다. 아기는 해방되었다. 예수여, 오소서! 이 말이 우리의 가슴에서 터져 나왔다. 그렇다. 예수는 왔다. 그는 이 아기를 자기에게 데려가기 위해 오셨다. 그래도 여전히 이 작은 심장은 약하게 뛰고 있다. 또 다른 주사를 놓고 인공 호흡을 시도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러기엔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았다.

아기를 내가 안을 수 있게 해주세요! 모니카가 아기를 내게 주었다. 아기는 내 무릎 위에 놓였다. 고요하고 부드럽게 그 작은 영혼이 영원 속으로 가고 있다. 어쩌면 영원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 아닐까? 내가 보기에 귀여운 레오도 이것을 느끼고 있다. 그런 평화가 우리 주위와 우리 안에 있다. 고요함, 영원한 고요함이 깃들어 있다. 우리 아기는 자신이 왔던 천사에게로 되돌아가고 있다. 침묵하라. 지금은 말하지 마라. 아가야, 나는 너무도 큰 고통으로 너를 뚫어지게 보고 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이것은 기쁨인가, 아니면 고통인가? 나는 알 수 없다. 나는 오직 아기를 내게 선물하신 하느님께 되돌려주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서서히, 내 아기가 내 무릎 위에서 차가워진다.’

그때는 일요일 아침이었다. 나와 형제들이 산책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는데, 이웃 사람 하나가 한쪽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막내동생이 죽었다고 말해주었다. 나는 너

무도 놀라서 아기 방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다.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 어머니는 사랑과 눈물로 나를 바라보셨다. 나는 어머니를 껴안았다. ‘펠릭스는 예수님께 갔어’ 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어머니의 평화와 받아들임이 나를 압도했다.

9년 후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내게 어머니의 죽음은 특히 고통스러웠다. 나는 겨우 열일곱 살이었고, 한두 번 주말에 집에 갔을 뿐 거의 일 년 가까이 집을 떠나 있었다. 어머니는 우리 가족의 심장이었으며, 나는 어머니와 매우 친밀하게 지냈다. 이제 어머니는 가버렸고, 나는 어머니 인생의 마지막 한 해를 함께 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인가?

절망 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눈물에 젖었지만 빛나는 얼굴. 오래 전 나는 어머니가 막내동생의 침대 옆에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 장면을 떠올렸을 때, 어머니가 슬픔 속에서 내게 보여준 것과 똑같은 마음 든든한 평화가 내 가슴으로 흘러들어 왔다. 마치 어머니가 내어준 선물 같았다.”

막달레나가 느낀 평화는 드문 경우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 그렇지만 예수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것을 약속하신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이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



이러 하지 않기 때문에 드문 일처럼 보일 것이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사람들은 내게 두려움이 없는 것을 의아해하며 삶과 죽음에 대해 뭔가 신비스러운 생각이 있을 거라고 추측한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 나는 내 딸을 좋아하고, 책 읽는 것을 좋아하며, 아이를 어루만지는 것을 좋아한다. 죽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잃게 될 테니, 나는 죽음을 원하지 않으며 죽음이 두렵다.

아마도 내 인생은 온통 그러한 일시적인 욕구와 그것을 만족시켜 주는 것들로 채워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이러한 욕구들이 끝장나도록 만드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도록 허락하고, 내 가슴속에 있는 그것을 또 다른 욕구, 즉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과 그분께 헌신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죽음을 점점 덜 두려워하게 되며, 나에게서는 죽음이 점점 덜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내 욕구들이 완전히 변형되면, 그때는 생명밖에 남지 않게 될 터이고, 거기에는 죽음이 없을 터이다. 세속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대신하는 것이야말로 생명의 길이며,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여행해야 한다. 그렇지만 자신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는 각자가 잘 알고 있다.”

## 온전함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이 우리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잡아당긴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끊임없이 찢겨져 분열될 때, 어떻게 자신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

예수는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참고 견디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누가복음〉 21: 18~19)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느님이 더 깊이 우리를 알고 계심을 신뢰할 때 우리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느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가심을 믿을 때 세상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다.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그렇다, 머리카락 하나하나도, 우리 주님의 신성한 보살핌 속에서 완전히 안전하다는 진리를 충실하게 따를 때에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다르게 말한다면,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헨리 나우웬

평화를 향한 탐구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어떤 공통된 맥락이 있다. 조금 더 크거나 작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모두들 온전함을 향한 여정

중에 있다. 어떤 이는 우정을 찾고 있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한다. 내적인 평온함을 찾는다는 사람도 있고, 전 세계의 화합을 지향한다는 사람도 있다. 이 모든 탐색은 삶이 분열되어 있다는 느낌과 그 분열을 극복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일어난다.

브루더호프 식구로 최근 80여 세의 나이로 죽은 찰스 헤드랜드는 나에게 자신이 평화를 찾아 나서게 된 것은 삶의 구획화compartmentalization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큰 회사의 회계사로 일하던 그에게는 그쪽 친구들이 한 무리 있었고, 평화 활동가로서 또 다른 무리의 친구들이 있었다. 또 교회 동료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그의 가족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각각을 연결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이 네 덩어리의 사람들 모두에게 헌신하기 위해 매일매일 균형을 잡아야 했다.

동료 목사로 제2차 세계대전 전 잠시 평화주의자로 살았던 존 하인도 당시의 삶의 방식이 거북했었다고 말한다. 밤과 주말에는 평화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낮에는 런던 로이드 사의 보험 중개인으로 일했는데, 이 일을 하면서 자신이 전쟁을 일으키는 요인, 즉 일종의 계급 분열과 사회 갈등에 매일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삶은 분열로 가득 차 있다. 가정과 직장 사이,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사이, 직업과 여가 활동, 정치적이고 전

문적인 것과 인격적인 것 사이에 분열이 있다. 각각 그 자체로는 잘못된 것이 없다. 문제는 이러한 분리된 영역들이 모순과 갈등을 일으킬 때 시작된다. 얼마 안 가서 불일치는 타협에 이를 수 있고, 그 후에는 위선이 생길 수도 있다.

다니엘 베리건은 이러한 딜레마의 뿌리가 되는 ‘분열된 양심’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평화시에 사제와 목사는 십계명, 즉 “살인하지 말라” 등등을 설교한다. 전쟁시에는 폭파범들을 축복한다. 전쟁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낙태를 찬성하고, 군국주의자들이 낙태를 반대한다. 그런가 하면 낙태 반대 운동가들이 사형제는 찬성한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어떤 특정한 악이 없어지길 원하며, 그리고 나서 세상이 더 좋아지고 있다고 느낀다. 사람들은 자신이 폭탄에 찬성하면서 동시에 아이들을 위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잊고 있다……”

랍비 케네스 코헨도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한다. 한 수필에서 그는 소름끼칠 정도로 이중적인 나치 당원의 삶을 독자에게 들려준다. 나치 당원들은 다정한 남편이자 아버지이면서 또한 전문적인 살인자이다. 그들은 “아침에 유대인을 쏘고 오후에는 모차르트를 듣는다.” 이 예는 극단적이지만, 불일치가 해결되지 못할 때 평화뿐만 아니라 생명 자체를 위협하는 행태의 최후가 어떤 모습일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에 대한 그리스도의 응답은 간단하면서도 분명하다. 그리스도는 내면은 외면과 같아야 된다고 하면서, 모든 것은 그것을 잃어버려야만 다시 발견될 수 있으며, 우리의 목숨도 버려야만 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삶의 모든 면을 균열 없이 완전하게 결합시킬 것을 요구하며, 생명을 가져다주는 모든 선한 것을 지키는 한편 파괴와 죽음을 유발하는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맞서는 일관된 투쟁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온전함 wholeness은 하느님의 평화를 위한 전제 조건인가 아니면 그 결과인가? 징검다리인가 아니면 결실인가? 나는 그 온전함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사한 풍성한 삶의 표지요 평화의 상징으로 본다. 그리고 평화로 가는 통로라기보다는 평화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임 강사로 일하다가 최근 부인과 함께 우리에게 온 찰스 무어라는 사람은 삶 속에서 온전함을 열망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그는 그 탐색이 개인적이고 자신이 그 중심에 있는 한 만족할 만한 답을 찾지 못할 거라고 결론을 내렸다. 오직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점이 되도록 할 때에만 모든 것이 그 진정한 위치를 찾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10년 전의 내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삶이 조금씩 붕괴되어 가는 느린 죽음을 맞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내 젊은 시절에 격렬했던 기운은 빠르게 소진되어 가고 있었다. 분별없이 생활을 해서가 아니라 강박적으로 모든 것을 결합시키려고 노력한 결과였고, 내 자신이 선택한 것들이 녹아나면서 생긴 일이었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착하게 살며, 요구에 응하고,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데 붙들려 있었다. 참여해야 할 좋은 운동이 너무나 많고, 익혀야 할 지식도 아주 많았다. 또 만나야 할 사람, 맺어야 할 관계, 감당해야 할 의무, 탐험해야 할 기회도 너무 많았다. 그러나 내가 이 가능성의 회오리바람 속으로 빠져들자 나는 체계적으로 파편화되었다. 마음의 평화는 슬그머니 사라지고, 삶의 평화는 없어졌다.

지금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해하기가 그때보다는 쉬워졌다. 내 ‘자아’는 지나치게 헌신적인 존재의 이질적이고 흔들리는 맥락들을 통합해 낼 수가 없었다. 개별적이고 따로따로인 채로는 그 맥락들이 의미 있는 전체와 결합될 수 없었다. 나는 철학과 신학을 전공한 교수로서 가르치는 한편으로 대학원 공부도 해야 했다. 둘 다 시간을 요구했고 성실함을 필요로 했다. 내 인생의 이 두 부분은 단지 ‘생각’ 속에서만 결합되어 있었지 실제로는 분리되어 있었다.

공통의 믿음에서는 함께하지만, 전혀 다른 구조와 세계를 가진 담론 속에서 살아가는 동료들과 직업적으

로 관계를 맺기도 했다. 믿음과 행함이 완전히 반대될 때가 자주 있었다. 나는 반대되는 믿음과 행함이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성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삶의 요구들이 늘어나면서 내 힘으로 더는 감당할 수 없었다. 더욱이 나는 ‘학문하는 자아’ 로만 있을 수 없었다. 나에게는 다른 이해 관계도 있었다. 만나는 지점이 전혀 없어 보이는 다양한 영역에서 내 아내 레슬리, 나와 아내의 친구들, 내 가족과 아내의 가족이 맺고 있는 개인적인 삶이 있었다. 가끔씩 부분적으로 겹치기도 했지만 결코 조화를 이루지는 못했다.

내가 다니며 봉사하는 교회가 있었지만, 그 교회는 레슬리와 내가 참여하던 작지만 나름의 목적이 있는 공동체와는 분리되어 있었고, 우리가 관여하던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구제 사역과도 분리되어 있었다. 내가 속해 있는 활동가 집단이 조직한 일들이 있었고, 내가 일하며 공부하는 단체들에서 맡은 역할이 있었으며, 꼭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가족 모임이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원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었다. 그러나 실존적인 통일성은 전혀 없었다. 나는 안팎으로 조각나 있었다.

애를 쓰기는 했지만, 그것들을 ‘통합’ 시킬 수는 없었다.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면서도 모든 것을 동시에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나는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

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정교한 대응 장치를 만들었다. 친한 친구와 은밀하게 상담을 진행했고, 아내와 여가, 오락 등을 통해 ‘해방’의 기회를 만들었다. 대학원에서 연구 계획을 다시 세웠고, 교수 일을 조정하여 부담을 덜었다. 시간을 소모시키는 이러저러한 관계들로부터 물러났다. 그러나 깎아내고 조정하고 수선한다고 해서 목적을 이루지는 못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했지만, 나는 미친 듯 날뛰고 지쳐 있었다.

거기에 혼란스러움이 더해졌다. 예수를 뒤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바쳐서 하느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하느님에 의해 온전히 쓰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왜 나는 그 약속된 평화, ‘이해를 넘어서는’ 그 평화를 누릴 수 없단 말인가? 왜 나는 인생이 분리되고 찢겨져 있는 것처럼 느끼는가? 나는 왜 그리도 좌절하고 불안하고 피로운가? 우리 사회는 자기 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물질주의적이고 강박감에 사로잡혀 있다. 거기에는 공동체를 향한 여지가 거의 없다. ‘나’만 있다. 내 필요, 내 욕망, 내 강점과 약점, 내 가능성이 삶을 움직인다. 내 인생은 요새처럼 담이 쳐져 있고, 보호받으며, 선택된 극소수에게만 몇 군데 개방되어 있다.

이제 돌아보건대, 내 인생이 매우 충만하지만 한편 매우 불완전하게 느껴진 것은 역설적인 것 같다. 실질적으로는 내가 원하던 것을 모두 가졌다. 의미 있는 직업,



지적인 흥분, 이타주의적인 행동, 돌보아주는 친구, 물질적인 성공, 그리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낄 때마다 내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렸다. 그렇지만 나는 평화롭지 못했다. 내 삶의 영역은 넓었고, 나는 내 모든 선택을 열어두었다.

나는 내가 거대한 속임수, 즉 ‘그것은 너의 인생이니,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 라는 논리에 빠져 살았음을 알겠다. 나는 내 삶을 우주의 중심으로 삼았으며, 심지어 하느님을 섬기면서도 그렇게 했다. 하느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영적인 헌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광기에 빠져 있었다. 내 필요와 욕망을 맴도는 중간 계층의 생활 방식에 빠져 있었다. 나는 이러한 방식의 생활이 비실제적이며, 진실하지 못하고,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알지 못했다.

내 삶에 없는 통합성을 보상하기 위해 수많은 방법으로 노력을 했지만 허사였다. 내가 통일성이라는 어떤 느낌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은, 세상에 의해 주어진 관점, 즉 개인적인 성취와 독립에 중점을 둔 관점으로 사는 것을 멈추고 나서였다. 그리고 나서 나는 내가 해야 할 선택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바로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선택이다. 나는 이전의 방식으로, 즉 내 자신이 선택하는 다양한 요구와 관계를 협상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살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 전혀 다른 기초에서 시

작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자아가 아닌 공동체가, 개인적 성공이 아닌 서로 섬김이, 내 왕국이 아닌 하느님 나라가 전제가 되는 기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다.”

찰스와 레슬리 부부는 우리 공동체에 대해 듣고 찾아왔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정착하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 다 브루더호프에서의 삶이 모든 사람을 위한 소명이라거나 그런 ‘공동체’야말로 평화에 이르는 길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자신이 현재 느끼는 이 온전함의 느낌은, 다른 이들과 삶을 나눔으로써 가능해진 통합의 느낌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공동체에서는 개인과 공동체, 가족과 일, 실제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부딪칠 필요가 없다. 오히려 하나가 된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서로 헌신하며 양육되고 지지를 받는다.” 찰스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개인적인 평화에 대한 질문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현재의 내가 하느님이 계획했던 나와는 너무 거리가 멀다는 사실에 갈등한다. 비록 십자가가 이 간격을 메우고 있고, 믿음 안에서 그것을 붙들고 있지만, 불완전과 죄에 대한 싸움은 여전히 계속된다. 그렇지만 내 마음이 향하는 방향과 내 행동이 나아가는 방향이 이제는 더 이상 차이 나지 않는다. 내 삶의 내적 차원과 외적 차원이 실제적으로 일치하며, 의지의 힘으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평화라는 깊은 느낌으로 인해 결합되어 있다.

오늘날 나는 내 존재의 중심에서 자아를 없앴기 때문에, 훨씬 더 기꺼이 개인적인 계획과 목표를 포기할 수 있고 인생의 목적을 떠나보낼 수 있다. 하느님이 내 삶을 새로운 방식으로 다스리신다. 하느님은 내게 전에는 알지 못했던 온전함과 평화를 주셨다.

하느님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또 공동체가 가져오는 생산적이며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평화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공동체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모든 것이 하나의 전체로 결합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제공한다. 분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내 자신과 이웃과, 그리고 하느님과 평화롭게 지낸다. 그리고 내가 이 평화를 잃었을 때도 싸워서 평화로 되돌아갈 수 있고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있다. 나는 삶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기운을 소모하는 대신,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 더 위대한 어떤 것에 몰두할 수 있다. 즉 인생을 찢어 분열시키기보다는 통합시키는 것에 몰두할 수 있다.

내 평화는 개인적인 행복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평화는 진실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더욱 큰 전체, 구성원들이 단순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제요 자매인 집단에 속해 있다. 그것은 하느님의 평화가 준 풍성한 선물이다. 그리고 평화의 신비는

내가 그것을 위해 투쟁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눈이 자기 성취라는 신화를 지나서 더 풍성한 삶의 실체를 볼 수 있도록 열려 있었기 때문에, 내 삶에 찾아왔다는 것이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 또한 선택이다.”

## 기쁨

당신에게 없는 것을 내가 당신에게 줄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신이 가질 수 있는데 내가 줄 수 없는 것은 많이 있다. 우리의 가슴이 오늘 안에 평안을 찾지 못한다면 천국은 결코 우리에게 찾아올 수 없다. 천국을 누려라! 미래에 있는 평화란 없다. 평화를 누려라! 세계의 어둠은 단지 그림자일 뿐이다. 어둠 너머에, 그렇지만 어둠 가까이에 기쁨이 있다. 기쁨을 누려라!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어둠 속에 광채와 영광이 있다. 그것을 보려면 우리는 단지 주시하기만 하면 된다. 나는 당신이 주시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인생은 매우 풍성하게 베푼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이 주는 선물을 외피만 보고 판단해서, 그 선물을 추하고 무겁고 힘겨운 것으로 여기며 버려버린다. 외피를 벗겨보라. 그러면

그 밑에서 생생한 광채, 곧 지혜로 힘 있게 지은 사랑의 광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환영하고, 그것을 붙잡아라. 그러면 당신은 천사의 손을 만지게 될 것이다.

나를 믿으라. 우리가 시험, 슬픔 또는 의무라고 부르는 모든 것에 천사의 손이 있다. 선물도 여기에 있고, 어둠을 가져오는 존재의 경이로움도 여기에 있다. 우리의 기쁨도 마찬가지다. 기쁨도 기쁨으로만 만족하지 말라. 기쁨 또한 신의 선물을 숨기고 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인사한다. 세상이 하는 인사와는 전혀 다른 인사다. 깊은 존경을 품고, 그대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새 날이 시작되고, 어둠이 사라지기를 기도하면서 인사를 드린다.

—프라 지오반니Fra Giovanni

프리드리히 니체가 심하게 기독교를 비판한 것 중에 “기독교인의 문제는 그들에게 전혀 기쁨이 없다는 것이다” 라고 한탄한 것이 있다. 그렇다. 우리는 무엇이 행복인지, 무엇이 우리를 즐겁게 하거나 만족케 하며, 심지어는 황홀하게 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러나 기쁨에 대해서는 어떤가? 앞에서 소개했던 몰리 켈리에 따르면, 거기에는 중요한 구별이 있다.

“우리는 모두 살면서 행복한 순간을 경험한다. 그

러나 행복은 기쁨이 아니다. 기쁨은 당신에게 평화가 있을 때에만 찾아온다. 행복은 종종 피상적이며 덧없이 흘러간다. 반면에 기쁨은 우리의 영혼을 관통한다. 기쁨은 영구적이다. 행복은 좋은 느낌이다. 반면에 기쁨은 고통과 함께 올 수도 있다. 행복은 흔히 승리와 연관되어 있다. 반면에 기쁨은 행복과 더불어 온다.”

그렇다면 기쁨이야말로 분명히 더 큰 선물이다. 그렇지만 프라 지오반니가 말한 것처럼, 고통이나 괴로움으로 변장한 선물이 자주 기쁨에 앞서 나타난다. 이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추하고 무겁고 힘겨운 것으로 여겨 내던져버리기 때문에” 기쁨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다.

에발트 폰 클라이스트는 나치 처형자의 손에 죽기 얼마 전 쓴 글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받아들일 때조차도 기쁨의 본성과 의미에 대해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을 찾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다음은 그의 결론이다. “우리 인간이, 특히 백인종인 유럽인이 매사에 잘못된 가치 판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날마다 점점 더 분명하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소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세상은 더 이상 가치의 진정한 척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사람들은 덧없는 목표를 좇으며, 무엇이 행복인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자신이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지도 더 이상 알지 못한다.”

우리 교회 식구인 미리엄 포츠는 자신에게는 기쁨, 감사 그리고 평화가 서로 얽혀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평화를 누리나요? 당신은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나요?’ 라고 묻는다면, 나는 대답을 주저하게 된다. 그것은 감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가끔은 내가 믿음이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겠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 기쁘세요? 행복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나는 즉시 온 마음으로 ‘예!’ 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내 일을 사랑한다.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보내려고 책을 포장하는 일처럼,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 나는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일할 정도로 아주 바쁠 때 가장 행복하다. 내가 만약 행복하지 않다면, 그때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다. 내가 받은 축복을 헤아리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면 나는 다시 행복해진다. 그러나 만약 내가 평화롭지 못하다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그것은 같은 것이라.……”

앤은 오랫동안 행복과 성공을 찾아다녔다. 그리고 나서 자신만을 돌보기를 그만두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께로 돌렸다.

“인생에서 추구해 온 평화, 사랑, 기쁨, 그리고 다른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할 때, 내가 처음 브루더호프에 왔을 당시 친구들이 내게 한 질문이 생각난다. 사랑스러운 남편과 건강하고 예쁜 네 아이가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가정이 있는 여인이 어째서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른 이들과 인생을 나누려고 하느냐는 질문이었다. 그 질문에 진실하게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을 설명해야겠다. 그들이 바깥에서 본 것은 그들이 만약 나의 내면을 볼 수 있었다면 보았을 수 있는 것과 격차가 매우 컸다는 것이다.

나와 내 남편은 교회와 신도들 사이에서 활동을 많이 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섬기고, 함께 나누고, 다른 이들과 함께 있는 것에서 일종의 행복감을 느꼈다. 우리는 우정에 감사했다. 그리고 그 우정을 더 많이 갈망하다보니 그 이상의 공동체를 찾게 되었다. 우리는 더 큰 헌신을 추구해야 한다고 느꼈고, 곧 주일에만 다니는 기독교로는 부족하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수요일 저녁 성경 공부도 충분하지 않았다. 나에게 있어 중대한 질문은 ‘그 모든 것이 있는가?’ 였다. 나는 한 여인이 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아니면 적어도 그것을 얻어가는 중에 있다고 느꼈다. 그런데도 내면에서는 ‘나는 모든 것을 원하지 않아. 인생에는 멋있



는 배우자와 자식들, 안락한 가정과 경제적 안정 이상의 무언가가 틀림없이 있을 거야' 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나는 자포자기 심정이었고 무서웠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나는 밖에서 볼 때는 꽤나 좋아 보이는 가정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로, 어머니는 가정주부로 열심히 일했다. 우리는 주일 미사를 빠트린 적이 없으며, 금요일에는 금식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고해성사를 하러 다니는 '열렬한' 가톨릭 가정이었다.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엄격했다. 당신은 '육체적 죄'에 빠져서 지옥에서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나는 두려워하도록, 즉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나빠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하느님이 나에게 할지도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배웠다.

사람들은 우리를 좋게 생각했고, 아무도 우리가 이미 지옥 안에서 멸망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아버지는 점잖고 열심히 일하는 가족적인 남자였고, 어머니는 우리를 사랑했다. 지금 그들을 되돌아볼 때, 내가 항상 감사해야 할 일이 있다. 많은 아이들이 굶주리고 부모 없이 자라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두 부모와 함께 풍족하게 잘사는 아이들도 수많은 잔학 행위들로 인해 고통받는다. 그 아이들의 상처는 정상 가정이라는 겉면 뒤에서 말로 표현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은

채로 숨겨져 있다. 그리고 아무도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다.

예를 들면 아무도 오빠가 나를, 내가 여섯 살 때부터 3년 동안이나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것을 모른다. 그 다음에 오빠는 여자 친구가 생겼다. 불안정한 침대였던 내 언니가 어떻게 가족 앞에서 아버지에게 핵대로 맞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건 단지 아버지가 언니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고 화를 억누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저녁 식탁에서 우유를 엷지르는 것 같은 사소한 일 때문에 아버지가 두 시간 동안이나 크게 화를 내신 것도 아무도 몰랐다.

우리는 실수할까봐, 아버지를 화나게 할까봐 두려워하며 살았다. 결국 아버지는 퇴근 후 집에 와서는 매일 밤 여섯 병이 넘게 술을 마셨고, 주말에는 한 상자를 마셨다. 아버지는 술 때문에 평정을 잃은 때가 일주일에도 몇 차례나 되었고, 그러면 어머니를 포함해 우리 모두는 그 앞에 앉아서 말없이 지루하게 견디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아버지는 매일 저녁 오랫동안 어머니에게 더러운 음담패설을 늘어놓으며 장황한 얘기를 하고 또 하고, 심지어는 주먹으로 탁자를 세게 치기도 했다.

늦은 밤, 우리는 간혹 아버지가 자다 일어나 소리치는 것을 들곤 했다. 이유는 어머니가 ‘육체 관계’에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우리 형제들은 자기 방으로 달려가서 베개 밑에 머리를 숨기거나, 집을 나와서 잠시 머물 만한 친구 집을 찾거나, 또는 TV 소리를 높이거나 했다. 우리는 두렵고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다. 아버지의 화를 외면하는 것 외에는 달리 어쩔 방도가 없었다.

그 모든 고통을 피하기 위해 내가 한 한 가지 일은 노래였다. 나는 노래하고 또 노래했다. 노래를 너무 많이 불러서 형제자매들이 나를 심하게 괴롭히기까지 했다. 나는 ‘그래도 적어도 난 싸우지는 않잖아’ 라고 말하곤 했다. 물론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노래는 내 근심의 배출구였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꼈고 사랑받기를 아주 많이 원했다. 나는 내가 착하게 행동한다면 다른 이들이 행복하겠지 하고 생각했다. 또 우리가정이 평화롭기만 하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더 어렸을 때는 무언가 올바른 일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어쩔든 나는 별로 가치가 없다고 느꼈다. 내가 십대가 됐을 때 사태는 더욱 나빠졌고, 나는 일상의 그 온갖 심술궂음 속에 빠져들게 되었다. 가장 나쁜 것은 그 모든 것, 내 어린 시절의 요구나 사춘기의 죄들이 숨겨졌다는 것이다……

결으로 나는 ‘정상적이고, 점잖고, 심지어 종교적’ 이기도 한 젊은 여성이었다. 그렇지만 내면에는 혼

란과 어둠이 있었다. 내 인생은 하나의 커다란 거짓이었다. 결혼을 했을 때, 문제의 절반쯤은 저절로 풀릴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문제는 계속될 뿐이었다. 내 어린 시절이나 젊을 때와 마찬가지로, 내 결혼도 멀리서는 좋게 보였다. 그렇지만 정직하게는 혼란이었다.

나는 어린 소녀 시절 내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절망 속에서 도와달라고 기도했다. 그렇지만 그분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 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나는 나뻐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확신했다. 내가 사랑받고 돌봄받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나는 점점 더 굳어져갔으며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

이제, 결혼을 하여 식구들이 늘었지만, 나는 여전히 전혀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 나는 오랫동안 내 자신을 의심하고 증오해 왔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느낌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기 시작했다. 나는 전 세계를 증오한다. 나는 화가 나 있고, 사람들이 나를 거절할 것이며 가치 없다고 느낀다. 감정 상태로 보면 나는 파산이 난 상태였다.

무엇보다도 나는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전혀 다른 곳에서 찾았다. 솔직히 나는 한 가지를 바라며, 필사적으로 그

것을 추구했다. 나는 사랑받고 싶었다. 나는 남편인 밥에게서 사랑을 찾았다. 그러나 실패했다. 친구들에게서 사랑을 구했다. 그러나 그 또한 실패했다. 나는 또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상담을 받고 치유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기도 센터에 갔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용서하십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 어찌된 일인지 그 말은 내 이해 영역의 바깥에 머물렀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거나 경험할 수 없었다. 그 상담이 어느 정도는 유익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에게 계속해서 마음의 평화를 주지는 못했다. 그래도 나는 포기할 수 없었고, 포기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몇 해 전 밥과 나는 브루더호프 운동에 가담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이들과 함께 하는 온전한 공동체로 부르고 있으며,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기쁨과 자유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느꼈다. 우리는 집을 팔고, 어느 정도 빚을 갚고, 이사했다. 브루더호프에서 18개월 정도를 산 뒤, 우리는 정식 식구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준비하는 일종의 피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에게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했고, 그 전까지의 인생을 성찰해 보았다. 그것은 속죄의 과정이었지만, 당시에는 매우 고통스러웠다. 왜냐하면 그 과

정을 통해 우리의 결혼이 혼란스러웠음을 힘겹게 보았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서로를 그리고 하느님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이르렀다.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리는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부부이자 부모로서 우리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를 숙고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공동체는 애정 어린 마음으로 우리의 결정을 지지했고, 우리가 집과 밥벌이에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내가 평화, 곧 예수를 발견한 것은 바로 이 힘겨운 시기 동안이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굴욕적인 발견을 해야만 했다. 내가 자신의 행복에만 매달리는 완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음을 안 것이다. 나아가서는 내가 남편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 있는 것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남편이 나를 실패하게 만들었고 내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필요로 하고 원하던 ‘사랑’을 내게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정말로 밥은 여러 가지로 나를 실망시켰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감정적으로 거머리나 다름없었음을 알게 되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남편이 가지고 있던 사랑을 허물어뜨려 왔고 그가 뒷걸음질 치도록 원인을 제공했다. 요컨대 문제는 바로 나였다. 마침내 나는 나의 자아 찾기가 바로 내 불행의 주된 원

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다.

나는 하느님께 진리를 보여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간청했고, 이번에는 그분이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었다. 하느님은 그렇게 해주셨다. 나는 갑자기 내 자신에게 연민을 느끼고 다른 이들이 나를 상처입혔던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대신, 내가 다른 이들에게 저지른 상처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특히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은 열망을 느꼈다. 또한 하느님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그 보답으로 그분의 사랑을 느꼈다. 나는 하느님의 받아주심과 용서하심을 느꼈다.

그 당시 <마가복음>에 있는 한 구절이 내 마음과 닿았는데, 그것이 나에게서는 진짜가 되었다. 그 구절은 건강하고 강한 자는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오히려 병든 자들이 의사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얼마나 큰 위안이 나에게 흘러넘쳤던가! 오랫동안 나는 눈먼 채로 지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행복이 진정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죄인인 나에게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난 것은 전율이 이는 경험이었다. 그 경험은 새로운 믿음을 위한 초석이 되었고 내 마음에 새로운 기쁨을 선사했다.”

밥과 앤은 지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서, 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서로를 보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혼을 비참하게 만든 모든 일에서 서로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나아갔다. 곧이어 그들은 우리 공동체로 되돌아왔고 온전한 식구가 되었다. 앤은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인생은 어떻게 계속되는가? 일단 그대가 평화를 찾으면, 그대는 그것을 영원히 가지는가? 내가 평화의 느낌을 항상 갖는 것은 아니다. 또 언제나 하느님의 사랑에 진실한 채로 머물러 있지도 못한다. 나는 여전히 근심스런 감정과 싸우기도 하고, 걱정과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기도 한다. 또 여전히 진실되기 위해서 싸워야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그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유혹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내가 쓰는 전투 구호가 있다. ‘예수는 내 몸과 마음, 영혼 가운데서 승리하셨다!’

나는 언제나 죄인일 수밖에 없다. 나는 처음부터 선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하느님께 나아왔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며 기운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하느님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도 충분하며 하고 있는 일도 많다. 다른 이들을 섬기고 옛 자아를 잊어버리며 하느님을 위한 과업에 헌신하면 할수록 나는 더 행복해진다.

다른 이들을 위해 일을 하는 데는 성취감이 따른다.



어떤 일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날은 아기를 안거나 청소하는 것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다른 날은 누군가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거나 세탁을 하면서 행복해한다. 나이든 분들을 돌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고마워한다. 나에게에는 여전히 상처 자국이 남아 있다. 그러나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인다. 다른 이들을 위해 나를 내줄 수 있게 되면서부터, 나는 나를 위해 살면서는 결코 발견하지 못한 선물을 받았다. 그것은 순수한 기쁨이다.”

## 행동

시간 그 자체는 중립적이다. 파괴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건설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내가 갈수록 더 실감하는 것이 있는데, 악의를 지닌 사람들이 선의를 지닌 사람들보다 시간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우리는 나쁜 사람들의 증오에 찬 말과 행동만이 아니라 선한 이들의 지독한 침묵에 대해서도 이 세대에 회개해야만 할 것이다. 인간의 진보는 꼭 순조롭게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 기꺼이 협력하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치열한

노력이 없으면 시간 그 자체는 진보를 정체시키는 힘  
과 한 편이 된다. —마틴 루터 킹

이쯤에서 독자들에게 뭔가 명백해지는 게 있다면,  
그것은 평화란 비활동inactivity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는 사실일 것이다. 평화에 고요함이나 휴식이 포함될 수  
는 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 가운데 자주 인용되는  
구절, “내 영혼이 그대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쉼을 찾  
지 못하네” 라는 구절은 깊은 진리를 담고 있다. 그렇  
지만 하느님 안에서 ‘쉼’이란 무엇인가? 자기 만족인  
가? 수동성인가?

평화라는 선물은 실현되지 못한 갈망에 대한 응답이  
다. 평화는 의심과 죄에서 비롯되는 파괴적인 소모가 끝  
나는 것이다. 평화는 온전함이고 치유이다. 그러나 평  
화가 이 모든 것인 만큼이나, 평화는 또한 행동과 새로  
운 삶으로의 부름이다. 평화는 기도와 명상에서 생겨나  
겠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새로운 책임과 새로운  
힘, 그리고 새로운 창조성을 가져온다. 흙 속의 씨앗과  
같이 평화는 조용하고 보이지 않게 싹을 틔우지만, 그  
다음엔 힘차게 생명을 터트리고, 꽃을 피우며, 마침내는  
열매를 맺는다.

내 할아버지는 《내면의 세계》라는 책에서 시간의  
끝은 활동의 끝이 아니라며, “그 언덕에 있는 도성의

문들은 닫혀 있지 않고 열려진 채로 남아 있다” 는 표현을 썼다. 평화라는 선물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다. 주위의 소란에 문을 닫는다든지 평화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처해 있는 곤경을 무시한 채로 평화를 우리 자신에게만 가두어둘 수는 없다는 말이다.

“이 생애에서 평화와 고요를 이루었다는 것은 훌륭하고 좋은 일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 사람들이 종종 인간적 경향에 유혹되어 예수의 기본 뜻을 무시하게 될 때가 있다. 예수는 일단 무거운 짐을 진 영혼이 새롭게 되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아가는 힘과 기운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결단력 없이 병어리 같은 정적 속으로 침잠하게 되면 예수가 우리를 부른 삶이 아무 쓸모도 없어지는 것이다.”

다른 이에 대한 자비로운 헌신과 명상을 똑같이 강조하는 참여 불교의 관점에서, 틱낫한은 베트남 전쟁과 그때 느낀 딜레마를 떠올린다. 평화의 열매는 관조인가, 아니면 행동인가? “수많은 마을이 폭격을 당했다. 나는 우리 절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뭘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다. 절 안에서 계속 수련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폭격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명상 터를 떠나야 하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한 후 둘 다 하기로 결정했다. 즉 나가서 사람들을 돕되 ‘참여하면서 충분히 깨어 있는 engaged mindfulness’ 정신으로 임하기로 했다.……

일단 견성見性이 있으면 행함이 또한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견성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가 동시대의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기를 추구한다면, 어떤 불가피한 책임이 우리에게 떨어지게 되고, 턱낯한과 다른 스님들이 그랬듯 그 책임과 씨름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배제한 채 단지 하느님과만 혹은 우리 자신하고만 조화롭게 살겠다고 선택할 수는 없다.

내 어머니는 20대 초반에 브루더호프에 들어온 뒤, 현실적인 조건에서 평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별하기 위해 여러 달 동안 분투했다. 어머니는 하느님께 헌신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가족과 친구들이 어머니에게 제기한 문제 때문에 흔들렸던 것이다. 네가 더 이상 ‘세상 속에’ 있지 않다면 어떻게 세상의 평화를 위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이었다.

어머니는 내 외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확실한 증거를 가진 답은 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그렇지만 평화를 위해 살려면 부르주아적인 삶의 행로에서 벗어나 다른 길을 따라야만 한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렇다고 그 길은 꼭 아무 활동도 하지 않은 채 경건하게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 공동체는 은자隱者적인 삶의 평화를 추구하거나, 방해받지 않고 우리의 목표만 추구하기 위해 세상과 사람들을 거부하

지 않아요.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나라 안팎에서 최근 벌어진 사건들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행동하고 분명한 입장을 취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확신하는 바를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표현하며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실천하는 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선택한 길을 평화롭고 고요하게 가기 위해 일련의 수도권 장벽 안에 우리 자신을 격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와 고요’는 내 어머니가 찾고 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것이었고, 이는 의미 없는 경주를 치열하게 벌이며 살아가는 중산층의 삶의 방식에 등을 돌린 많은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이 평화를 찾아 나섰을 때, 그의 탐구는 더 공허한 삶이 아니라 더 깊고 더 진실하게 성취하는 삶을 찾으려는 바람에서부터 솟아오른 것이다. 노병과 사업가, 주부와 목회자, 고등학교 중퇴자와 학식 있는 전문가, 이들 모두가 내게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즉 평화는 폭력과 탐욕, 욕망과 위선에 대해 그저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평화는 이 모든 것을 대체하는 무언가를 긍정하는 것이다.

앞에서, 자신이 일하던 회사가 무기 실험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고 직장을 떠난 존 윈터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폭력을 거부하고

평화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곧이어 평화란 전쟁의 부재보다 훨씬 더 큰 것임을 깨달았다. 나는 군대에 가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에 지쳤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단지 전쟁의 종결이 아니라, 전쟁에 대한 실제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나는 다른 방식으로 헌신하기를 원했다. 그저 싸워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살 수 있는 무언가를 바랐다.”

게어트루드 달가스는 공동체가 설립되고 나서 몇 달 뒤인 1921년에 내 조부모와 그들의 작은 공동체에 합류한 선생이었는데, 그녀 역시 똑같은 것을 느꼈다. 그 무렵 그녀는 한 잡지에 다음 글을 썼다. “우리의 꿈은 평화와 비폭력의 왕국이며, 하느님께 뿌리를 둔 자유의 왕국이다. 현재의 지배적인 상황을 비판하고 거부한다면, 한 예로 적극적인 반대 운동 같은 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우리가 자본주의, 계급간의 증오, 살인, 전쟁, 사회적 관계에서의 거짓을 비판하기 때문에, 감히 전적으로 새롭고 다른 삶에 도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그저 다양한 계급과 직업을 지닌 몇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무기 보유를 거절한다거나 하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전체 사회의 가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국가와 교회, 사적 재산, 경제적·사회적 특권이 요구하는 것에 맞서는 공동체를 건설하고 있다.”

거트루드도, 존도, 내가 인용한 다른 누구도 세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공동체 그 자체라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브루더호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그들은 만일 평화가 행동과 헌신을 뜻한다면 평화에는 투쟁이 요구된다는 데는 분명히 동의할 것이다. 내가 40년 동안 알고 지낸 코넬대 졸업생인 딕 톰슨도 그렇다. 그의 이야기다.

“스무 살의 젊은이로서, 나는 현재의 세상에서 평화를 찾기란 거의 힘들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일본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면서 절정에 이르렀던 제 2차 세계대전 동안에, 나는 전쟁 소식과 선전으로 가득찬 신문을 보면서 자랐다. 또 존 루이스와 그가 이끌던 광산 노조가 대기업 경영진과 벌인 싸움도 잘 기억한다. 내 어머니는 민주당에 투표했고, 반면에 아버지는 공화당에 투표했다. 그러나 두 분 모두 하느님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한 게 없었고, 나는 종교에서 매력적이거나 희망적인 어떤 것도 찾지 못했다.

내게 신이 있었다면 그것은 과학과 인간의 지성이었고, 나는 내가 특별히 예리한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얻었다. 그렇지만 나는 세상에 존재하는 평화롭지 못함에 대해서는 거의 몰랐다. 심지어는 전쟁이나 가난, 억압이나 심각한 병 혹은—나는 결코 겪지 않을 것이라 여긴—그 어떤 정신적 도전 따위로 고통을 당

해보지 못한 내 자신 속의 평화롭지 못함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별로 없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나는 넘어 서지 못하고 곧잘 저지르곤 한 죄에 대한 죄책감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강렬해지는 내적 불일치에 시달렸다.

예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고 말하기도 했지만,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고도 말했다.

브루더호프에서 나는, 인생의 핵심 승부처를 찾았다는 확신 속에 평화와 기쁨을 발견한 보통의 남녀들을 만났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또는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를 알았다. 자신의 주님을 위해서, 그들은 어떤 고통이나 필요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곳에 내 마음을 감동시킨 평화가 있었다. 그 평화는 죽음과도 같은 침묵과 수동성으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로 용서하고 삶을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의 평화, 용기 있고 적극적이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어떤 악에 대해서도 거리낌 없이 반대한다는 의미의 평화이다.

이 평화와 기쁨은 이전의 내 인생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 평화와 기쁨의 근원에 대해 묻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라고 대답했다. 보지 않았



다면 나는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였다. 나 역시 할 수 있고 내 삶을 걸어야만 할 싸움을 발견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나만 브루더호프에서 그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 하느님의 나라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안다. ‘투쟁 속에서’ 평화를 찾는다는 생각은 초기 퀘이커 교도들의 저술 속에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조지 폭스, 아이작 페닝턴 Isaac Penington, 그 밖에 공식적인 종교의 잣대 미 한가운데서 믿음의 재탄생을 경험한 당시의 많은 이들의 글 속에 나타난다. 또 이전의 표범당원 Panthers과 필라델피아 운동 조직 Philadelphia’ MOVE organization을 포함해, 내가 알고 있는 정치범과 양심수 가운데도 있다. 이 사람들은 언어도 다르고, 브루더호프보다도 더 급진적으로 산다. 그렇지만 그들은 내가 설명하려고 애쓴 마음과 정신에 가까운 사람들이다. 인종과 사회 정의에 대한 그들의 비대중적인 입장 때문에 언론이 그들을 광적인 급진주의자라고 부당하게 악마 취급을 하지만 말이다. 그들과 편지를 주고받거나 만나서 얘기해 보면,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난(그들 중 몇 사람은 몇 년 동안이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 그들은 열정에 차 있지만, 폭력적이거나 비합리적이 아니다. 또 자신들의 싸움이 무엇

인지 알고 있다. 즉 자신이 인식한 대로 진실을 드러내고 그 진실을 고수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

내가 평화롭지 못한 젊은이로서 브루더호프를 찾았을 때 나를 감동시킨 것은 이 같은 평화였다. 자신들이 어떤 싸움 속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평화 말이다.

하느님이 자신의 평화나 사랑 또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은 그분의 것으로 남는다. 우리는 그것을 가져오거나 자기 것으로 할 수 없다. 우리에게 그것을 줌으로써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동안에는 우리가 가질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싸움에서 느슨해지거나 그 밖의 무슨 이유로 그 선물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하느님의 손에는 여전히 선물이 있으며, 우리는 그 선물을 위해서 그분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 우리가 평화라는 선물을 사용할 수는 없다. 오히려 평화가 우리를 사용한다. 우리가 의지로 평화를 지배한다면, 그렇게 지배하는 만큼 우리는 평화를 잃고 만다. 그러나 평화를 잃는다고 해도 우리는 풍요롭다. 평화를 어디에서 다시 찾을 수 있는지 알기 때문이다.”

작가인 에이미 카마이클 Amy Carmichael은 전장戰場을 비유로 들어 평화를 묘사한다. 그녀는 전투가 진행중인데 침대에 누워 있는 병사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지만, 오히려 전장에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평화를 누린

다고 말한다. 지휘관과 가까이에서 싸울수록 부상을 더 많이 당하겠지만, 또 가장 큰 평화를 누릴 것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평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모든 사람이 평화를 원하며, 아무도 평화에 대항하지 않는다. 그러나 누가 기꺼이 자신을 던져서 평화가 구체적인 현실이 되도록 일할 것인가? 행동으로의 부름은 사람마다 각각 다른 형태를 띠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행동주의로 가는 것일 수 있고, 다음 사람에게는 공동체로 인도하는 것일 수 있고, 그 다음 사람에게는 전적으로 다른 소명으로의 인도일 수 있다. 단순히 자신의 자리에서 화해의 소리가 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는 가정에서 더욱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뜻할 수도 있다.

위대한 행위가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행위보다 더 고귀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이유 때문에 정작 자기 주위에서 해야 할 일들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기도 한다. 심지어 자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닫기도 한다. 장 바니에 Jean Vanier(정신지체 장애인 공동체 라르쉬L' Arche'의 설립자—웁긴이)는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때로는 공동체에 함께 있는 형제자매의 외침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난한 이와 억압받는 이의 외침을 더 쉽게 듣는다. 날마다 함께 있으며 신경을 건드리는 사람에게 응답하는 일에는 화려하고 특별

한 것이랄 게 하나도 없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평화가 열매를 맺으려면 치러야 할 희생이 있고 감당해야 할 헌신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섞어 놓고는 아무것도 맡기지 않는 거짓 평화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평화는 상쾌한 바람으로 와서 그 길에서 있는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셨다. “개별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그에게서 배움을 얻어가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의 대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까닭이다. 먼저 그렇게 하면 우리는 개인적인 축복이라는 점에서도 가치 있게 될 뿐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위한 투사로서도 가치 있게 될 수 있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더욱 강렬하게 살아가자! 삶의 모든 측면에서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전혀 기다리지 않는 것이다. 나는 날마다 자신에게 묻는다. 충분히 희망했는가, 충분히 싸웠는가, 충분히 사랑했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한다면 행동해야 한다.”

## 정의

동기motive는 형제를 사랑함이며,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도록 요구받는다. 만일 종교가 가난한 이들과 노동자 대중의 필요를 무시하고 그들이 최악의 빈곤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두면서, 다른 한편으로 죽음 뒤에는 모든 눈물이 닦이는 새로운 삶이 있다는 약속으로 그들을 위로한다면, 그러한 종교는 의심스러운 종교이다. 누가 옳의 친구들이 했던 것과 같은 이러한 위로를 하는 이들을 믿겠는가? 반면에 종교를 고백하는 이들이 가난한 이와 함께 삶을 나누고 그들의 운명을 개선하기 위해 일한다면, 그리고 혁명가들이 하는 것처럼, 또 과거에 노동 운동가들이 했던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건다면, 다가올 영광이라는 약속에 대해서 진리의 확증이 있게 된다. 십자가는 부활로 이어진다. —도로시 데이

내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시위와 집회에서 들은 구호 가운데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것 중 하나가 “정의 없이는 평화도 없다No justice, no peace” 라는 구호이다. 평화에 관해 말하고 쓰는 일이 중요하다면,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뭔가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말해지고 행해졌을 때, 평화는 그것이 정의를 낳는 한에서만 현실이 된다.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나의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떨어졌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편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녹이고 배부르게 먹어라’ 라고 말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읽는다. 또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는 “결국 우리의 모든 영적 생활은, 그것이 이 세상에서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 한 아무 소용이 없다” 고 지적한다.

사회적 불평등, 억압, 노예제, 전쟁 같은 부정의가 다툼이나 분열과 손을 맞잡고 가는 것과 똑같이, 평화도 정의와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정의는 이러한 부정의가 극복되는 곳에서 번성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지구의 상태를 볼 때 사람들이 평화와 정의 둘 모두를 유토피아적 이상향으로 치부하는 것도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어딜 가나 소란과 고통이 있고, 비축된 대량살상 무기가 ‘인간의 생존’ 이라는 바로 그 생각을 비

웃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평화로울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몇 안 되는 부자와 강자의 변덕에 지구상 수백만 명의 삶이 대재앙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정의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내 할아버지는 60년 전에, 사적 재산과 평화의 연관성에 대한 글에서 “어떤 것에도 정의는 없다. 어리석음이 지배하고 있다” 고 썼다. 오늘날 할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사형수로 복역중인 작가이자 미국에서 가장 열렬한 정의의 대변자 중 한 사람인 무미아 아부-자말은 이렇게 썼다.

“평화라는 말이 너무나 유행하지만 실제 현실은 얼마나 평화와 거리가 먼가! 평화에 대해 쓰는 이들은 현실이 아닌, 미래에 대한 목가적인 계획들로 이상적인 영역을 다룬다. 어째서 ‘있게 될지도 모르는’ 것을 쓰는가? 왜 지금 현재에 대해서는 쓰지 않는가? 현재 상황이 우리를 규탄하기 때문은 아닌가? 비대해진 도시들, 넘쳐나는 교도소들, 죽음을 지연시키는 짐승 우리 같은 집들……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생명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 그러고도 감히 ‘평화’ 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는가? 이것은 냉혹한 평화다. 혼수 상태에 빠진 이와 열병에 걸린 사람들, 마약 중독자와 소외의 장벽으로 의기소침한 영혼들의 정적을 은근히 반기는 그런 류의 평화다. 이것은 죽음이 판치는 평화다.

이른바 감동이 시민을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국가의 군사화된 테러에 의해 억눌려 있던 기운이 우리 주위에서 조용한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 억압당하는 이들에게 ‘평화’를 외쳐대는 사람들은 억압자들과 동맹한 자들이며, 올가미가 목을 바짝 죄어서 숨이 막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해! 반항 좀 그만해! 이제 평화를!’ 이라고 충고하는 이들이다.

2천 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평화는 지구상에서 겨우 한 군데 뿡뿡그렁한 묘지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삶의 영역에서는 생명력이 전혀 없다. 그것은 강자를 위한 임시방편이요, 약자들을 매질하는 것이다. 평화가 진리인 것처럼 공언되지만, 단지 속삭이는 꿈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고 그 꿈조차도 여러 말로 흐려진다. 조지 오웰이 고전이 된 소설 《1984》(개인의 자유를 불허하는 일당 독재 전체주의 사회를 그린 소설—울긴이)에서 지적한 것처럼 ‘전쟁이 평화다. 자유는 노예 상태다. 무지가 힘이다.’

500년 전에, 콜럼버스의 신대륙 항해에 동행한 도미니크 수도회 수사 라스 카사스는 인디언 노예 제도가 효과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아프리카 사람을 노예로 수입하도록 허락해 주기를 요청하는 편지를 로마에 써 보냈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져 이후 수백 년 동안 교황의 각별한 축복 속에 수천만 명의 어른과 어린이가 아프리카



전역에서 불잡혀 차꼬에 채인 노예가 되었다. 노예 제도가 사라진 뒤에도 그들은 여전히 테러와 착취, 그리고 가혹한 억압으로 인해 파멸해 가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느님의 평화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들 대부분에게 그것은 신기루일 뿐이며, 우리의 멸망을 피하는 정치가나 재산을 착취하는 상인, 총을 쏘아 죽이는 경찰의 입에 바른 공허한 약속일 뿐이다. 또한 우리를 구속하는 재판관, 유죄 판결을 내려 합법화된 노예로 만드는 배심원, 그리고 사형 집행을 축복하는 성직자가 퍼트리느 거짓말에 불과하다.”

무미아의 비판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에 거슬리는 부당한 소리로 들릴 것이다. 비록 여기저기에서 위선이라는 가면 밑에 숨겨져 있을지라도, 평화의 영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그것도 잘 살아있다고 사람들은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확신할 수 없다. 무미아를 ‘신앙 없는’ 비판가라고 내치기보다는(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의 도전에 귀를 기울이고 그럼으로써 우리 자신이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설파하는 정의와 평화가 행위에 기초를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문구에 불과하다. 우리는 경건한 사기꾼으로 남을 뿐이다. 예레미야가 “저들은 내 백성의 상처를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치장한다. 저들은

‘평화롭다, 평화롭다’ 고 떠들지만, 그러나 평화가 전혀 없다” 고 비판한 사람처럼.

반면에, 비록 우리가 계속해서 하느님 나라의 비전 vision에 충실하지 못하고 그 비전의 정신에 따라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느님이 여전히 평화의 하느님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분의 다스림은 정의와 진리, 그리고 사랑의 다스림이다. 우리의 믿음이 겉만 번지르르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분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고발(우리를 나무라시는 것—옳건이)이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바싹 뒤따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우니, 얼마나 가련한가.” (애니 딜라드 Annie Dillard)

하느님 나라의 평화는 새로운 사회 질서를 요청하고 사람들 간에 새로운 관계를 요청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 감옥에 갇힌 자와 병든 자 편에 서라고 촉구하는 까닭이다. 예수가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고 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또 예수가 우리에게 “온 세계에 나아가서” 자신의 평화를 복된 소식으로 선포하라고 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만약 이 평화를 거절하는 이가 있다면 “그 집이나 그 성읍을 떠날 때에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려라” 고 예수는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에게로 인도될 필요가 있

다.

나는 몇 달 전 사무엘 루이즈 가르시아 주교를 만나기 위해 멕시코의 치아파스를 찾았다. 알려진 것처럼, 사무엘 주교는 그곳의 민중들, 특히 그 지역의 황폐한 산간 마을에 살고 있는 토착 농민과 함께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되어 온 사람이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사무엘 주교는 자신이 평화와 정의의 이중적 과제라 부르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그 과업에 사파티스타Zapatistas(1994년,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항하여 봉기한 멕시코 치아파스의 마야 원주민 농민 혁명 세력—오키니)를 변호하는 일이 포함되었다. 사파티스타는 토지 소유권과 의료 혜택 같은 기본적인 인권을 위한 투쟁 속에서 조직된 풀뿌리 운동이다. 그는 거침없는 발언으로 증오와 핍박을 받았고, 특히 억압적인 지방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았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암살 기도의 표적이 된 일도 두 차례나 된다. 1997년 12월에 나와 나눈 대화에서 사무엘 주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류를 위한 평화는 단지 전쟁의 부재 또는 폭력의 종결만은 아니다. 로마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거든 싸울 준비를 하라’ 고 말했다. 그들에게 평화로운 때는 전쟁을 준비하는 때였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에

게 평화란 인류와 하느님 사이의 근본적으로 새로운 관계에 기초한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화를 가져왔다고 말한 이유이다. 그리스도는 다른 평화를 가져왔다.

오늘날의 사회 안에서 그 평화는 정의의 기초 위에서 이해되고 세워져야 한다. 하느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이며, 정의와 진리 그리고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는 깊은 사회적 기초와 심오한 영적 기초를 지니는 것이다. 이것이 평화가 새로운 사회 질서를 요구하는 이유이다. 평화는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형제적 관계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것은 억압적인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를 요청한다.

우리는 평화란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이라고 이해한다. 그리스도는 ‘나는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나 평화는 또 과업이기도 하다. 평화는 우리가 발전시켜야 하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이들의 존재는 그리스도의 성례전적 현존이다. 그리스도는 가난한 사람의 성례전을 통하여 현존한다. 왜냐하면 예수가 스스로 말씀하시길, 우리가 받게 될 최후의 유일한 질문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관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다.’ 우리가 언제 이

일을 했는가?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 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것은 교리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실천에 대한 질문이다. 나는 실수를 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문받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평화는 가난한 사람에게서 나온다. 그는 평화로 가는 길의 중심에 있다. 가난한 사람이 인간 사회의 역사를 규정한다. 가난한 것은 사회적 대립의 결과이다. 거기에는 그를 가난하게 만드는 체제가 있으며 그에게서 빼앗아가는 체제가 있다. 가장 가난한 이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사회라면, 우리는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바닥에 으깨어지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하느님 나라에 정반대되는 사회이다.”

우리는 흔히 사무엘 주교 같은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편견과 두려움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들을 해산시키고, 심지어 그들을 죽임으로써 침묵시켜 버린다.

정의라는 대의에 헌신하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교의 의미에서는 평화를 이루어간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떤 사람은 확실히 평화롭지 않고, 적은 수이지만 심지어 무장 혁명을 주장하는 이도 있다.

그렇지만 목적과 수단에 대해서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억압받는 자들의 목소리라는 것과 그들을 위한 정의와 평화가 없다면 이 땅에 진정한 정의와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그들의 투쟁은 다른 참호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백인 유럽인과 미국인이 당연히 여기는 것과 똑같은 자유와 권리를 얻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하는 싸움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무시하는 한 그들의 투쟁을 공공연히 비난할 권리는 없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아사타 샤쿠르 Assata Shakur는, 1979년에 뉴저지 감옥에서 탈출하여 아바나로 피신한 뒤 그곳에 망명했다. 비록 오랫동안 폭력 선동가로 매도되었지만(결국에는 심한 인종 편견으로 얼룩진 재판에서 살인죄로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그 사건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진짜 범죄는 30년 전 검은 표범 단원으로 있을 때 한 그녀의 연설이라고 말한다. 1998년 초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쿠바를 방문할 당시에 쓴 ‘공개 서한’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미국을 지배하는 구조와 원리의 혁명적 변화를 지금까지 주장해 왔고 지금도 주장한다. 나는 자본가의 착취의 종언을, 인종 차별주의의 폐지를, 성 차별의 근절을, 그리고 정치적 억압의 제거를 주장한다. 만약 이런 주장이 범죄라면 나는 전적으로 유죄다.

감옥은 미국에서 거대한 사업이 되었고, 감옥을 짓고 운영하고 공급하는 일은 가장 빨리 성장하는 산업이 되어버렸다. 공장이 감옥으로 변하고 있으며, 수감자들은 노예 임금으로 일하도록 강제되고 있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초超착취는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가 제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거리에서 일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감옥에서 강제로 노역을 하게 된 것이다.

감옥은 경제적 착취의 도구로 이용될 뿐 아니라 정치적 억압의 도구로도 이용된다. 미국에는 100명이 넘는 정치범이 있다. 그들은 미국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푸에르토리코 인, 멕시코계 미국인, 아메리카 원주민, 아시아인, 그리고 진보적인 백인이다.

감옥 안의 상황도 미국 내 인권 침해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지만, 그보다 더 치명적인 지표도 있다. 현재 3천 명이 넘는 사형수가 있으며, 그들 중 절반을 넘는 이들이 유색 인종이다.

경찰의 무자비한 행위는 우리네 도시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경찰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실질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적으로 간주하는 사람이면 어린아이나 할머니, 그 밖의 누구라도 실제로 죽인다. 그들은 먼저 쏘고, 나중에 질문한다. 구치소나 교도소 안에서는 적어도 노예 농장에서 벌어졌던 것만큼이나 잔인한 일이 많이 벌어진다. 점점 늘어나는 수감자

수는 감방의 가파른 상승에서도 발견된다.

예수는 정치범으로 처형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로마 제국의 악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환전상들의 탐욕에, 그리고 당시의 죄악과 부정의에 맞서 싸웠기 때문이다. 예수는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 병든 자와 억압받는 자를 변호했다. 처음 그의 추종자였던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예수와 똑같이 했으며, 그 때문에 그들은 사자굴 속으로 던져졌다. 나 또한 엄청난 억압에 맞서 견뎌온 수많은 사람들의 모범을 따르겠다고 결심했다.”

아사타가 옳다. 초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돈을 들여 굶주린 이들을 먹였다. 개개인이 희생하여, 헐벗고 집 없는 이들에게 옷을 입히고 쉼터를 제공했다. 그들이 정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평화를 말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동시대인들은 “저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를 보라” 고 말했다. 오늘날의 상황은 너무도 다르다. 가톨릭 노동자회의 공동 창립자인 피터 모린Peter Maurin은 이렇게 지적한다. “오늘날 가난한 이들은 더 이상 개인들의 희생에 힘입어 먹거나 입거나 쉼터를 제공받지 않는다. 그러한 일은 납세자의 돈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에 대해 ‘저들이 어떻게 책임을 전가하는지를 보라’ 고 말한다.”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는 동시대의 경건한 신자들 사이에도 똑같이 돌봄이 없는 것을 보고 이를 끊임없이 비판했다. 그는 문제의 근원이 동료 인간을 완전히 무시한 채 자기만 먼저 구원받으려고 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리스도교 세계에는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 천국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미리 기뻐하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이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은 천국에서 첫 번째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심판을 받는 사람이 될 과업을 시작할 때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진실로 처음 서는 사람만이 그분의 의로움을 진전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나는 많은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천사들이 세상 곳곳에서 ‘선택한’ 사람을 모아놓았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나이 들어 갈수록, 그리고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거대한 불의를 더 깊이 보게 되면서, 예수가 참으로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이들을 위해 온다면 그가 선택한 사람 중에는 반드시 노숙자와 수감자, 이 세상에서 버려지고 잊힌 비참한 사람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더욱더 확신하게 된다.

우리는 그것을 금세 잊어버리지만, 예수의 가치는 우리의 가치와 정반대쪽에서 있다. 그의 정의는 인간의

정의를 뒤집는다. 그는 첫째가는 이가 마지막 사람이 될 것이며 마지막 사람이 첫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은 생명을 구할 것이며 생명을 구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예수에게 그것은 모든 특권과 방어 수단을 버리고 가장 비천한 길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다.

“예수는 죽기 전에, 자신이 권위 있는 사람들, 곧 경건한 자들과 관리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방비 상태로 저들의 권력에 항복하고자 했다. 제자들이 ‘우리 뜻대로 힘에 간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로부터 불벼락을 부를 수 있고, 구름에서 번개를 부를 수 있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는 그들에게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고 되물었다. 너희는 성령을 잃어버렸다! 너희는 가장 고귀한 사명을 잃어버렸다. 너희가 비록 하늘의 불과 하늘의 번개, 그리고 하늘의 기적을 부른다 할지라도, 사랑 대신에 힘의 원리를 채택하는 순간 너희는 성령을 떠나는 것이다.” (에버하르트 아놀드)

그리스도의 추종자라고 공언하는 우리에게서는 정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폭력이나 힘을 사용하는 것은 고려될 수조차 없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

게 다른 이들을 붙들고 길게 이야기하거나, 그들이 우리의 사고방식에 동의하도록 꺾거나 설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투쟁하는 제3세계 농민이나 도시 무정부주의자, 경찰이나 병사에게 “당신의 무기를 내려놓고 사랑과 평화의 길을 가라” 고 주장할 수 없다.

믿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 모든 순간에 모든 이의 관심사가 되지도 않는다. 설령 모든 이에게 주어지고 모든 이의 관심사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명백한 방식으로가 아닐 수도 있다. 내 경험으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보기 좋은 묶음으로 정리되어 오지는 않는다. 심지어는 우리에게 전혀 다가오지 않는 때도 있다. 시행착오를 거치며, 오랜 투쟁 속에서 그것을 추구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이다.

도로시 테이는 《순례의 여정 On Pilgrimage》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정의의 요구와 평화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것인가 하는 어려운 문제를 다룬다. 그녀는 어떤 단순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는다. 단지 어떤 탐구이나 유익한 기초를 알려줄 뿐이다. 바로 겸손이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자유가 가공할 만한 선물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또 그분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죄와 증오, 그리고 잔인함과 경멸의 늪을 갈아엎는 일을 우리에게 맡겼다. 그 늪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 낸 늪이다.”

“정신 병원에 있는 잊혀진 노인, 바위리 가(뉴욕 시에 있는 큰 거리—옹긴이) 길가에서 노숙하거나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찾고 있는 이들, 혹독한 추위에 아무런 난방 기구도 없이 지내는 빈민가 가족, 판자촌에 있는 이민자들을 볼 때, 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기를 들고 혁명에 나서도록 이끄는 의로운 분노의 충동에 공감할 수 있다.”

“우리는 분명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자도 아니며, 폭력 혁명을 신봉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카스트로가 얼마 안 되는 동료들과 했던 것처럼 반란을 일으키며 싸우는 것이 더 낫다고 믿는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정의와 진리를 이루는 수단으로 전쟁을 벌이는 일을 그만두겠다고 맹세하기 전에는, 사회 질서를 바꾸기 위해 전쟁을 하는 사람들을 비판할 수 없을 것이다.”

마틴 루터 킹은 인권 운동이 한창일 때 한 연설에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말했다. 즉 스스로도 정의를 언급하면서 누군가 정의를 향해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그게 뭐든 끊임없이 비난하는 방관자들을 비판한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온건한 백인들에게 대단히 실망했다. 그들은 정의보다는 ‘법과 질서’에 더 충실하다.

또 그들은 정의가 살아있는 적극적인 평화보다는, 긴장이 없는 소극적인 평화를 더 선호한다.”

다른 사람들, 특히 북부에 사는 많은 수의 젊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킹이 간디가 주창한 비폭력의 힘을 믿고 따르는데다 신중하다 못해 무능력하기까지 하다며 그를 못마땅히 여겼다. 킹은 덜 평화적인 방법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그들을 지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전술을 명백하게 비난하지도 않았다. “억압받는 이들이 평화적으로 혁명을 성취하려는 권리를 거절당한다면, 그들이 폭력 혁명으로 돌아섰을 때 어떻게 비난받을 수 있겠는가?”

〈시편〉 85편에서 우리는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땅에서는 진실이 돌아나오고, 하늘에선 정의가 굽어보리라” 라는 구절을 본다. 우리가 이 약속을 신뢰한다면, 이 말이 단지 어떤 영광스러운 내세에서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기꺼이 모든 것을 무릅써야 한다. 경제적 착취든 사회적 불평등이든 인종적 분열이든 정치적 억압이든지 간에 우리는 모든 형태의 불의를 물리쳐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병역 의무라든지 무장 혁명, 나아가서 경찰의 폭행이나 여자와 어린이에 대한 학대에 이르는 온갖 폭력도 거부해야 한다.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의 정의는 이해 관계나 권리의

조정과는 매우 다른 어떤 것에 기초하고 있다. 그것은 자유, 평등 그리고 박애라는 인본주의 개념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며, 경쟁할 수 있는 기회보다 더 기본적이다. 그것은 사랑에서 태어나는 정의이며, 서로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우리의 자발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할, 다시 말해 우리의 형제를 위해 생명 그 자체를 바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평화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이야기는 무의미하다.

내 할아버지 에버하르트 아놀드의 말을 인용해 본다.

“우리는 죄 없는 상태로 살지 못하고 살 수도 없다. 그러나 악이 불가피하다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에 속박되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흔히 기존 질서에 대한 게으른 동의로 빠져버린다. 우리가 어떻게 예언자들이 증언하는 세계 평화를, <요한계시록>에 선포된 정부의 소멸을, 형제애와 공동체에 의한 현재 사회 질서의 극복을 깨끗이 잊어버리겠다고 상상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께서 우리 앞에 제기한 양자택일—하느님인가 아니면 탐욕의 신mammon인가?—을 회피할 수 있는가? 우리 중 너무도 많은 이들이 예수의 명확함을 외면해 왔다. 우리 가운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처한 역설적인 상황을 나약하게 받아들여 왔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동시에 예와 아니오, 아니오와 예를 말한다. 싸우려는 우리의

강한 충동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할지도 모른다. ‘당신은 온갖 악에 맞서는 일반적인 운동을 하고 싶지 않은 게 분명해!’ 라고. 그러나 정확히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온갖 악에 맞서기 위해 예수는 이 땅에 왔으며, 우리를 불렀고, 이 싸움을 시작하고 수행하도록 우리를 내보냈다. 예수는 악마의 일을 파괴하기 위해 왔다. 예수는 완전한 빛이며, 그 안에는 한 점의 어두움도 없다.”

## 희망

하느님이 어디에 있든지 그분의 평화는 다가온다. 하느님의 현존으로 우리는 내면의 들떠 있음과 분열 그리고 적대적 충동으로부터 자유롭고,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조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하느님은 살아있는 하느님이다. 따라서 자신이 평화인 것과 똑같이 또한 행동이다. 그리고 자신이 부여하는 조화의 기초 위에 서 더 넓은 통일을 이룬다. 이 통일은 사랑의 기쁨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목적과 행동, 공동체, 형제에 그리고 정의,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에버하르트 아놀드

평화는 생명을 주는 힘이다. 평화는 깨어진 것을 치유하고, 소모된 것을 다시 채우며, 엷히고 억눌린 것을 풀어준다. 평화는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불일치가 있는 곳에 조화를, 증오가 있는 곳에 사랑을 불러온다. 또 분열이 있는 곳에 온전함을, 절충과 사기가 있는 곳에 일관성을 가져온다. 평화는 존재의 모든 영역을 꿰뚫는다. 물질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도, 영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영역도 두루 관통하는 것이다. 만약 평화가 이러한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혀 참된 평화가 아니다. 순전히 공상일 뿐이다.

평화는 하느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나 평화는 온 지구를 포용한다. 그리고 그 힘이 지배할 때는 사람과 구조를 변화시킨다. 평화는 목표에 있어서는 우주적이다. 그렇지만 조용히, 때로는 알아차리지 못하게,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평화가 다스리는 곳에는 참 자아와 현 자아, 여자와 남자, 사람과 하느님의 통일이 있다. 거기에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통일이 있다. 성전은 정화되고, 몸은 치유된다.

이와 같은 어떤 것도 저절로 또는 진공 속에서 일어날 수는 없다. 이 책 전체에서 우리는 평화의 길이 수동성이나 체념과는 아무 관계가 없음을 살펴봤다. 평화는 결단력이 없는 사람이나 자신에게만 빠져 있는 사람, 또는 고요한 삶에 만족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평



화는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양심의 빛 안에서 정직하게 살기를 요구한다. 그것은 의무의 짐이 없이는 다가오지 않는다. 평화는 사랑의 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평화는 희망과 용기, 비전과 헌신이 있어야만 꺾이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혹독한 수행이다. 그래서 평화를 찾는 길은 이기적인 것이 될 수 없다. 평화는 단순히 종지부를 찍거나, 어떤 것을 성취하거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그런 문제일 수가 없다. 결단코 아니다!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 안에서 다른 이들과 그리고 하느님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마지막 기도에서 마음속에 그런 하나됨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뜻한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우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과 평화롭게 지내며 그분과 하나라고 느낄 때 조차도, 인간의 하찮음과 우리의 창조주인 하느님의 위대함 사이의 차이점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인식한다고 해서 좌절해서는 안 된다.

키에르케고르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우리는 두

려움을 던져버려야 한다. 진리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인생을 그만두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영원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삶의 충만함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이 말이 웅대하게 들리겠지만, 실제로는 매우 단순하다. 우리의 시선이 영원한 것에 닿아 있을 때, 우리는 사랑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웃과 배우자, 적과 친구에 대한 사랑에 의해서 동기를 부여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 살아있는 모든 것과 함께 조화롭게 살기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리라. 그에 대한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리지외의 성 테레사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나는 사랑 덕분에 내 소명의 실마리를 얻었다. 만약 교회가 서로 다른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한 몸이라면, 몸을 이루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사랑이 모든 소명을 포함하고 있고, 사랑이야말로 모든 것이며,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모든 시간과 장소를 얼싸안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황홀한 기쁨에 휩싸여서 나는 ‘마침내 내 소명을 찾았다. 내 소명은 사랑이다! 나는 내 역할을 찾았다. 나는 사랑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모든 것이 될 것이며, 그렇게 해서 내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외쳤다. 내가 왜 황홀한 기쁨에 대해 말하는가? 그것은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문구다. 그 대신 나는 키잡이가 자신을 항구로 인도하는 등대를 보았을 때 느끼는 그 고요하고 평온한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사랑의 등대는 얼마나 밝게 타오르는가! 그리고 나는 거기에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불꽃을 어떻게 내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안다.”

우리 대부분은 성 테레사 수녀의 열광을 반도 지니고 있지 않다. 반대로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가 지적하듯이, 평화와 일치하는 우리네 삶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우리는 잡담과 거짓말, 증오와 시기라는 독으로 가득한 거미줄에 꼭 얽매여 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싸우며 시기한다. 그것은 한 사람이 다음 사람을 공격하는 식으로 진행되면서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되면 아무도 평화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가슴에 복음을 지키면서 실제적인 방식으로 구세주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 결코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룸하르트는 계속해서 “왜 우리 가슴이 넓게 열리고 자유로워져서, 우리

가 형제자매가 될 수 없단 말인가? 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없단 말인가?” 하고 묻는다.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랍비 휴고 그린 Hugo Gryn은 어린 시절 아우슈비츠에서 희망의 중요성을 배웠다. 그때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막사에 감금되어 있었다.

“최악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은 할 수 있는 한 율법을 계속 준수했다. 어느 한겨울 저녁, 한 동료가 빛의 축제인 하누카 Chanukah의 첫 번째 밤이 곧 다가온다고 아버지에게 알려주었다. 아버지는 그 다음 며칠에 걸쳐서 금속 조각으로 작은 촛대를 만들었다. 심지는 죄수복에서 실을 뽑아서 만들었다. 기름으로는 간수를 피어서 구한 버터를 썼다.

그러한 일들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지만,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는 데 익숙했다. 나는 왜 귀중한 열량을 ‘낭비’ 하느냐고 항의했다. 버터를 태우는 것보다는 빵에 발라 먹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휴고야, 너와 나는 사람이 음식 없이도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은 희망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구나. 이 기름은 희망의 불꽃을 피울 것이다. 희망이 사라지지 않게 해라.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어디에서도 말이다. 이것을 기억해 다오’ 하고 말씀하셨다.”

랍비 그린의 이야기는 그의 앞뒤로 산 많은 이들이 발견한 진리와 연결된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희망 때문이라는.

“묵시록적 비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반대되는 증거가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선함이 승리하리라는 희망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정의가 회복되는 것과, 잔인하고 부당하며 폭력적인 세상 속에서 하느님이 가장 크게 고통받아 온 이들과 함께 오시는 것을 본다. 그 하느님은 최후의 독재자처럼 소리 지르고 뿔내는 분이 아니라, 온화하게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분이다.” (캐슬린 노리스 Kathleen Norris)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지금 그 희망을 좇아 행동하지 못할 것이 없어야 된다. 복음이 가르치는 것처럼 “주를 위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다림에는 언제나 행동이 있을 것이다.

멕시코의 치아파스에서 1997년 마지막 날, 수백 명의 초철 인디언이 액틸이라는 마을로 기념비적인 행진을 감행했다. 그곳은 45명의 동료들—대부분이 여인과 어린이였다—이 바로 아흐레 전에 친정부적인 지방의 용군에게 잔인하게 학살된 곳이었다. 정치적 억압으로 실종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고립된 지역에 살고 있었

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위험천만한 행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행진한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 때문에 이중으로 비난받기 쉬웠다. 그들은 비록 지방 사파티스타 자유 투사들의 목표를 지지하지만, 여전히 무력 사용에는 반대했으며, 그래서 투쟁성과 불충성 不忠誠이라는 양 측면에서 비난을 받은 것이다. 그렇지만 그 행진은 단순한 도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결단과 희망의 정신 속에서 감행한 도전이었다.

무리의 선두에 있던 나무 십자가에는 “지금은 수확할 때이며, 세울 때이다” 라고 써어 있었다. 많은 남자들이 벽돌을 운반했다.(어떤 사람이 “우리가 겪는 고통의 무게를 상징하는 행위” 라고 말했다.) 이 벽돌로 죽은 이들을 위한 성당을 지을 계획이었다. 몇몇 사람들은 또 도망쳐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마을에 다시금 정착하기로 했다. 그리고 금이 간 동정녀 마리아 상을 “평화의 이름으로” 운반하면서 여전히 비폭력에 자신을 내맡겼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죽음을 그렇게 고요히 응시할 수 있는 이 용감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들의 평화로움은 그들에게 어떤 순교자 같은 능력이 있다는 표지인가?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라는 징후인가? 아마도 그들은 필립 베리건의 아내 엘리자베스 매컬리스터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가장 최근 남편이 투옥된 뒤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자비롭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하느님의 비전, 나아가 하느님의 약속은 우리가 인생을 걸 만한 약속이지요. 그 약속이 모든 사람과 모든 땅에 현실로 이뤄지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사야서〉에 있는,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라는 하느님의 비전에 당신의 삶을 걸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내하며, 우리 하느님에 의해 그 인내 속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은 이 시대에 하느님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그것을 현실화하는 운동의 한 부분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카라마조프의 형제》의 한 구절에서, 도스토예프스키는 이와 비슷한 희망과 믿음에 대해 쓰고 있다. 조시마 신부(그가 아직 젊었을 때)와 신비스러운 방문객 사이에서 이루어진 대화가 그것이다.

“방문객은 ‘천국은 우리 모두의 안에 숨겨져 있소. 지금, 여기 내 안에 숨겨져 있어요. 내가 만일 마음을 내면, 천국은 내일 그리고 영원토록 나에게 드러날 것이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열정적으로 말하고 있었으며, 나에게 무엇을 묻는 듯 신비롭게 나를 응시하

고 있었다.

‘우리 자신의 죄와는 별개로, 우리 모두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은 말이에요. 또 그대가 단번에 모든 것 안에서 그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면 훌륭한 일이 될 것어요. 사람들이 바로 그 진리를 이해하는 순간, 하느님 나라는 꿈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체가 될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가차 없이 부르짖었다. ‘도대체 언제 그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과연 일어나기는 할까요? 그것은 단지 우리의 꿈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대는 그것을 믿지 않는 것어요’ 라고 그는 말했다. ‘자기 입으로 설교하면서도 그대 자신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 나를 믿으시오. 그대가 그것을 부를 때 그 꿈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어요. 그것은 올 것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요. 왜냐하면 모든 과정은 그 자체의 법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과정이요. 세상을 변화시켜 새롭게 재창조하려면,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새로운 길로 들어서야 하요. 그대가 현실 속에서 참으로 모든 이들의 형제가 되고 나서야 형제애는 이루어질 것어요. 그 어떤 종류의 과학적 가르침도, 어떤 종류의 공통된 이해도, 모든 이들을 공평하게 고려하면서 재산과 특권을 나누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는 없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몫이 너무 작다고 생



각할 것이고, 따라서 시기하고 불만을 터트리고 서로를 공격할 것ियो. 그대는 언제 그것이 이루어지느냐고 물었소. 그것은 이루어질 것ियो. 그러나 먼저 우리는 고독의 시기를 거쳐야만 하오.’

나는 그에게 ‘고독이라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다.

‘왜, 고독은 어느 곳에나 널려 있소. 특히 우리 시대에 널려 퍼져 있소. 그러나 고독은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는 못했소. 아직 그 한계에 도달하지 않은 것ियो. 모든 이들이 가능한 한 분리된 채로 자신의 개인주의를 지키려고 애쓰기 때문이요. 모든 사람은 혼자 힘으로 가능한 한 최대의 풍족을 누리고 싶어하지요. 그러면서 그것을 고립된 개인의 노력보다는 사회적 연대 가운데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고요. 그러나 이 끔찍한 개인주의는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소. 갑자기 모든 이들이 서로간에 얼마나 부자연스럽게 분리되어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यो. 이런 이해가 그 시대의 정신이 될 것이며,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나 오랫동안 빛을 보지 않은 채로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는 것에 놀라게 될 것ियो. 그리고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징이 하늘에 보일 것ियो.’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깃발이 휘날리도록 해야 하오. 때때로 홀로 그 일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자신의 행동이 미친 짓으로 보일 수도 있소. 그렇지

라도 모범을 세워야 하며, 그렇게 사람들의 영혼을 고독  
으로부터 끌어내야 하고, 그들이 뭔가 형제적인 사랑으  
로 행동하도록 자극해야 하오. 그 위대한 생각이 죽지  
않도록.’ ”

## 저자에 대하여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는 1983년부터 브루더호프 공동체의 원로 장로로 봉사하고 있다. 그 이전 1972년부터 1982년까지는 브루더호프 공동체의 목회자로, 그리고 보좌 장로로 공동체를 섬겼다. 그는 운동을 위해 세계 곳곳을 여행했으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마더 테레사, 사무엘 루이즈 주교, 탁났한 스님을 비롯한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다.

크리스토프와 그의 아내인 베레나는 8명의 자녀를 두었고, 16명의 손자손녀가 있다. 이들 부부는 여러 해 동안 수많은 부부와 독신자, 십대와 감옥 수감자를 상담했다. 또 말기 환자와 가족을 목회 안에서 돌보기도 했다.

크리스토프는 몇 권의 베스트셀러를 낸 저자이기도 하다. 《아름다운 약속 순결 A Plea for Purity》 《브루더호프의 아이들 A Little Child Shall Lead Them》 《신비를 말한다 I Tell You a Mystery》 《일곱 번씩 일흔 번을 Seventy Times Seven》 《두려움 너머로 Be not Afraid》 등이 그가 낸 책이다. 처음에 언뜻 보면 그의

책은 종교에 몸담고 있는 다른 저자들의 책과 전혀 다를 바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의 책에 담긴 메시지가 브루더호프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삶으로 살아낸 진실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예수의 산상설교의 가르침과 예루살렘의 초기 신자들의 실천에 근거하여 공동체 운동을 하고 있는 브루더호프에서 말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의 책들은 전체 교회의 삶과 믿음을 표현한 책이라고도 볼 수 있다.

크리스토프는 브루더호프의 분기별 간행물로서 영적·사회적 변혁 문제를 다루는 《플라우The Plough》의 편집장이기도 하다. 또 활동적인 발언자로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에 많이 출연하였고, 신학교와 대학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다.

## 브루더호프에 대하여

### 기초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느님의 영이 오늘날 세상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해야만 합니다. 하느님은 여전히 인간을 불의의 체제에서 정의로, 폭력과 공포 그리고 소외라는 낡은 방식에서 평화와 사랑, 형제애라는 새로운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분은 우리를 공동체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생활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산상설교와 신약 성서에 있는 그분의 가르침, 특히 형제 사랑과 원수 사랑, 서로간의 섬김, 비폭력과 무장 거부, 순결과 결혼 생활에 충실함 등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사유 재산을 유지하는 대신,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 초대 그리스도인이 했던 방식대로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식구들은 자신의 재능과 시간, 노력을 필요한 어느 곳이라도 제공합니다. 돈과 재산은 자발적으로 모으며, 식구들은 차례대로 공급을 받고 돌봄을 받게 됩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는 함께 하고, 친교와 찬양 기도 또는 의사 결정을 위한 모임이 한 주에 몇 차례 저녁에 있습니다.

## 가정 생활

우리 식구들 중에 독신도 많이 있지만, 가족이 우리 공동체의 기본 단위입니다. 아이들은 우리 공동 생활의 중심입니다. 부모가 일차적으로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지만, 교사는 공동체의 모든 성인 식구들이 하는 것처럼 아이들을 격려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짐을 덜고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노동 시간에 아기와 어린아이들은 ‘어린이 집’에서 보살핌을 받습니다. 초·중등학교 과정은 공동체 자체의 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이후에는 공립 고등학교에 가고, 그 후 어떤 학생들은 대학에 가고, 어떤 학생들은 공동체 밖에서 자원 봉사를 하거나 직업을 갖습니다.

장애인, 환자 그리고 노인은 공동체의 보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 안 되더라도) 공동 작업에 참여하기도 하고, 집에 남아 있을 때는 아이들의 방문을 자주 받으며, 매우 중요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 노동

우리의 생활은 노래 소리와 노는 소리가 일하는 소리만큼이나 가득한 즐거운 생활입니다. 우리는 교실 비

품과 놀이 도구, 장애인 보조 기구를 제작하고 판매하여 생활을 꾸려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은 모험적 사업을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것에서부터 작업장에서 제품을 조립하거나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노동은 서로에 대한 사랑의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 기원

브루더호프의 기원은 16세기 초 유럽의 급진적 종교 개혁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이른바 재세례파 Anabaptists로 불리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소박함과 형제애, 그리고 비폭력을 찾아서 제도화된 교회를 떠났습니다. 지도자 야콥 후터 Jakob Hutter의 이름을 따라 후터파라고 불린, 이 비제도권 운동의 한 흐름이 모라비아에서 공동체 마을 또는 브루더호프(‘형제들의 처소’라는 뜻)로 정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들은 탁월한 장인 정신과 앞선 의료 기술, 성공적인 농업, 그리고 진보적인 학교 덕분에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 최근의 역사

유명한 강사요 작가였던 에버하르트 아놀드는 1920년에 베를린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아내와

자녀와 함께 자나쁘라는 독일의 자그마한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초대 교회의 실천에 근거한 작은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아놀드가 자신의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데 초기 후터 파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곧이어 후터 파 브루더호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지금도 북아메리카에 있다) 알게 된 뒤 관계를 맺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나치의 박해와 제2차 세계대전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습니다. 독일에서 어려움이 커지자(1937년에는 추방되었습니다) 1930년대 후반에 영국에 새로운 브루더호프들이 세워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두 번째 이주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다국적 집단인 우리를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한 유일한 나라인 파라과이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대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공동체 지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60~1961년에는 남미 공동체들이 폐쇄되었고, 이곳 식구들은 유럽과 미국으로 옮겨 가게 되었습니다. 2000년 이후 ‘브루더호프’ 라는 이름을 버리고, 각 지역의 이름을 딴 공동체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라도 ‘예수의 이름’ 으로 모이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으며 온 나라로 예수의 가르침을 이름없이 살아가려 합니다.



## 현재

오늘날 브루더호프 공동체는 미국 뉴욕, 펜실베이니아 그리고 영국 이스트 석세스와 켄트, 호주, 한국, 남미 등 크고 작은 형태로 있습니다. 우리는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예수를 따르며, 그에게 대적하는 사회 안에서 그의 사랑의 영에 의해 인도되는 새로운 삶을 일구어내는 우리의 사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운동은 현시대의 문화의 흐름에 맞서 싸우며, 그 길에서 우리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생기는 장애물과 맞서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느님은 박해나 내적인 투쟁, 영적 침체가 있을 때에도 우리를 붙들어주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그분께 맡깁니다.

## 활동

지역 차원에서, 우리는 푸드 बैं크를 운영하거나 재소자를 방문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자원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넓은 차원에서는 다른 운동체나 개인들과 교류함으로써 세계 속에서 많은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처럼 선교는 우리 활동의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새로운 질서라는 비전을 함께 나누고, 더욱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

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는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할 확실한 길을 찾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주말을 우리와 함께 보냅시다!

## 비전

비록 문화와 나라, 그리고 생활 방식이 서로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는 개인으로서,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하지만,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 사랑과 자유와 진리라는 예수의 분명한 길을 행동으로 살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에버하르트 아놀드의 다음의 말에 동의합니다.

“이 행성, 지구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 질서, 새로운 일치, 새로운 기쁨으로 정복되어야 합니다. 기쁨은 사랑의 하느님이시며, 평화와 일치와 공동체의 영이신 하느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가져온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의 메시지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타당하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 플라우 출판사

우리 출판사는 공동체 식구들이 운영하며, 급진적인 그리스도교 제자도, 공동체, 결혼, 가정 교육, 사회 정의, 그리고 영적인 삶에 대한 책들을 판매합니다. 또 자

그마한 정기 간행물인 《플라우》를 출판하는데, 여기에는 주류 매체들이 무시하는 현행의 문제들을 다룬 글과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글을 싣고 있습니다. 《플라우》의 총 출판 목록과 견본은 요청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안내

더 많은 정보나 방문을 원하실 경우에는 저희에게 편지나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공동체의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The Plough Publishing House  
Darvell community  
Robertsbridge, East Sussex  
TN32 5DR UK

Tel: +44(0) 1580 88 33 00

[www.plough.books.co.uk](http://www.plough.books.co.uk)

## 옘긴이의 말

언제부터인가 평화에 대한 목마름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자비한 폭력과 불의에 맞서 정의와 평화를 찾아 길을 떠난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길에서 제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의연한 듯했지만, 내면의 모습은 일그러지고 찢겨지고 굳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본래의 나를 찾아가는 노력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되다 보니, 영혼의 깊은 곳에서 절로 평화에 대한 간절함이 올라왔지요. 오랜 동안 옆에 묵묵히 있었던 자연의 품에 안기니 평화의 숨결을 조금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요한 침묵 속으로 들어가 보니 그분의 위로와 평화를 조금은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면의 평화와 사회의 평화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길을 찾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지요. 그런 중에 이 책을 만났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과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모범을 따라, 참된 평화의 길을 철저하고도 끈기 있게 추구해 온 브루더호프 공동체의 진실된 삶에서 우리나라 책입니다. 그러기에 매우 구체적이고 생명력이 넘쳐흐름

니다.

이들이 찾은 평화는 현실의 온갖 문제들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는 수동적이고 내면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또한 거대한 구조악을 제거하면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그런 평화도 아닙니다. 우리가 직면한 전쟁, 불평등, 차별 등과 치열하게 맞서는 과정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이를 넘어서는 평화를 누리는 길, 이 평화의 힘으로 자비로 충만하여 기쁘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이, 이들이 걸어온 평화의 여정이었습니다.

저자는 계속해서 참된 평화는 결코 자기 중심적인 욕망의 만족을 통해서 경험할 수 없으며, 자기를 넘어서서 이웃과 하느님께 온전히 헌신할 때에만 맞볼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번역하면서, 번역이 또한 아름다운 명상이 될 수 있음을 경험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책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풍경소리》 김민혜 목사님과 길벗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오랜 동안 원고를 기다려주고, 여러 모로 서툰 번역 글을 자연스럽게 다듬어준 산티 식구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6년 가을

계양산 밑자락에서 이진권